

길 위의 교회

AI 문명과 기독교의 미래

The Church on the Way — Christianity and Mission in the Age of AI

— 지성이 길이 된 시대, 교회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

김종필

Elijah J F Kim, PhD

목차

Contents

서론	네 번의 여행, 그리고 마지막 물음.....	12
서장 1	세 개의 사고실험 — 다니엘, 로마인, 그리고 우리	14
서장 2	지수함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종(種)	18
서장 3	상상의 계보 — 인류가 꿈꾼 미래는 자주 현실이 되었다	22
서장 4	특이점은 언제 오는가 — 시나리오 플래닝 원도	26
제 1 부 지성이 된 문명을 분별하다		
제 1 장	문명이란 무엇인가 — AI 를 문명이라 부르는 근거	31
제 2 장	두 극단을 거부한다 — 분별이라는 좁은 길	40
제 3 장	AI 는 도구인가, 환경인가, 권세인가	42
제 4 장	바벨의 귀환 — 전지·편재·전능·불멸의 욕망	46
제 5 장	종말론 — 가능성과 성취 사이	48
제 2 부 AI 문명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 남는 법		
제 6 장	AI 문명은 어떤 인간을 만드는가	51
제 7 장	그리스도인의 다섯 규율	56
제 8 장	AI 가 대신할 수 없는 교회	60
제 9 장	AI-Ready Church 와 AI 언약	63
제 10 장	AI 시대의 공공신학	66
제 3 부 세계 기독교와 선교의 재구성		
제 11 장	선교 마찰의 붕괴	68
제 12 장	AI Mission Dividend 와 네 가지 의존	72
제 13 장	알고리즘 식민주의와 세계 기독교	75
제 14 장	열 가지 경종 — 예언자적 증언	80
제 4 부 길 위의 교회		
제 15 장	세 우상 — Power · Performance · Control	84

제 16 장	대항 형성 — 다른 종류의 인간을 만드는 교회	88
제 17 장	길 위의 교회	94
제 18 장	일곱 개의 변화 — AI 가 바꾸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환경이다 .	97
제 19 장	더 빨라질 것인가, 더 깊어질 것인가 — AI 시대의 인간 형성 .	104
제 20 장	두 개의 지도 — 다중심화하는 교회, 집중화하는 컴퓨트	109
제 21 장	현존이 희소해진다 — Presence Is the New Scarcity	114
제 22 장	그 길(ἡ ὁδός)과 할라카 — 걷는 신앙의 히브리적 뿌리	120
제 23 장	자주 받는 질문 — 강의에서 다 답하지 못한 것들	125
제 5 부	진단에서 사명으로	
제 24 장	시대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30
제 25 장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The Great Mission Transition .	133
제 26 장	세계교회의 방향과 전략 — 다중심 선교와 선교 생태계	135
제 27 장	한국교회의 방향과 전략 — 파송 강국에서 선교 플랫폼으로 ..	137
제 28 장	선교사의 방향과 전략 — 제공자에서 연결자로	140
제 29 장	네 개의 전선과 다섯 개의 전략	142
제 30 장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145
에필로그	길은 바뀌었다, 사명은 바뀌지 않았다	148
참고문헌	Bibliography	149
부록	더 읽을 자료 — 문헌·보고서·온라인 자료	153

서문

저자의 말

이 책은 「길이 지성이 되다」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책이다. 제 1 강 「길」이 인공지능을 문명사의 다섯 번째 문턱으로 진단했고, 제 2 강 「컴퓨터의 권세」가 그 문턱을 넘게 하는 힘이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소유하는지를 물었으며, 제 3 강 「사람이란 무엇인가」가 그 문명 속에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물었다면, 이 책은 마침내 교회를 묻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이 책은 “교회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루지 않는다. 설교문 작성, 프레젠테이션 제작, 성경 검색, 번역, 기도문 생성, 행정 자동화, 영상 제작 — 이 모든 것은 필요하며 이미 여러 매체가 잘 다루고 있다. 이 책이 하려는 일은 다른 것이다.

The deeper question is not “How can the Church use AI?”
but “How should the Church live in an AI civilization?”

이 책의 방법론

첫째, 관찰된 현실에서 출발한다. 이 책의 모든 신학적 주장은 실증 위에 세워진다. 스탠퍼드 「AI 인덱스 2026」, 국제 AI 안전보고서, 세계경제포럼, OECD, 유네스코, 세계은행, UNCTAD, 국제에너지기구, 그리고 스탠퍼드 디지털경제연구소의 노동시장 연구가 근거다. 정보나 분석 없이 해석학적 대안만 제시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두 극단을 모두 거부한다. 기술낙관주의와 종말론적 선정주의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생각하기를 멈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셋 중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드문 길 — **분별** — 을 택한다.

셋째, 시대는 분별하되 때는 계산하지 않는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나”(마 16:3)는 명령이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행 1:7)는 금지다. 그러므로 이 책은 어떤 연도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방향과 자세를 제시한다.

넷째, 유대교와 세계 기독교의 전통을 함께 듣는다. 안식일과 하브루타, 피쿠아흐 네페시와 발 타쉬히트 같은 유대교의 오래된 지혜가 AI 시대에 놀랍도록 현대적임을 보인다. 그리고 니버와 본회퍼와 카이퍼의 공공신학, 엘월과 매클루언과 포스트먼의 기술철학, 월스와 사네의 세계 기독교 논의를 함께 읽는다.

“문명”이라는 명명에 관하여

이 시리즈는 인공지능을 일관되게 “AI 기술”이나 “AI 시대”가 아니라 **“AI 문명”**이라 부른다. 이것은 강조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검증되어야 할 학문적 주장이다. 그러므로 본서는 제 1 장 전체를 그 검증에 바친다.

문명은 흔히 발전된 사회나 높은 수준의 문화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역사학과 문명학에서 문명은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한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일하고 소통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가를 규정하는 **사회 전체의 운영 원리이자 삶의 체계**다. 그러므로 문명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술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었는가에 있다.

그리고 이 명명이 실천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다. 기술에 대한 물음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이지만, 문명에 대한 물음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이기 때문이다. 본서가 활용법을 다루지 않고 삶의 방식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책의 세 명제

본서는 세 개의 명제 위에 서 있다.

Thesis I — AI는 선교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환경을 바꾼다.

Thesis II — 교회가 AI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AI가 재편한 세계에서 살지 않을 수는 없다.

Thesis III — AI 시대의 가장 큰 기독교적 과제는

기술 적응이 아니라 인간과 교회의 형성이다.

이 세 명제가 책 전체를 세 기둥 위에 세운다 — **문명적 변화(Civilizational Change) → 신학적 분별(Theological Discernment) → 기독교적 형성(Christian Formation)**. 제 1 부가 첫째를, 제 1·2 부가 둘째를, 제 2·4 부가 셋째를 담당한다.

교회의 다섯 가지 응답

그리고 본서가 제안하는 교회의 응답은 다섯 낱말로 압축된다. 이것이 이 책의 신학적 척추다.

분별(Discernment) · 저항(Resistance) · 선용(Redemptive Use)

대항 형성(Counter-Formation) · 증언(Witness)

다섯 낱말의 순서에는 논리가 있다. **분별**하지 않으면 무엇에 **저항**할지 알 수 없고, 저항할 줄 모르면 **선용**이 굴복이 되며, 선용에만 머물면 **대항 형성**에 이르지 못하고, 형성되지 않은 공동체는 **증언**할 수 없다. 기술 거부도 기술 숭배도 아닌 제 3의 길이 이 다섯 낱말 안에 있다.

이 책의 최종 명제

그리고 이 모든 논의가 향하는 마지막 명제를 미리 밝혀 둔다.

AI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AI를 만들어 낸 문명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보다

교회를 더 깊이 형성하는 것이다.

두 축이 만나는 자리

AI는 선교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환경을 바꾼다.

교회가 AI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AI가 재편한 세계에서 살지 않을 수는 없다.

이 두 명제가 이 책의 현실적 축이자 예언자적 축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 책은 하나의 중심 명제를 향해 간다.

AI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AI를 더 잘 쓰는 것이 아니다.

AI가 지성이 된 세상 한가운데서 여전히 “길 위의 교회”로 남는 것이다.

김종필 (Elijah J F Kim, PhD)

프롤로그

로마의 길과 오늘의 길

초대교회는 기술적으로 강하지 않았다. 로마에는 도로가 있었고, 제국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행정망과 법률과 화폐가 있었다. 교회에는 그것이 없었다. 교회가 가진 것은 복음과 성령과 공동체와 증언과 희생과 소망뿐이었다.

그런데 복음은 로마의 길을 따라 세계로 갔다. 교회가 그 길을 놓은 것이 아니었다. 로마가 자기 군단을 이동시키고 세금을 걷고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놓은 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 위로 바울이 걸었고, 서신이 오갔고, 순교자들이 끌려갔으며, 마침내 복음이 제국의 심장에 도달했다.

이 사실에서 이 책의 첫 번째 위로가 나온다.

The Church does not need to own the road to walk faithfully on it.

오늘의 길은 로마의 길이 아니다. 광케이블과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와 위성 and AI 네트워크와 에이전트와 로봇이다. 교회가 모든 GPU 를 소유할 필요는 없다. 모든 AI 회사를 운영할 필요도 없다. 최고의 모델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길 위를 신실하게 걸을 수는 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로마의 길은 적어도 중립적이었다. 돌은 그 위를 걷는 사람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의 길은 다르다. 이 길은 걷는 사람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추천하고, 설득하고, 형성한다. **길이 지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물음은 이것이다. 지성이 된 길 위에서, 교회는 어떻게 여전히 교회일 수 있는가.

초록

국문 초록

본서는 인공지능 문명 앞에서 세계 기독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저자는 논의의 충위를 “교회가 AI 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서 “AI 문명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로 끌어올리고, 두 명제를 축으로 삼는다 — AI 는 선교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환경을 바꾸며, 교회가 AI 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AI 가 재편한 세계에서 살지 않을 수는 없다.

본서는 실증에서 출발한다. 스탠퍼드 「AI 인덱스 2026」은 조사 대상 조직의 88%가 AI 를 사용하고 생성형 AI 가 3 년 만에 세계적으로 53% 수준까지 확산되었음을 보고하며, 세계경제포럼은 2030 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약 22%에 구조적 변화를 전망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센터 전력소비가 2030 년 약 945 테라와트시로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문명적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신학적으로 본서는 AI 를 도구·우상·권세의 세 범주로 검토하여 권세론이 가장 정확함을 논증하고, 계시록을 기술 예언서로 읽는 해석을 경계하되 그 경고의 현대적 적실성은 인정한다. 이어 “선교 마찰의 붕괴(Mission Friction Collapse)”와 “AI 배당(Mission Dividend)”이라는 개념으로 인공지능이 선교에 주는 실제 유익을 여섯 영역에서 서술한 뒤, 인지적·영적·관계적·제도적이라는 네 층위의 의존을 진단한다. 그리고 과거 선교가 반성해 온 문화적 우월주의와 식민주의가 AI 라는 도구를 입고 돌아올 가능성을 스무 가지 퇴행으로 정리하고, 이를 POWER·PERFORMANCE·CONTROL 의 세 우상으로 묶는다. 본서의 실천적 결론은 “대항 형성(Counter-Formation)”이다 — 권력에는 섬김을, 성과에는 은혜를, 통제에는 신뢰와 내어드림을, 규모에는 신실함을, 효율에는 사랑을, 데이터에는 인격을, 가상에는

성육신을, 기술적 교만에는 피조물임을, 그리고 Homo Deus 에는 Imago Dei 를 놓는 것이다.

주제어: 인공지능, 교회론, 선교학, 공공신학, 종말론, 기술윤리, 디지털 식민주의, 대항 형성, 세계 기독교

Abstract

English Abstract

This book asks what world Christianity must prepare for in the face of an emerging AI civilization. The author raises the level of discussion from “how the church may use AI” to “how the church should live within an AI civilization,” organizing the argument around two theses: artificial intelligence does not change the essence of mission, but it changes nearly every environment in which mission takes place; and while a church may decline to use AI, no church can decline to live in a world that AI has reshaped.

The argument begins from evidence. The Stanford AI Index 2026 reports that 88% of surveyed organizations use AI and that generative AI has diffused to roughly 53% globally within three years; the World Economic Forum projects structural change in some 22% of current jobs by 2030; the IEA projects data-center electricity demand near 945 TWh by 2030.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refore no longer a technology trend but a civilizational condition.

Theologically the book examines AI under three categories — tool, idol, and power — and argues that a theology of the powers is most adequate. It resists reading Revelation as a manual of technological prophecy while acknowledging the contemporary pertinence of its warning. It then introduces two constructive concepts, “Mission Friction Collapse” and the “AI Mission Dividend,” describing genuine benefits across six domains, before diagnosing four strata of dependency: cognitive, spiritual, relational, and institutional. It further argues that the cultural

supremacism and colonialism that mission history has long repented of may return clothed in a far more efficient instrument, cataloguing twenty regressions grouped under three idols — Power, Performance, and Control. The book's practical conclusion is counter-formation: servanthood against power, grace against performance, trust and surrender against control, faithfulness against scale, love against efficiency, personhood against data, incarnation against virtuality, creatureliness against technological pride, and the Imago Dei against Homo Deus.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Ecclesiology, Missiology, Public Theology, Eschatology, Technology Ethics, Digital Colonialism, Counter-Formation, World Christianity

서론

네 번의 여행, 그리고 마지막 물음

이 책은 네 번의 여행 가운데 마지막이다. 그 여정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다 — 길 → 권세 → 형상 → 교회.

제 1 장 「길」은 인공지능이 새로운 문명의 인프라가 되고 있음을 논증했다. 인류는 길과 인쇄와 항로와 네트워크라는 네 문턱을 넘어왔고, 다섯 번째 문턱은 지능이다.¹ 제 2 장 「컴퓨터의 권세」는 그 문턱을 넘게 하는 힘이 컴퓨터이며 그것이 경제·정치·군사·지정학적 권세가 되고 있음을 보였다.² 제 3 장 「사람이란 무엇인가」는 AI가 인간의 지성을 추격할수록 인간이 누구인가를 다시 묻게 됨을 논증하고, 인간의 존엄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함을 보였다.³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물음이 남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 1 장이 문명론이고 제 2 장이 권력론이며 제 3 장이 인간론이었다면, 제 4 장은 교회론과 윤리학과 종말론과 선교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응답론이다.

네 개의 질문

본서는 네 가지 질문에 답하려 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째, 우리는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가. 셋째, **교회**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넷째,

¹줄고 제 1 장 「길이 지성이 되다」 참조. 앞의 네 문턱에서 “생각하는 자리”는 언제나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문턱만이 인간 능력의 확장을 넘어 행위자성 자체를 재구성한다는 것이 그 장의 핵심 논지였다.

²줄고 「컴퓨터의 권세: 새로운 경제 패권과 세계의 재편」(조록나무) 참조. 그 책은 컴퓨터를 물질·경제·인식·행정·상상력의 다섯 층위로 분석하고, “도구 → 플랫폼 → 인프라 → 환경 → 권세”라는 권세의 임계점 모델을 제안했다.

³줄고 「사람이란 무엇인가: 지성·인격·하나님의 형상」(조록나무) 참조. 그 책의 귀류법 — 존엄이 성능에서 온다면 초지능이 인간보다 더 존엄해야 한다는 불합리 — 이 본서의 인간론적 전제다.

세계 기독교와 **선교**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물음이 남는다 —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네 질문의 순서에는 논리가 있다. 시대를 읽어야 사람이 서고, 사람이 서야 교회가 서며, 교회가 서야 선교가 간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술의 질문이 아니라 방향의 질문이다.

이 책이 하지 않는 일

오늘 기독교권의 AI 논의 대부분은 활용법에 집중되어 있다. 설교 작성, 프레젠테이션 제작, 성경 검색, 번역, 기도문 작성, 행정, 소셜미디어, 영상 제작. 이 모든 것은 필요하며 유익하다. 본서는 이것들을 폄하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찾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 분별** — 이 시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학적 해석** — AI는 신학적으로 무엇인가. **종말론적 대응** — 그 끝에서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본서는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방향타를 전하려 한다.

그리고 이 책은 실증 없이 해석만 제시하지 않는다. 각 장은 가능한 한 관찰된 자료에서 출발하여 신학적 판단으로 나아간다. 정보와 분석과 실제 세계에 대한 연구 없이 해석학적 대안만 제시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장 1

세 개의 사고실험 — 다니엘, 로마인, 그리고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개의 사고실험을 하려 한다. 이것은 예화가 아니라 이 책 전체의 방법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려면 먼저 보는 자리를 옮겨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1. 첫 번째 사고실험 — 다니엘을 로마로 데려온다면

주전 6 세기의 다니엘을 서기 100 년의 로마로 데려온다고 하자. 그는 무엇에 놀랄 것인가.

먼저 그가 이미 무엇을 보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서 살았다. 그리고 신바빌로니아의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 이슈타르 문과 행렬대로와 지구라트와 성벽, 그리고 유프라테스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를 놀라게 한 것은 “큰 건물”이 아니었을 것이다.

- ▶ 신바빌로니아 시대 바벨론의 규모와 건축에 관하여는 Joan Oates, *Babylon*, rev. ed. (London: Thames & Hudson, 1986); Andrew George, "The Topography of Babylon Reconsidered," *Sumer* 44 (1985–86): 7–24 참조. 이슈타르 문의 재구성은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놀라게 했겠는가. 본서의 답은 이것이다.

충격은 건물이 아니라 체계였다.

로마에는 바벨론에 없던 것이 있었다. 수도교(aqueduct)는 수십 킬로미터 밖의 물을 중력만으로 도시 한복판까지 끌어왔다. 클로아카 막시마(Cloaca Maxima)는 도시의 오수를 티베르강으로 흘려보냈다. 비아 아피아(Via Appia)를 비롯한 도로망은 제국 전역을 하나의 물류 체계로 묶었다. 로마 시민권은 출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그리고 코이네 헬라어는 지중해 전역의 공용어였다.

▶ 로마의 인프라에 관하여는 A. Trevor Hodge, *Roman Aqueducts and Water Supply*, 2nd ed. (London: Duckworth, 2002); Ray Laurence, *The Roads of Roman Italy: Mobility and Cultural Change* (London: Routledge, 1999) 참조. 로마 시민권의 확대와 그 정치적 함의는 Clifford Ando, *Imperial Ideology and Provincial Loyalty in the Roman Empi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를 보라.

이 다섯에는 공통점이 있다. 어느 것도 단독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수도교는 측량 기술과 시멘트와 노동 조직과 유지보수 체계가 함께 있어야 작동한다. 도로는 지도와 이정표와 역참과 치안이 있어야 길이 된다. 곧 로마의 위대함은 개별 발명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했다는 데 있었다.

2. 제국은 교체되었으나 문명은 축적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다니엘서 2 장이 놀랍게 읽힌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신상은 금 머리, 은 가슴과 팔, 놋 배와 넓적다리, 철 다리로 되어 있다(단 2:32-33).

먼저 학문적 절제를 밝혀 둔다. 본서는 이 본문을 문명사적 유비로 사용하며,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해적 의미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네 나라의 동일시에 관해서는 오랜 논쟁이 있다. 전통적 해석은 바벨론-메대바사-헬라-로마로 보고, 현대 비평학의 다수는 바벨론-메대-바사-헬라(셀류코스)로 보며 작은 뿔을 안티오코스 4 세로 읽는다. 본서는 이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 네 나라 해석의 논쟁 지형에 관하여는 John J. Collins,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3), 166-170; Ernest C. Lucas, *Daniel*,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2)를 대조하여 보라. 네 왕국 모티프의 고대 근동-헬라 배경과 후대 수용사에 관한 최근의 종합적 연구로는 Andrew Perrin and Loren T. Stuckenbruck, eds., *Four Kingdom Motifs before and beyond the Book of Daniel* (Leiden: Brill, 2020)이 있다. 이 책은 오픈 액세스로 공개되어 있다.

다만 이미지 자체가 가르치는 것이 있다. 네 금속은 서로 다른 시대에 속하는데 하나의 몸을 이룬다.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가슴이 오는 것이

아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위에서 아래로 이어져 하나의 신상을 이룬다.

제국은 교체되었다. 그러나 문명은 축적되었다.

로마는 로마만이 아니었다. 바벨론의 도시 행정과 법전, 페르시아의 제국 통치와 도로와 우편, 헬라의 철학과 논리와 과학과 교육과 언어가 로마 안에 쌓여 있었다. 로마는 이전 세 문명의 퇴적층 위에 서 있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로마에서 본 것은 “네 번째 나라”가 아니라 네 문명이 겹겹이 쌓인 하나의 체계였을 것이다.

3. 두 번째 사고실험 — 로마인을 2026 년으로 데려온다면

이제 방향을 뒤집는다. 서기 100 년의 로마 시민을 2026 년 보스턴으로 데려온다고 하자.

그는 스마트폰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것을 본다. 비행기가 수백 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건너는 것을 본다. MRI 가 몸을 자르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본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라틴어와 헬라어와 철학에 관해 즉시 대답하는 것을 본다.

아서 C. 클라크의 제 3 법칙이 여기서 정확하다.

“충분히 발전한 기술은 마법과 구별되지 않는다.” Arthur C. Clarke,
1973

▶ Arthur C. Clarke, "Hazards of Prophecy: The Failure of Imagination," in Profiles of the Future: An Inquiry into the Limits of the Possible, rev. ed. (New York: Harper & Row, 1973). 이른바 클라크의 세 법칙 가운데 제 3 법칙이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물음이 나온다. 그는 이것을 마법이라 부를 것인가, 아니면 배우려 할 것인가. 로마인은 공학의 민족이었다. 수도교를 만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는 아마 물었을 것이다 — “이것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그 물음이 정확히 이 책이 하려는 일이다.

4. 세 번째 사고실험 — 우리를 2126 년으로 데려간다면

그리고 마지막 사고실험이 남는다. 이것이 가장 어렵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하다. 우리도 언젠가 고대인이 된다. 다니엘에게 로마가 미래였듯, 로마인에게 2026 년이 상상 불가능이었듯, 우리에게 2126 년은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 “그들은 지수함수를 이해하지 못했다.”

BC 600 다니엘 → AD 100 로마인 → 2026 우리 → 2126 ?

이 사다리가 이 책의 서두를 이룬다.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바는 이것이다. 오늘 우리가 공상이라 부르는 것을 몇 년 뒤 사람들은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5. 그러므로 이 책의 태도

여기서 두 극단을 모두 거부해야 한다. 첫째, 모든 상상이 실현된다는 낙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핵융합 발전도, 상온 초전도체도 여러 번 “꿈”이라 예고되었으나 오지 않았다. 둘째, 상상은 결국 공상이라는 냉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1945 년의 메멕스와 1950 년의 튜링과 1980 년의 전자 오두막은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본서의 태도는 세 문장으로 정식화된다.

Imagination ≠ Prediction.

Prediction ≠ Inevitability.

그러나 — Impossibility today ≠ Impossibility tomorrow.

미래를 예언하지 말라. 그러나 미래를 상상할 능력을 잃지 말라. 그리고 신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교회는 미래를 맞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복음으로 해석하고 준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서장 2

지수함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종(種)

앞의 세 사고실험이 시간의 사다리를 세웠다면, 본 장은 왜 우리가 그 사다리 위에서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는가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답은 인지 구조에 있다.

1. 서른 걸음이면 달에 닿는다

한 걸음에 1 미터씩 걷는다고 하자. 서른 걸음이면 30 미터다. 이것이 선형적 성장(linear growth)이며 우리의 직관은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걸음마다 거리가 두 배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1 미터, 2 미터, 4 미터, 8 미터, 16 미터. 열 걸음이면 약 500 미터, 스무 걸음이면 약 500 킬로미터. 그리고 서른 걸음이면 약 100 만 킬로미터다. 지구에서 달까지가 38 만 킬로미터이니 서른 걸음이면 달을 두 번 넘게 왕복한다. 같은 서른 걸음인데 결과는 30 미터와 100 만 킬로미터다. 3 만 배가 아니라 3 천만 배의 차이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이 차이를 직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선형적 세계에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사냥감이 도망가는 속도, 계절의 주기, 아이가 자라는 속도 — 모두 선형적이었다.

▶ 지수적 증가에 대한 인간의 체계적 과소평가는 인지심리학에서 반복 확인되어 왔다. William A. Wagenaar and Sabato D. Sagaria, "Misperception of Exponential Growth," *Perception & Psychophysics* 18 (1975): 416–422; Matthew B. Levy and Joshua T. Tasoff, "Exponential-Growth Bias and Lifecycle Consumption,"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4, no. 3 (2016): 545–583 참조.

2. 앨버트 바틀렛의 경고

콜로라도 대학의 물리학자 앨버트 바틀렛은 이 문제를 평생의 주제로 삼았다. 그는 1969 년부터 40 년 넘게 「산술, 인구, 에너지」라는 제목의 강연을 1,700 회 이상 반복했고, 그 첫 문장은 언제나 같았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함은 지수함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Albert A. Bartlett

▶ Albert A. Bartlett, "Forgotten Fundamentals of the Energy Crisis," American Journal of Physics 46, no. 9 (1978): 876–888. 바틀렛은 201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강연을 계속했으며, 유튜브에 공개된 녹화본은 수백만 회 재생되었다.

그는 이 무능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실험을 제시했다. 병 안에 세균 한 마리가 있고 1분마다 두 배로 늘어난다. 오전 11시에 한 마리로 시작해 정오에 병이 가득 찬다. 그렇다면 병이 절반 찬 시각은 몇 시인가. 답은 11시 59분이다.

이 대답이 주는 충격이 본서의 출발점이다. 병 안의 세균이 공간 부족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마지막 1분이다. 11시 55분에 병은 3퍼센트만 찼다. 그 시점에 “곧 공간이 없어진다”고 경고하는 세균이 있다면 다른 세균들은 비웃을 것이다. 97퍼센트가 비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런데 5분 뒤 모든 것이 끝난다.

바틀렛은 여기에 하나를 더 물었다. 세균들이 마지막 순간에 병 세 개를 더 발견했다고 하자. 공간이 네 배가 된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 정확히 2분이다. 자원을 네 배로 늘려도 지수적 성장 앞에서는 2분을 벌 뿐이다.

3. 체스판의 후반부

같은 통찰이 훨씬 오래된 이야기에 담겨 있다. 체스를 발명한 사람이 왕에게 상을 청했다. 체스판 첫 칸에 쌀 한 톨, 둘째 칸에 두 톨, 셋째 칸에 네 톨 — 이렇게 예순네 칸을 채워 달라는 것이었다.

앞쪽 절반, 곧 서른두 칸까지는 쌀이 약 40억 톨이다. 큰 밭 하나 분량이다. 그런데 뒤쪽 절반에서 상황이 달라진다. 예순네 칸을 모두 채우려면 약 1,845경 톨이 필요하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생산한 쌀을 다 합쳐도 부족하다.

MIT의 에릭 브리놀프슨과 앤드루 맥아피는 이 이야기에서 “체스판의 후반부(the second half of the chessboard)”라는 개념을 가져왔다. 지수적 성장의 전반부에서는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절대량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서면 한 걸음이 이전의 모든 걸음을 합친 것보다 크다.

▶ Erik Brynjolfsson and Andrew McAfee,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New York: W. W. Norton, 2014). 이들은 이 개념을 레이 커즈와일에게서 빌려왔음을 밝히고 있다.

4. 무어의 법칙과 그 너머

이것이 비유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실이 있다. 1965 년 인텔의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는 집적회로 위의 트랜지스터 수가 약 2 년마다 두 배가 된다고 관찰했다.

▶ Gordon E. Moore, "Cramming More Components onto Integrated Circuits," *Electronics* 38, no. 8 (1965): 114–117. 무어는 처음에 1 년마다 두 배로 예측했다가 1975 년에 2 년으로 수정했다.

1971 년 인텔 4004 에는 트랜지스터가 2,300 개였다. 오늘날의 첨단 프로세서에는 수백억 개가 들어간다. 약 5 천만 배의 증가다.

그런데 AI 의 발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오픈 AI 의 2018 년 분석은 2012 년 이후 대형 AI 훈련 실행의 계산량이 약 3.4 개월마다 두 배로 늘었다고 보고했다. 2 년이 아니라 3.4 개월이다. 같은 기간에 무어의 법칙이 7 배를 만들 때 AI 계산량은 30 만 배를 만든 것이다.

▶ Dario Amodei and Danny Hernandez, "AI and Compute," OpenAI Blog (2018). 이 분석은 2012 년 AlexNet 에서 2018 년 AlphaGo Zero 까지를 다룬다. 이후 Epoch AI 의 추적에 따르면 증가율은 다소 완만해졌으나 여전히 무어의 법칙을 크게 상회한다.

5. 로켓 그래프의 착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보면 왜 우리가 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 초반부는 거의 수평이다.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위로 꺾이며 수직에 가깝게 치솟는다. 로켓 발사 궤적처럼 보이기 때문에 흔히 로켓 그래프라 부른다.

그런데 여기에 착시가 있다. 그래프의 어느 지점에서든 성장률은 동일하다. 곡선이 “꺾이는” 지점 같은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매 순간 두 배씩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꺾여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선형적 눈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아직은 괜찮다”는 판단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1 시 55 분의 세균에게 병은 97 퍼센트 비어 있었다.

6. 알파고가 보여준 것

추상적 논의를 구체적 장면으로 옮겨 보자. 2016 년 3 월 서울에서 이세돌 9 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열렸다. 대국 전 전문가들의 예측은 대체로 이세돌의 우세였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고, 직관과 형세 판단이 필요하며, 기계가 정복하려면 10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여겨졌다.

결과는 4 대 1 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제 2 국 37 수였다. 알파고는 다섯 번째 줄에 어깨짚음을 두었는데, 이것은 수백 년 축적된 기보에 없는 수였다. 해설자들은 처음에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수가 승부를 갈랐다.

그리고 이듬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알파고 제로는 인간의 기보를 전혀 학습하지 않았다. 규칙만 알려 주고 자기 자신과 두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사흘 만에 이세돌을 이긴 버전을 100 대 0 으로 이겼다.

▶ David Silver et al.,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 Nature 550 (2017): 354–359. 알파고 제로는 사흘 동안 약 490 만 판의 자가 대국을 수행했다. 인간 기사가 평생 두는 대국이 수천 판임을 생각하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인간의 지식 없이, 오히려 인간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 강해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재귀적 자기개선의 첫 번째 극적인 사례였다.

7. 그러므로 이 책의 두 전제

첫째,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것은 지능이나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 구조의 문제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는 판단과 “이미 늦었다”는 판단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뒤바뀐다.

둘째, 그럼에도 이 변화를 예측이 아니라 관찰로 다룰 수 있다. 본서는 미래를 점치지 않는다. 지금 실험실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논문이 발표되었는지, 어떤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지를 확인하고 그 위에서 신학적 판단을 세운다.

**인류는 지금 로켓의 궤적 위에 있으나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로켓이 향하는 곳에 인간 자신이 있다.

서장 3

상상의 계보 — 인류가 꿈꾼 미래는 자주 현실이 되었다

앞 장의 사고실험을 실증으로 뒷받침한다. 인류는 실제로 자기 미래를 여러 번 미리 상상했고, 그 상상은 자주 현실이 되었다. 다만 예상보다 늦게, 그리고 대개 전혀 다른 형태로.

1. 토머스 모어 — 다른 사회가 가능한가

1516 년의 「유토피아(Utopia)」는 로봇이나 AI 를 예언한 책이 아니다. 그러나 훨씬 중요한 것을 했다. 기존 사회질서를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이 전혀 다른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상상한 것이다.

▶ Thomas More, Utopia (1516). 비평판으로는 George M. Logan and Robert M. Adams, eds., Thomas More: Utopia, rev.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를 참조하라. 모어의 의도가 진지한 사회 제안이었는지 풍자였는지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며, 본서는 어느 한쪽을 단정하지 않는다.

유토피아에서는 사유재산이 크게 제한되고, 금과 화폐가 경멸되며, 모든 사람이 노동하되 하루 노동은 여섯 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시간은 학습과 삶에 쓰인다. 500 년 전의 이 상상이 오늘의 논쟁과 묘하게 만난다 — 자동화 시대의 노동시간 단축, 기본소득, 공유경제.

그러므로 모어를 AI 와 연결할 때 “그가 AI 를 예측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연결은 이것이다.

모어가 물었던 것은 “다른 사회가 가능한가”였다.

AI 문명은 이제 그 질문을 기술적으로 다시 묻고 있다.

2. 조지 오웰 — 1949 년에 무엇을 보았는가

「1984」가 출간된 1949 년의 상황을 생각하면 놀랍다. 컴퓨터는 이제 막 방 하나를 차지하는 군사·연구용 장비였고, 인터넷도 개인용 컴퓨터도 CCTV 네트워크도 없었다.

그런데 오웰은 집마다 텔레스크린(telescreen)이 있어 국가가 시민을 보고 듣는 사회를 그렸다. 그리고 감시만이 아니라 빅브라더·사상경찰·신어(Newspeak)·이중사고(doublethink)·진리부라는 개념으로 언어와 정보 자체를 통제하여 현실 인식을 지배하는 체제를 묘사했다.

▶ George Orwell, Nineteen Eighty-Four (London: Secker & Warburg, 1949).

오웰의 집필 배경과 정치적 맥락에 관하여는 Bernard Crick, George Orwell: A Life (London: Secker & Warburg, 1980); Dorian Lynskey, The Ministry of Truth: The Biography of George Orwell's 1984 (London: Picador, 2019) 참조.

오웰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나치 독일과 스탈린주의와 스페인 내전과 제 2 차 세계대전과 폭격으로 황폐해진 런던을 경험했다.

「1984」는 기술 예언서라기보다 전체주의가 현대의 조직과 미디어와 기술을 획득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치철학적 경고였다.

그런데 77 년 뒤에서 보면 흥미로운 역전이 일어났다.

오웰이 상상한 Big Brother 는 벽에 걸려 있었다.

우리가 만든 Big Brother 는 주머니 안에 들어왔다.

오웰에게는 국가가 벽에 설치한 텔레스크린이 필요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돈을 주고 산 스마트폰이 있다. 위치정보, 검색기록, 구매기록, 소셜미디어, 얼굴인식, 브라우징 행동, 광고 프로파일의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절제가 필요하다. 오늘날 민주사회의 데이터 경제가 곧바로 오웰의 전체주의 국가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오웰의 상상을 넘어섰다는 것과 정치체제가 동일하다는 것은 다른 주장이다. 이 구별이 오히려 논증을 강하게 만든다.

3. 버니바 부시 — 1945 년의 메멕스

1945 년, 개인용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버니바 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As We May Think)」에서 메멕스(Memex)를 상상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책과 기록과 서신을 저장하고 빠르게 검색하며, 정보 사이를 연상적 경로(associative trails)로 따라가는 개인용 지식장치다.

▶ Vannevar Bush, "As We May Think," The Atlantic Monthly 176, no. 1 (July 1945): 101–108. 부시는 제 2 차 세계대전 중 미국 과학연구개발국(OSRD)을 이끈 인물이다. 이 글이 하이퍼텍스트와 월드와이드웹의 지적 선구로 평가받는 과정에 관하여는 James M. Nyce and Paul Kahn, eds., From Memex to Hypertext: Vannevar Bush and the Mind's Machine (Boston: Academic Press, 1991) 참조.

후대에 이것은 하이퍼텍스트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과 위키백과의 선구적 상상으로 평가받았다. 1945 년에서 1990 년대 웹의 대중화까지 약 45~50 년이 걸렸다.

그리고 지금은 메멕스를 넘어선다. 부시가 상상한 것은 “내 지식을 저장하고 연결해 주는 기계”였다. 오늘의 AI 는 “내 지식을 읽고 연결하고 요약하고 새로운 답을 만들어 주는 기계”다.

4. 앨런 튜링 — 1950 년의 물음

1950 년 앨런 튜링은 「계산 기계와 지능(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에서 아예 이렇게 물었다 —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 당시에는 디지털 컴퓨터 자체가 극소수 존재하던 시대였다.

▶ Alan M. Turing,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Mind 59, no. 236 (1950): 433–460. 튜링은 이 물음이 너무 모호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관찰 가능한 “모방 게임(imitation game)”을 제안했다. 그는 약 50 년 후 컴퓨터가 5 분간의 대화에서 심사자를 70% 확률로 속일 수 있으리라 전망했다.

그리고 2022 년 챗 GPT 이후 일반 대중이 매일 자연어로 기계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1950 년에서 2022 년까지 약 72 년이다. 예측의 세부 조건이 오늘의 대규모 언어모델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방향은 놀랍다.

5. 앨빈 토플러 — 1980 년에 본 것

「제 3 의 물결」이 출간된 1980 년은 IBM PC 출시 1 년 전이고 월드와이드웹은 10 년 이상 뒤의 일이었다. 그런 시대에 토플러는 역사를 세 파도로 나누었다 — 농업 문명, 산업 문명, 정보 문명.

- ▶ Alvin Toffler, The Third Wave (New York: William Morrow, 1980). 토플러의 예측 정확도에 대한 후대 평가는 엇갈리나, electronic cottage 와 prosumer 와 demassification 세 개념은 널리 인정받는다.

특히 세 개념이 놀랍다. 전자 오두막(electronic cottage) — 통신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매일 출근하지 않고 집이 다시 노동과 교육의 중심이 되리라는 것. 프로슈머(prosumer) —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리라는 것. 탈대량화(demassification) — 대량생산·대량교육·대중언론이 개인화되고 분산되리라는 것.

2020 년대에 이것은 너무 평범하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와 온라인 교육과 원격의료, 유튜브와 틱톡의 창작자 경제, 그리고 개인화된 피드. 그리고 AI 가 하는 일이 바로 그 극단이다 — 대중매체에서 개인화 피드로, 대량교육에서 AI 튜터로, 대량생산에서 개인화 생산으로.

그러므로 토플러 이후에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제 3 의 물결이 정보의 디지털화였다면,

AI 문명은 정보가 지능을 얻는 제 4 의 물결인가?

6. 상상과 실현 사이의 시차

이 계보를 시차로 정리하면 규칙성이 보인다.

메멕스(1945) → 웹(1990 년대) $\approx$ 45~50 년. 빅브라더(1949) → 스마트폰·CCTV·데이터(오늘) $\approx$ 70 년. 생각하는 기계(1950) → 챗 GPT(2022) $\approx$ 72 년. 전자 오두막(1980) → 원격근무(2020) $\approx$ 40 년. 특이점(1993) → 생성형 AI(2023) $\approx$ 30 년.

그리고 하나의 명제가 나온다.

그들은 예언자가 아니었다. 다만 상상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을 뿐이다.

서장 4

특이점은 언제 오는가 — 시나리오 플래닝 원도

앞 장이 과거의 상상을 다루었다면 본 장은 미래의 상상을 다룬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엄격한 절제가 필요하다.

1. 세 개의 어원

“특이점(singularity)”이라는 낱말은 세 학문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였고, 그 셋이 겹치며 오늘의 의미가 만들어졌다.

수학의 특이점. 함수가 정의되지 않거나 미분 불가능해지는 점이다. $y = 1/x$ 에서 x 가 0 에 가까워지면 y 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틴어 singularis 는 “하나뿐인, 특이한”을 뜻하며, 핵심은 그 지점에서 기존의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리학의 특이점. 일반상대성이론에서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이다. 로저 펜로즈와 스티븐 호킹은 1965~1970 년의 특이점 정리를 통해 일반상대성이론이 참이라면 특이점의 존재가 불가피함을 증명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사건의 지평선(event horizon)이다. 그 경계를 넘으면 어떤 정보도 밖으로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외부의 관찰자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원리적으로 알 수 없다.

▶ Roger Penrose, "Gravitational Collapse and Space-Time Singularities," Physical Review Letters 14, no. 3 (1965): 57–59; Stephen W. Hawking and Roger Penrose, "The Singularities of Gravitational Collapse and Cosmology,"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A 314 (1970): 529–548. 펜로즈는 이 업적으로 2020 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았다.

기술의 특이점. 이 개념을 기술에 처음 적용한 사람은 존 폰 노이만이다. 1950 년대에 그는 스타니스와프 울람과의 대화에서 “기술의 가속하는 진보가 인류 역사에서 어떤 본질적 특이점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 너머에서는 우리가 아는 인간의 일이 계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 ▶ Stanislaw Ulam, "Tribute to John von Neumann," Bulletin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64, no. 3, part 2 (1958): 1-49. 이 회고가 기술 특이점 개념의 최초 기록으로 널리 인용된다.

2. 버너 빈지 — 1993 년의 30 년

이 개념을 대중화한 사람은 수학자이자 SF 작가인 버너 빈지다. 1993 년 NASA 심포지엄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 “30 년 안에 우리는 초인간 지능을 창조할 기술적 수단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직후 인간의 시대는 끝날 것이다.”

- ▶ Vernor Vinge, "The Coming Technological Singularity: How to Survive in the Post-Human Era," in Vision-21: Interdisciplinary Science and Engineering in the Era of Cyberspace, NASA Conference Publication 10129 (1993), 11-22. 빈지는 특이점 이후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개미가 인간의 경제를 예측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1993 년에 30 년을 더하면 2023 년이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2023 년에 생성형 AI 의 폭발을 경험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야 한다. 2023 년에 초인간 일반지능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빈지가 날짜를 맞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다만 1993 년에 “30 년 뒤 인간보다 강력한 기계지능이 문명의 중심 문제가 될 것”이라 본 것 자체는 놀랍다.

3. 레이 커즈와일 — 2029 와 2045

가장 구체적인 예측은 레이 커즈와일의 것이다. 그는 두 날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 2029 년 인간 수준의 AI, 2045 년 특이점. 2024 년의 「특이점이 더 가까이 왔다」에서도 이 날짜를 그대로 유지했다.

- ▶ Ray Kurzweil,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New York: Viking, 2005); idem, The Singularity Is Nearer: When We Merge with AI (New York: Viking, 2024). 그는 2029 년 예측을 1999 년 「영적 기계의 시대(The Age of Spiritual Machines)」에서 처음 제시했다.

그의 모델은 단순히 “AI 가 똑똑해진다”가 아니다. AI 와 생명공학과 나노기술과 뇌-컴퓨터 결합이 융합하면서 인간의 능력 자체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한 수익 가속의 법칙(Law of Accelerating Returns)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다. 기술의 진보는 지수적이며, 진보의 속도 자체도 가속된다.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첫째, 예측 정확도 논쟁이다. 그는 자기 예측의 86%가 적중했다고 주장하나 독립적 평가는 훨씬 낮게 본다. 무엇을 적중으로 볼지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곡선 맞추기의 문제다. 과거 데이터에 지수곡선을 맞추는 것과 그 곡선이 미래에도 유지된다는 것은 다르다. 셋째, 지능의 환원이다. 계산 능력의 증가가 곧 지능의 증가라는 전제가 검증되지 않았다.

▶ Paul G. Allen and Mark Greaves, "The Singularity Isn't Near," MIT Technology Review, October 12, 2011. 이들은 인간 인지를 이해할수록 문제가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진다는 의미에서 "복잡성 브레이크(complexity brake)"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4. 연구자들은 무엇이러 말하는가

개인의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공동체의 분포다. 2,778 명의 AI 연구자를 조사한 대규모 연구는 “인간보다 모든 과제를 더 잘 수행하는 기계(HLMI)”에 대해 2027 년까지 10%, 2047 년까지 50%의 확률을 부여했다.

▶ Katja Grace et al., "Thousands of AI Authors on the Future of AI," arXiv:2401.02843 (2024). AI Impacts 가 수행한 이 조사는 2023 년 주요 AI 학회 발표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률과 표본 편향의 한계를 저자들 스스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예측 자체가 빠르게 앞당겨져 왔다는 사실이다. 관련 조사들을 종합하면 50% 시점이 2061 년에서 2050 년으로, 다시 2047 년으로 이동했다. 반면 최전선 AI 기업의 일부 지도자들은 2026~2030 이라는 훨씬 짧은 시간표를 제시해 왔으나 이는 학계의 합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해충돌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5. AGI ≠ ASI ≠ Singularity

여기서 개념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세 낱말은 자주 혼용되지만 다른 것을 가리킨다.

AGI(범용인공지능)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 과제 전반을 수행하는 지능이다. 그런데 AGI에는 합의된 정의도 판정 기준도 없다. 어떤 이는 튜링 테스트를, 어떤 이는 “대부분의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인간보다 잘하는 것”을, 어떤 이는 새 영역을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AGI가 언제 오는가”는 정의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진다.

ASI(초지능)는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이다. 닉 보스트롬은 이를 “과학적 창의성, 일반적 지혜, 사회적 기술을 포함해 관심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크게 초월하는 지성”이라 정의했다.

▶ Nick Bostrom,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22. 보스트롬은 초지능에 이르는 경로를 인공지능·전뇌 에뮬레이션·생물학적 인지 향상·뇌-기계 인터페이스·네트워크 조직의 다섯으로 구별한다.

특이점은 그보다 더 나아간다. 단순히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날”이 아니라 인간보다 강력한 지능이 기술 발전 자체를 가속하여 이후의 사회 변화를 인간이 이전 방식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변곡점이다.

AGI → ASI → Recursive Improvement →
SINGULARITY

6. 시나리오 플래닝 윈도

그러므로 본서는 연도를 예언하지 않는다. 대신 네 개의 확실성 구간을 제시한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 플래닝 윈도(scenario planning window)다.

2026 — 관찰됨(OBSERVED). 에이전틱·멀티모달·초기 피지컬 AI가 실제로 작동한다. 2030 ± 몇 년 — 논쟁 중(DEBATED). AGI 후보 구간. 연구자들의 예측이 가장 밀집한 지대다. 2030년대-2040년대 — 개연적(PLAUSIBLE). 초인간 시스템과 AI 가속 과학. 2040-2060 — 사변적(SPECULATIVE). 특이점 지평선.

그리고 이 구간 설정의 목적은 미래를 맞히는 데 있지 않다. 언제 오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AGI가 언제 오든 AI 문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교회의 질문은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7. 신학적 절제

마지막으로 신학적 경계를 세운다. 본서는 특이점을 적그리스도나 요한계시록의 특정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지나친 단정이며, 교회가 반복해 온 오류다.

오히려 특이점은 성경적 종말론의 성취가 아니라 기술문명이 만들어 낸 하나의 세속적 종말론으로 읽을 수 있다. 두 서사를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하다.

**기술적 종말론 — AI → AGI → ASI → Singularity → Posthuman
→ Digital Immortality**

**성경적 종말론 — Creation → Fall → Incarnation → Cross →
Resurrection → Parousia → New Creation**

둘 다 현재의 결핍을 진단하고, 그 극복을 약속하며, 최종적 완성을 그린다. 다만 극복의 주체가 다르다. 하나는 인간의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은유가 여기서 다시 유용하다. 물리학에서 그것은 “볼 수 없다”는 겸손이다. 그런데 기술 특이점 담론에서는 그 겸손이 자주 사라진다.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이후를

상세히 그린다. 본서는 그 겸손을 지키려 한다. 그리고 성경도 같은 겸손을 요구한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행 1:7)

제 1 부

지성이 된 문명을 분별하다

Discerning a Civilization of Intelligence

제 1 장

문명이란 무엇인가 — AI 를 문명이라 부르는 근거

본서를 비롯한 이 시리즈 전체는 하나의 명명(命名)에서 출발한다. 인공지능을 “기술”이나 “시대”가 아니라 **문명(civilization)**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명명은 수사적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검증되어야 할 학문적 주장이며, 만약 그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모든 논의가 근거를 잃는다. 그러므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장에서 그 근거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 검증에는 두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문명이란 무엇인가**. 문명학과 역사학이 이 낱말을 어떻게 정의해 왔는가. 둘째, **인공지능은 그 정의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가**. 충족한다면 어느 정도로 충족하는가.

1. 어원이 말해 주는 것

영어 civilization 은 라틴어에서 왔다. **civis** 는 시민이고, **civitas** 는 도시국가 또는 시민공동체이며, **civilis** 는 “시민다운, 공적인”을 뜻한다. 이 계보가 알려 주는 첫 번째 사실은 결정적이다. **문명은 본래 기술의 목록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질서와 방식을 가리키는 낱말이었다**.

낱말 자체는 18 세기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서 오늘날의 의미를 얻었다. 미라보 후작이 1750 년대에 civilisation 을 사용한 것이 이른 용례로 꼽히며, 애덤 퍼거슨은 1767 년 「시민사회의 역사에 관한 시론」에서 이 개념을 사회 발전의 단계로 다루었다.⁴ 여기서 주의할

⁴Adam Ferguson, An 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 (Edinburgh, 1767). 계몽주의 문명 개념의 형성사에 관하여는 Émile Benveniste, “Civilisation: Contribution à l’histoire du mot,” in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점이 있다. 계몽주의는 문명을 야만(barbarism)의 반대편에 놓았고, 이 이분법은 훗날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오용되었다. 그러므로 본서가 “AI 문명”이라 말할 때 그것은 우열의 선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작동 방식이 바뀌었다는 구조적 진술이다.

2. 동양의 文明 — 빛으로서의 문명

동양에서 사용하는 문명(文明)이라는 낱말은 전혀 다른 계보를 갖는다. 그 출처는 「주역」이며, 건괘 구이(九二)의 문언전에 “견룡재전 천하문명(見龍在田 天下文明)”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용이 밭에 나타나니 천하가 문명하다는 뜻이다.⁵

문(文)은 문화와 질서, 교양과 예절을 뜻하고 명(明)은 밝음과 빛과 깨달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동양적 의미의 문명은 “문화의 빛이 세상을 밝히는 상태”다. 서양이 도시와 제도를 중심으로 문명을 이해했다면 동양은 문화와 인간의 품격과 사회의 조화를 중심으로 이해한 것이다.

두 계보를 함께 놓으면 문명의 두 얼굴이 드러난다. 문명은 구조이면서 동시에 지향이다. 도시와 법과 경제라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지만, 그 구조가 어떤 빛을 향하는가가 함께 물어져야 한다. 이 이중성이 본서의 논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가 문명의 구조적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과, 그 문명이 어떤 빛을 향하는가는 별개의 물음이기 때문이다.

3. 문명론의 계보 — 여섯 학자

20세기 문명론은 몇 개의 큰 봉우리를 남겼다. 각각의 정의가 AI를 판단하는 서로 다른 잣대를 제공한다.

Gallimard, 1966) 참조. 다만 이 시기의 “야만 대 문명” 이분법이 이후 식민주의 담론에 오용되었다는 비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⁵ 『周易』 乾卦 九二 文言傳. 이 구절의 해석에는 여러 전통이 있으나, 문(文)과 명(明)의 결합이 “질서와 교양의 빛이 온 세상에 미침”을 뜻한다는 데는 대체로 일치한다. 근대 일본이 civilization의 번역어로 이 고전 용어를 채택하면서 동아시아 전체가 이 낱말을 공유하게 되었다.

오스발트 슈펜글러는 「서구의 몰락」에서 문명을 유기체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게 문화(Kultur)는 살아 있는 창조의 단계이고 문명(Zivilisation)은 그 굳어진 말이다.⁶ 슈펜글러의 도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그가 던진 물음은 유효하다 — **한 문명이 창조의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형식만 남은 단계에 있는가.**

아널드 토인비는 열두 권의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을 “**도전(challenge)에 대한 창조적 응답(response)**”으로 정의했다. 환경적·역사적 위기에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가 응답할 때 문명이 형성되고, 응답에 실패하거나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로 전락할 때 문명이 쇠퇴한다는 것이다.⁷ 이 정의는 AI에 직접 적용된다. **인공지능은 인류가 마주한 정보 폭발과 복잡성의 도전에 대한 응답이며,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낳는다.**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을 “**인류가 공유하는 가장 큰 문화 공동체**”로 정의했다. 언어와 종교와 역사와 전통과 제도와 자기 정체성을 공유하는 가장 넓은 단위라는 것이다.⁸

페르낭 브로델은 문명을 지리와 장기 지속(longue durée)의 관점에서 보았다. 문명은 사건이나 세대의 시간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거의 움직이지 않는 구조의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⁹ 브로델의

⁶Oswald Spengler,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2 vols. (München: C. H. Beck, 1918–1922). 슈펜글러의 순환론적 결정론은 널리 비판받았으나, 문명을 하나의 통합된 형태학적 단위로 본 그의 시도는 이후 문명 비교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⁷Arnold J. Toynbee, *A Study of History*, 12 vol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4–1961). 토인비의 도전-응답 도식과 창조적 소수 개념은 널리 인용되나, 그의 방대한 문명 분류와 종교적 결론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다.

⁸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헌팅턴의 “문명 충돌” 명제는 많은 반론을 받았으나, 문명을 정치적 단위가 아니라 가장 넓은 문화적 정체성의 단위로 규정한 그의 정의 자체는 여전히 유용하다.

⁹Fernand Braudel, *Grammaire des civilisations* (Paris: Arthaud-Flammarion, 1987); 영역 *A History of Civilizations*, trans. Richard Mayne (New York: Penguin,

관점은 본서에 중요한 경고를 준다. **문명의 전환은 대개 당대인에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있으므로 오히려 판단이 어렵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문명화 과정」에서 문명을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행동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식탁 예절과 수치심의 기준과 충동 억제의 방식이 수백 년에 걸쳐 바뀌는 과정 자체가 문명이라는 것이다.¹⁰ 이 관점이 본서의 후반부와 직결된다. **문명은 제도만이 아니라 사람을 형성한다.**

윌리엄 맥닐은 문명사를 접촉과 교류의 역사로 읽었다. 문명은 고립된 단위가 아니라 서로 만나고 빌리고 충돌하면서 변화한다는 것이다.¹¹ 그리고 여기에 매체 이론의 계보를 더해야 한다. 해럴드 이니스는 문명의 성격이 그 사회가 사용하는 매체의 편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고,¹² 루이스 멍퍼드는 기술을 문명 전체의 형태와 연결하여 읽었다.¹³ 이 두 계보가 “AI 는 매체가 아니라 문명”이라는 본서의 주장을 방법론적으로 뒷받침한다.

4. 문명의 열 가지 조건

1993). 브로델의 삼중 시간론 — 사건사, 국면사, 구조사 — 은 문명 연구의 방법론적 표준이 되었다.

¹⁰Norbert Elias, *Über den Prozeß der Zivilisation*, 2 vols. (Basel: Haus zum Falken, 1939); 영역 The Civilizing Process, trans. Edmund Jephcott (Oxford: Blackwell, 2000). 엘리아스는 문명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외적 제도가 아니라 내면화된 자기 통제로 이해했다.

¹¹William H. McNeill, *The Rise of the West: A History of the Human Commu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맥닐의 접근은 개별 문명을 독립된 유기체로 본 슈펜글러·토인비의 관점을 교정했다.

¹²Harold A. Innis, *Empire and Communic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50); *The Bias of Communic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51). 이니스는 매체를 시간 편향적인 것(돌·접토)과 공간 편향적인 것(파피루스·종이)으로 구별하고, 그 편향이 제국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논증했다.

¹³Lewis Mumford, *Technics and Civilization* (New York: Harcourt, Brace, 1934); *The Myth of the Machine*, 2 vol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7–1970). 멍퍼드는 기술을 도구의 목록이 아니라 사회 조직의 형태로 이해했다.

학자마다 목록에 차이가 있으나, 역사학과 고고학이 하나의 사회를 문명이라 부를 때 대체로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 흔히 열 가지로 정리된다.

① 언어 ② 문자 ③ 도시 ④ 법 ⑤ 경제 ⑥ 종교 ⑦ 교육 ⑧ 기술 ⑨ 문화 ⑩ 세계관이다. 그리고 이 열 가지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통합적 구조를 이룬다. 그러므로 문명은 건축물이나 유적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가 작동하는 종합적 생태계다.

현대 문명학은 여기에 하나의 은유를 더한다. 문명은 인간 사회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다. 운영체제가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통합하고 제어하듯, 문명은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과학기술과 종교와 문화와 법과 윤리와 언어와 의사소통 체계를 연결하고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문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기 있다 — 문명은 인간의 삶의 방식 자체를 결정한다. 무엇을 배우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어떻게 소통하는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는가가 문명에 의해 규정된다.

5. 인공지능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가

이제 본서의 핵심 주장을 검증한다. 인공지능은 열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가. 본서의 대답은 **충족할 뿐 아니라 넘친다**는 것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① 언어. 대규모 언어모델은 인간 언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언어를 생성하고 번역하고 요약하고 변형한다. 나아가 프롬프트라는 새로운 언어 관습이 형성되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것과 자연어로 대화하는 사회가 등장했다.

② 문자. 문자는 기억의 외부화 장치였다. AI는 기억만이 아니라 요약과 판단과 생성까지 외부화한다. 그리고 텍스트의 생산 주체가 인간만이 아니게 되었다. 문자 문명 5천 년 만에 처음으로 “쓰는 자”가 인간이 아닐 수 있게 되었다.

③ **도시.** 문명의 도시에 해당하는 것이 데이터센터다. 그것은 은유가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센터의 세계 전력소비가 2030 년 약 945 테라와트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일본 한 나라의 연간 소비량에 해당한다. 스탠퍼드 「AI 인덱스 2026」은 미국이 5,427 개의 AI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중국이 449 개를 보유한다고 보고한다. **전력과 냉각과 부지와 노동이 집중되는 물리적 거점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고대 도시가 그러했듯 그것은 자원을 빨아들이고 주변을 재편한다.

④ **법.** 유럽연합은 2024 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법을 제정했고, 정부의 사회적 점수화와 공공장소의 실시간 생체인식을 금지 목록에 올렸다. 미국과 중국과 영국이 각각의 규제 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AI 안전연구소들의 국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새로운 법역(法域)이 태어나고 있다.**

⑤ **경제.** AI 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산업의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반도체와 전력과 데이터센터와 호텔과 플랫폼이 하나의 밸류체인을 이루고, 국가의 산업정책이 그 위에서 재편된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 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약 22%에 구조적 변화를 전망한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 자체가 다시 쓰이고 있다.**

⑥ **종교.** 이것이 가장 논쟁적인 항목이다. AI 자체가 종교는 아니다. 그러나 궁극적 관심의 언어가 이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이점과 초지능과 디지털 불멸에 관한 담론에는 구원론과 종말론의 문법이 뚜렷하다. **그리고 본서 제 4 장이 논하듯, 전지·편재·전능·불멸이라는 신적 속성이 기술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⑦ **교육.** OECD 는 2025 년 회원국에서 16 세 이상 학생의 약 75%가 생성형 AI 를 사용했다고 보고했고, 유네스코는 고등교육 종사자의 92%가 AI 도구를 사용한다고 집계했다. OECD 와 EU 는 2026 년 초중등교육을 위한 AI 문해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배움의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으며 제도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

⑧ 기술. 이것은 자명하다. 다만 주목할 것은 AI가 다른 기술을 가속하는 기술, 곧 **메타 기술**이라는 점이다. 단백질 구조 예측과 재료 발견과 신약 개발과 수학적 증명에서 AI가 연구 자체를 가속한다. 증기기관은 다른 기술을 발명하지 못했으나 AI는 발명의 속도를 바꾼다.

⑨ 문화. 음악과 미술과 영상과 문학의 생산 방식이 바뀌었다. 저작권 제도가 흔들리고, 무엇이 창작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재협상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의 소비 방식도 알고리즘적 추천에 의해 재편되었다.**

⑩ 세계관. 마지막 항목이 가장 깊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지능이란 무엇인가, 창조란 무엇인가,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은 극복 가능한가 — 이 물음들이 다시 열렸다. **세계관의 재협상이야말로 문명 전환의 가장 확실한 표지다.**

열 가지를 모두 검토한 결과는 분명하다. **인공지능은 문명의 조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이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AI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항목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6. 다섯 문명 단계

이 시리즈는 인류 문명사를 다섯 단계로 읽어 왔다. 각 단계는 인간 능력의 특정 차원이 외부화되고 확장된 시점으로 규정된다.

제 1 문명 길(Road) — 도로와 항해 : 이동의 확장

제 2 문명 문자(Writing) — 문자와 종이 : 기억의 확장

제 3 문명 인쇄(Print) — 활자와 인쇄술 : 복제의 확장

제 4 문명 네트워크(Network) — 인터넷 : 연결의 확장

제 5 문명 지성(Intelligence) — AI : 사고의 확장

이 도식이 유용한 이유는 각 단계가 무엇을 확장했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섯 번째 단계의 특이성이 드러난다. 앞의 네 문명에서 확장된 것은 인간 능력의 **결과**였다. 더 멀리 가고, 더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이 복제하고, 더 넓게 연결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문명에서 확장되는 것은 **생각하는 행위 자체다.**

산업혁명이 인간의 근육을 확장했고 정보혁명이 인간의 연결을 확장했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활동 자체를 확장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차원을 넘어 **문명의 전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7. AI Civilization 의 정의

이상의 검토 위에서 본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I 문명(AI Civilization)이란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간의 지식과 노동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종교와 의사소통,
그리고 세계관까지 재구성하는 새로운 문명 단계다.**

이 정의의 핵심은 “재구성”이라는 낱말에 있다. AI 가 각 영역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을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사용이라면 도구이고, 재구성이라면 문명이다. 그러므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된다.

AI는 새로운 앱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 운영체제다.

8. 세 가지 반론과 응답

이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학문적으로 정직하다.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반론 — “아직 이르다.” 문명 전환은 수백 년의 시간 척도로 판단되는 것이며, 몇 년의 변화를 두고 문명이라 부르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브로델의 장기 지속 관점이 이 반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한 본서의 응답은 두 가지다. 첫째, 문명 전환의 **완성과 개시**를 구별해야 한다. 인쇄 문명이 완성되는 데 수백 년이 걸렸으나 구텐베르크의 시점을 그 개시로 부르는 데 이견이 없다. 둘째, 오히려 브로델의 통찰이 본서의 편이다. **문명의 전환은 대개 당대인에게 보이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신중하게 명명해야 하는 이유다.**

둘째 반론 — “AI 는 매체이지 문명이 아니다.” 인터넷도 매체였고 인쇄술도 매체였으니 AI 역시 매체 계보의 한 항목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 반론은 진지하며 부분적으로 옳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앞의 매체들은 내용을 운반했으나 내용을 생성하지 않았다. 인쇄술은 책을 복제했으나 쓰지 않았고, 인터넷은 정보를 전달했으나 만들지 않았다. AI는 운반하고 생성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매클루언의 명제 “매체가 곧 메시지”를 빌리면, 메시지를 생성하는 매체는 더 이상 매체가 아니다.

셋째 반론 — “문명 개념 자체가 서구중심적이다.” 계몽주의의 문명 개념이 야만과의 대비 위에 세워졌고 식민주의를 정당화했으므로, 그 낱말로 새 시대를 명명하는 것은 그 유산을 반복한다는 비판이다.

이 비판은 정당하며 본서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명시한다. 첫째, 본서는 문명을 우월의 척도가 아니라 **사회의 작동 방식**을 가리키는 서술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둘째, 본서는 동양의 文明 전통을 함께 인용함으로써 이 개념이 단일한 계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님을 밝힌다. 그리고 셋째, 오히려 본서 제 12 장이 논하듯 **AI 문명이 새로운 문화적 우월주의와 디지털 식민주의를 낳을 위험을 정면으로 다룬다**. 문명이라는 낱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위험을 문명의 층위에서 논하기 위해서다.

9. 그러므로 이 시리즈의 첫 명제

이 장의 결론은 시리즈 전체의 첫 명제이자 본서의 전제다.

문명은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배우고 일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이해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AI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이다.

그리고 이 명제가 참이라면 교회의 물음도 달라져야 한다. 기술에 대한 물음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이지만, **문명에 대한 물음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이기 때문이다**. 인쇄술을 만난 교회가 물어야 했던

것은 활자 사용법이 아니라 만인이 성경을 읽는 사회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였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본서의 나머지는 이 물음에 바쳐진다. AI 문명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교회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며, 세계 기독교의 선교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제 2 장

두 극단을 거부한다 — 분별이라는 좁은 길

AI 를 대하는 기독교권의 태도는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뉜다. 두 갈래는 널리 퍼져 있고 한 갈래는 드물다.

1. 세 가지 잘못된 읽기

첫째는 **기술 낙관주의**다. “기술이 결국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이 태도는 인간의 죄 문제까지 기술이 풀 수 있다고 은연중에 전제하며, 교회가 세상의 낙관을 그대로 복창하게 만든다. 그 귀결은 분명하다 — 복음이 필요 없어진다.

둘째는 **종말 공포**다. 새 기술이 나올 때마다 종말의 징조로 지목하는 태도다. 교회는 이 실패를 반복해 왔다. 인쇄술, 철도, 전기, 주민등록번호와 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 바코드, 무선인식 칩, 인터넷이 차례로 “짐승의 표”로 지목되었고 매번 틀렸다.¹⁴ 그 귀결도 분명하다 — 교회가 신뢰를 잃는다.

셋째는 **무관심**이다.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며 기술은 세상 일이라 여기고 분별을 포기하는 태도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가장 흔하다. 그러나 **분별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우리를 형성한다**. 그 귀결은 시대를 놓치는 것이다.

세 방식의 공통점을 보라. 모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다. 낙관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공포는 생각할 여유가 없으며, 무관심은

¹⁴ 20 세기 후반 복미 복음주의권에서 바코드와 사회보장번호를 계 13:16-18 과 연결하는 대중적 주장이 널리 유포되었으나, 신약학계와 책임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를 본문의 역사적·문학적 맥락을 무시한 해석으로 비판해 왔다. 종말 연대 설정의 실패 사례에 관하여는 Richard Kyle, *The Last Days Are Here Again: A History of the End Time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참조.

생각할 의지가 없다. 분별은 셋 중 어느 것보다 어렵고, 그래서 셋 중 어느 것보다 드물다.

2. 성경적 시대 분별의 문법

그렇다면 분별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하여 두 개의 동사를 서로 다른 문법으로 사용한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 16:3) — 명령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행 1:7)
— 금지

시대를 분별하는 일과 때를 계산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명령이고 후자는 금지다. 그런데 교회가 반복해서 실패한 지점이 정확히 여기다. 분별해야 할 때 계산했고, 계산이 틀리자 분별마저 포기했다. 그러므로 본서는 어떤 연도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방향과 자세를 제시한다.

3. 교회가 기술을 만난 다섯 순간

역사에서 배울 것이 있다. 교회는 새 매체를 거부한 적이 거의 없다. 인쇄술은 성경을 모든 이의 손에 쥐여 주었고 종교개혁의 조건이 되었다. 라디오는 설교를 국경 너머로 보냈고 선교 방송의 시대를 열었다. 텔레비전은 예배를 안방으로 가져왔으나 상업화의 위험을 함께 가져왔다. 인터넷은 정보와 자료를 민주화했으나 이단과 거짓의 확산도 함께 가져왔다.

그러나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수용의 사실만이 아니다. **교회는 매번 늦었고, 매번 먼저 두려워했으며, 매번 나중에야 분별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상은 이미 그 기술의 의미를 결정해 버렸다. 인쇄술과 종교개혁의 관계가 예외적으로 빠른 사례였다면, 나머지는 대체로 지각(遲刻)의 역사였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순간 앞에서 물어야 한다. **이번에는 먼저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본서의 실질적 물음이다.

제 3 장

AI 는 도구인가, 환경인가, 권세인가

AI 에 관한 신학적 판단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대상 자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AI 는 도구인가, 동반자인가, 지능인가, 권력인가, 인프라인가, 잠재적 행위자인가. 정직한 답은 이것이다 — **맥락에 따라 이 모두다**. 교실에서는 도구이고, 외로운 노인에게는 동반자로 경험되며, 채용 심사에서는 권력이고, 국가 인프라에서는 환경이다. 그러므로 “AI 는 X 다”라는 단일 명제는 모두 부분적으로만 참이다.

1. AI 는 신이 아니다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신학적 경계선이다. AI 는 전지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으며,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창조주가 아니며, 도덕적 궁극자가 아니다. 이것을 세 개의 구별로 압축할 수 있다.

Computation ≠ Omniscience Prediction ≠ Providence Generation ≠ Creation
ex nihilo

계산은 전지가 아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관찰된 것의 총합일 뿐이며, 하나님의 아심은 관찰이 아니라 창조자의 앎이다. **예측은 섭리가 아니다**. 예측은 과거의 패턴에서 미래를 추정하지만, 섭리는 역사를 목적으로 이끄는 인격적 행위다. 그리고 생성은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다. 생성형 AI 는 학습한 것을 새롭게 조합하며,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재배열이다. **이 구별이 무너지면 신학이 아니라 기술 종교가 된다**.

2. 그러나 단순한 망치도 아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흔히 들리는 명제는 “AI 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이다. 이 말에는 진실이 있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망치를 생각해 보라. 망치는 사용자를 분석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으며, 설득하지 않고, 인간에게 맞추어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AI 는 이 모두를**

한다. 사용자를 분석하고, 추천하고, 설득하며, 결정에 영향을 주고, 다른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점점 더 자율적(agentive)이 된다.

여기에 실증을 하나 붙인다. 「국제 AI 안전보고서 2026」은 범용 AI 위험 관리의 어려움을 논하면서 “평가 격차(evaluation gap)”를 지적한다. 배포 전 시험에서의 성능이 실제 세계의 유용성이나 위험을 신뢰할 만하게 예측하지 못하며, 모델 내부의 작동은 여전히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발자는 중요한 정보를 비공개로 둘 유인을 갖는다.¹⁵ 만든 사람도 그 내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도구를 “단순한 도구”라 부를 수 있는가.

AI is a tool, but not merely a passive tool.

3. 기술은 인간을 형성한다

이 지점에서 20 세기 기술철학의 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크 엘뤼에게 기술(la technique)은 개별 기계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회 전체의 체계였다.¹⁶ 효율이 최고 가치가 되면 인간의 제도와 생활방식이 그 체계에 맞추어 재편된다는 것이 그의 경고였다.

마셜 매클루언은 “매체가 곧 메시지”라는 명제로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보다 매체 자체가 인간의 지각과 관계와 사회의 규모와 속도를 바꾼다는 것을 보였다.¹⁷ 닐 포스트먼은 여기에 생태적 관점을 더했다.

¹⁵Yoshua Bengio et al.,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이 보고서는 기술적 난제(예측 불가능한 창발, 내부 작동의 불투명성, 평가 격차)와 제도적 난제(정보 비대칭, 속도 압력, 거버넌스 역량 부족)를 함께 지적한다. 2025 년 한 해에 12 개 기업이 프린티어 AI 안전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거나 갱신했으나 통일된 접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¹⁶Jacques Ellul, The Technological Society, trans. John Wilkinson (New York: Alfred A. Knopf, 1964; 프랑스어 원저 1954); idem, The Meaning of the City (Grand Rapids: Eerdmans, 1970). 엘뤼의 기술 결정론적 경향에 대해서는 비판도 존재하므로, 본서는 그의 분석을 진단의 도구로 사용하되 비판적 결론까지 그대로 채택하지는 않는다.

¹⁷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McGraw-Hill, 1964).

기술 변화는 더하기가 아니라 생태적이라는 것이다 — 애벌레 한 마리를 더한 것이 아니라 나비 전체가 바뀐다.¹⁸

세 사람을 합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온다. 기술은 인간의 습관과 시간과 주의와 관계와 언어와 제도와 욕망까지 재구성한다. 그러므로 질문은 “AI로 무엇을 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AI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가”**여야 한다.

4. 성경의 기술관은 단순하지 않다

성경에서 기술은 언제나 악한가. 그렇지 않다. 농업과 건축과 배와 성막과 성전과 문자와 도로와 악기는 모두 인간 문명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다. 브살렐의 손재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명된다(출 31:3). 그렇다면 기술은 언제나 선한가. 그것도 아니다. 바벨탑과 병거와 무기와 제국의 건축과 우상 제작에도 기술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질문은 기술 자체보다 기술이 누구를 섬기며 무엇을 지향하는가이다. 같은 청동이 성막의 기구가 되기도 하고 우상이 되기도 했다. 이것이 본서가 취하는 신학적 범주 판단의 근거다.

5. 도구인가, 우상인가, 권세인가

세 범주를 비교해 보자. **도구론**은 옳지만 부족하다. 구조적 집중과 형성의 힘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상론**은 부분적으로 옳다. 다만 기술 자체가 우상인 것은 아니며, 그것에 궁극적 신뢰를 둘 때 우상이 된다. 우상은 나무나 금 자체가 아니라 나무와 금에 둘러진 경배였다(사 44:14-17).

¹⁸Neil Postman, *Technopoly: The Surrender of Culture to Technology* (New York: Knopf, 1992); idem, *Amusing Ourselves to Death* (New York: Viking, 1985). 포스트먼의 “기술 변화는 더하기가 아니라 생태적이다”라는 명제는 새 기술이 기존 환경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를 바꾼다는 뜻이다.

가장 정확한 것은 권세론이다. 골로새서 1 장 16 절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모두 창조되었다고 선언한다.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것들이 실재한다는 뜻인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다. 20 세기 신학에서 헨드릭 베르크호프와 발터 웅크는 이 권세 언어를 현대 사회구조와 연결하여 해석했다.¹⁹ 권세는 창조질서 안에서 기능할 수 있으나 절대화될 수 있으며, 인간을 섬겨야 할 구조가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구조로 전도될 수 있다.

그러므로 권세 신학의 세 명제가 AI 에 그대로 적용된다. 권세는 ① 창조되었으므로 선택할 수 있고, ② 타락할 수 있으므로 분별해야 하며, ③ 구속되어야 하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AI 를 악마화하지도 신격화하지도 않는다. 분별하고, 제한하고, 선용한다.

¹⁹Hendrik Berkhof, Christ and the Powers, trans. John Howard Yoder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62); Walter Wink, Naming the Power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Engaging the Power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웅크의 해석을 바울 자신의 개념과 곧바로 동일시하기보다 현대의 구성적 신학 해석으로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제 4 장

바벨의 귀환 — 전지·편재·전능·불멸의 욕망

성경에서 기술과 권세와 인간의 욕망이 결합하는 가장 원형적인 장면은 창세기 11 장의 바벨이다. 이 본문을 현대 기술에 대한 직접 예언처럼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구조로 읽으면 놀랍도록 현대적이다.

1. 바벨의 세 요소

바벨의 사람들에게는 **기술**이 있었다. 그들은 벽돌을 굽는 법을 알았다. **집중**도 있었다.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중심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절대화**가 있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창 11:4).

본문이 문제 삼는 것은 벽돌도 아니고 집중 자체도 아니다. 그 목적이다. 그러므로 바벨은 기술혐오의 본문이 아니라 **“집중된 인간 능력”의 신화**이다. 인간의 능력이 커지는 것이 곧 죄는 아니다. 문제는 그 능력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집중되는가에 있다.

이 관점에서 AI 시대에 물어야 할 질문도 분명해진다. 데이터센터가 죄인가. 그렇지 않다. 거대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반역인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물음은 남는다 — 누가 소유하는가,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무엇을 최적화하는가, 누가 배제되는가, 그리고 인간은 그 기술을 통해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

Can humanity build its way beyond human limits?

2. 네 개의 새로운 상상

여기서 정확한 표현이 중요하다. AI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 아니다. **AI를 통해 인간은 오래된 우상을 새롭게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놀랍게도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탐하는 형태를 띤다.

전지(Omniscience) — 모든 것을 알고 싶다. 데이터와 예측과 프로파일링이 그 도구다. **편재(Omnipresence)** — 모든 곳에 연결되고 싶다. 네트워크와 센서와 사물인터넷이 그 도구다. **전능(Omnipotence)** —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다. 자동화와 최적화와 알고리즘 통치가 그 도구다. **불멸(Immortality)** — 죽음을 넘어가고 싶다. 수명 연장과 마인드 업로딩과 디지털 사후가 그 도구다.

이 넷을 나란히 놓으면 그 아래에 하나의 문장이 드러난다.

AI may become the newest instrument of humanity's oldest temptation.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5). 뱀의 유혹은 “하나님을 거부하라”가 아니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였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유혹이다.

3. 그래서 문제는 AI 보다 인간이다

여기서 본서의 중요한 진단이 나온다. AI 윤리의 핵심 문제는 알고리즘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다. 같은 기술이 사용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탐욕하는 인간에게 AI 가 더해지면 더 강력한 탐욕이 된다. 통제하려는 국가에 AI 가 더해지면 더 강력한 감시가 된다. 전쟁하는 인간에게 AI 가 더해지면 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러나 사랑하는 인간에게 AI 가 더해지면 더 넓은 섬김이 되고, 치료하는 인간에게 더해지면 더 좋은 의료가 되며, 가르치는 인간에게 더해지면 더 깊은 교육이 된다.

AI amplifies both human creativity and human fallenness.

이 진단은 「국제 AI 안전보고서 2026」이 지적한 “증거 딜레마(evidence dilemma)”와도 맞물린다. 위험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대응이 늦고,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하면 과잉이 된다.

그리고 개발자는 중요한 정보를 비공개로 둘 유인을 갖는다.²⁰ 그러므로 기술적 해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의 성품과 제도의 성숙이 함께 자라야 한다.

²⁰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보고서는 이 딜레마를 거버넌스의 핵심 난제로 규정한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제도의 학습 속도 사이의 격차가 문제의 구조적 원인이다.

제 5 장

종말론 — 가능성과 성취 사이

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쏟아지는 질문들이 있다. AGI가 적그리스도인가. AI가 666인가. 세계정부가 AI를 이용할 것인가. AI 감시체제가 짐승의 표인가. ASI가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

교회는 이 질문들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 이 물음들은 실제 두려움에서 나오며, 성도들은 뉴스를 보며 진심으로 묻는다. 웃어넘기면 목회적 신뢰를 잃는다. 그러나 가능성과 예언의 성취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다”와 “그것이다”는 다르다.

No sensationalism. No naïveté. Discernment.

1. 요한계시록을 기술 예언서로 만들지 말라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AI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며 반도체가 아니고 바코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이다. 리처드 보컴이 보여주듯,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경제적·종교적 권력 한복판에서 “누가 진정한 주권자인가”를 묻는 저항의 문서다.²¹

그리고 여기서 밝혀 둘 것이 있다. 본서의 논지는 특정 종말론 학파에 의존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는 과거주의·미래주의·이상주의·역사주의의 오랜 전통이 있고, 천년왕국에 관해서도 전천년설·무천년설·후천년설이 공존해 왔다.²² 본서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모든 전통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 위에 선다 — 제국적

²¹Richard Bauckham,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idem, *The Climax of Prophecy* (Edinburgh: T&T Clark, 1993). 보컴은 계 18 장의 상업 비판을 로마의 경제 현실과 긴밀히 연결하여 읽는다.

²²개관으로는 Steve Gregg, ed., *Revelation: Four Views*, rev. ed. (Nashville: Thomas Nelson, 2013); Robert G. Clouse, ed.,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7) 참조. 본서는 어느 한 전통을 전제하지 않으며, 네 전통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 선다.

권세는 우상숭배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권세는 궁극적이지 않으며, 역사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다.

따라서 AI 시대의 계시록적 질문은 “AI가 짐승인가”보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는가”**여야 한다. 계시록은 미래의 기술 목록이 아니라 현재의 충성에 관한 책이다.

2. 그러나 그 경고는 놀랍도록 현대적이다

그렇다고 계시록의 경고를 과거의 이야기로만 봉인해서도 안 된다. 계시록 13장의 세계에는 정치권력과 경제통제와 우상숭배와 선전과 충성 요구와 거래 제한과 강제가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어 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계 13:17).

AI가 이 예언의 특정 기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AI가 역사상 유례없는 감시·프로파일링·행동예측·정보통제·경제적 배제의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변이 아니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정부의 사회적 점수화와 공공장소의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을 “허용 불가 위험”으로 분류하여 금지했다.²³ 입법자들이 그것을 금지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위험이 이론이 아님을 증언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세는 선정주의도 순진함도 아닌 분별이어야 한다. 계시록이 그린 구조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최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 인정이 곧 특정 기술과 예언의 동일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3. 기독교 종말론의 중심은 디스토피아가 아니다

²³Regulation (EU) 2024/1689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rticle 5. 금지 목록에는 사회적 점수화(social scoring),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제한적 예외 있음), 취약계층 조작, 직장과 교육기관에서의 감정인식 등이 포함된다. 입법자가 금지 목록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위험이 이론이 아님을 보여준다.

교회가 종말을 다룰 때 반복해 온 두 실패가 있다. 하나는 낱짜를 계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이다. 전자는 교회의 신뢰를 잃게 하고 후자는 시대를 놓치게 한다.

복음주의 종말론의 중심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다. 종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짐승의 등장도, 전쟁도, 기술적 통제도 아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계 11:15).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새 창조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계 21:5).

조지 엘든 래드가 강조한 “이미 그러나 아직”의 구조가 여기서 결정적이다.²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셨으므로(골 2:15) 어떤 권세도 궁극적이지 않다. 그러나 권세들은 여전히 활동하며 인간을 형성하므로 분별과 저항이 필요하다. “이미”만 붙들면 승리주의가 되고 “아직”만 붙들면 패배주의가 된다. **교회는 승리한 자로서 싸우고, 아직 끝나지 않은 자로서 깨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 때문에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공동체**다. 다니엘의 제국들은 모두 지나갔고 로마도 영원하지 않았다. 컴퓨터 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제 2 부

AI 문명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 남는 법

Remaining the Church in an AI Civilization

²⁴George Eldon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 The Eschatology of Biblical Realism* (Grand Rapids: Eerdmans, 1974). 래드의 틀은 현재 역사 속 악의 권세를 진지하게 다루면서도 특정 역사적 사건을 곧바로 최종적 종말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제 6 장

AI 문명은 어떤 인간을 만드는가

앞선 저작에서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물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능력이 아니라 부여된 지위이며, 그러므로 초지능의 등장도 인간의 존엄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그 결론이었다.²⁵ 본 장은 그 논의를 반복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바꾼다.

AI 문명은 어떤 인간을 만들어 내는가?

이것은 존재론적 물음이 아니라 형성(formation)의 물음이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가 보여주었듯 문명은 제도만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습관과 자기 통제의 방식을 형성한다.²⁶ 그렇다면 AI 문명은 어떤 자기 통제와 어떤 욕망과 어떤 시간 감각을 인간에게 심고 있는가.

1. AI 문명이 요구하는 인간의 이상형

모든 문명에는 이상적 인간상이 있다. 고대 그리스에는 시민(polites)이 있었고, 중세에는 성인(sanctus)과 기사가 있었으며, 근대에는 자율적 개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AI 문명이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이상형은 무엇인가. 본서는 일곱 가지로 정리한다.

빠른 인간. 지연은 손실로 계산된다. 숙고는 지체로 읽히고, “생각해 보겠다”는 답은 무능의 신호가 된다. **항상 연결된 인간.** 접속 가능성이 신뢰도가 된다. 응답하지 않는 시간은 설명을 요구받는다. **측정 가능한 인간.** 기여는 지표로 환산되어야 인정된다. 측정되지 않는 노동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된다.

²⁵ 줄고 「사람이란 무엇인가: 지성·인격·하나님의 형상」(초록나무) 참조. 특히 귀류법에 의한 논증 — 존엄이 성능에서 온다면 초지능이 인간보다 더 존엄해야 한다는 불합리 — 이 본서의 인간론적 전제다.

²⁶ Norbert Elias, *The Civilizing Process*, trans. Edmund Jephcott (Oxford: Blackwell, 2000). 엘리아스는 문명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외적 제도가 아니라 내면화된 자기 통제로 이해했다. 본 장은 그의 방법을 AI 문명에 적용한다.

생산적인 인간. 산출이 없는 시간은 낭비로 분류된다. 예측 가능한 인간. 번덕은 위험 요소이고 일관성은 신용이 된다. 최적화 가능한 인간. 개선의 여지는 곧 개선의 의무가 된다. 그리고 데이터화 가능한 인간. 기록되지 않는 삶은 관리될 수 없고, 관리될 수 없는 것은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일곱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인간상이 드러난다. 빠르고, 끊기지 않고, 계량되고, 산출을 내고, 예측되며, 개선되고, 기록되는 인간. 이 목록에 악한 것은 하나도 없다. 각각은 미덕이거나 최소한 유용성이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됨의 전부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 세 학자의 진단

이 현상을 앞서 진단한 학자들이 있다. 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 보자.

하르트무트 로자는 근대의 근본 구조를 “사회적 가속(soziale Beschleunigung)”으로 규정했다. 기술의 가속, 사회 변화의 가속, 생활 속도의 가속이 서로를 강화하는 순환을 이루며, 그 결과 인간은 세계와의 “공명(Resonanz)”을 잃고 세계를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만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⁷ 로자의 통찰이 AI 시대에 갖는 함의는 분명하다. 세계를 더 잘 예측하고 통제할수록 세계는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된다.

한병철은 「괴로사회」에서 근대의 규율사회가 성과사회로 이행했다고 진단했다. 과거의 사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로 작동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할 수 있다”는 긍정성의 과잉으로 작동하며, 그 결과 개인은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를 겸하게 되어 자기 자신을 소진시킨다는

²⁷Hartmut Rosa, Beschleunigung: Die Veränderung der Zeitstrukturen in der Moderne (Frankfurt: Suhrkamp, 2005); Resonanz: Eine Soziologie der Weltbeziehung (Berlin: Suhrkamp, 2016). 로자의 “공명” 개념은 세계와의 응답적 관계를 뜻하며, 통제 가능성의 증대가 오히려 공명의 상실을 낳는다는 역설을 지적한다.

것이다.²⁸ 그리고 그는 「투명사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회에서는 신뢰가 필요 없어지고, 신뢰가 필요 없는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감시로 대체된다.

쇼샤나 주보프는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서 인간의 경험이 예측 상품의 원료로 전환되는 축적 논리를 분석했다. 그 최종 단계에서 목표는 예측을 넘어 행동의 유도과 수정으로 나아가며, 그녀는 이를 “도구화 권력(instrumentarian power)”이라 불렀다.²⁹

세 사람의 진단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곳을 가리킨다. 가속과 성과와 예측이라는 세 힘이 인간을 특정한 형태로 빚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AI는 이 세 힘을 모두 증폭시킨다. 더 빠르게 하고, 더 많은 성과를 가능하게 하며,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

3. 반론 — 기술 결정론이 아닌가

여기서 정직한 반론을 다루어야 한다. 이 진단은 기술 결정론이 아닌가. 인간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지 기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 반론은 진지하다. 그리고 기술사회학의 상당 부분이 이 방향으로 엘릴과 매클루언을 비판해 왔다. 사회구성주의적 기술 연구는 기술이 사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협상과 선택의 산물임을 보여 주었다.³⁰ 본서는 이 교정을 받아들인다.

²⁸한병철(Byung-Chul Han), Müdigkeitsgesellschaft (Berlin: Matthes & Seitz, 2010); 한국어판 「피로사회」(문학과지성사, 2012). 한병철은 이어 「투명사회」에서 투명성의 강요가 신뢰를 대체하는 현상을 분석했다.

²⁹Shoshana Zuboff,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New York: PublicAffairs, 2019). 주보프의 분석은 광고 산업의 사례에서 출발하나 그 논리는 AI 추천·예측 시스템 전반에 적용된다. 다만 그녀의 “감시 자본주의” 개념이 모든 데이터 활용을 포괄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³⁰기술의 사회적 구성론(SCOT)에 관하여는 Wiebe E. Bijker, Thomas P. Hughes, and Trevor J. Pinch,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Cambridge, MA: MIT Press, 1987) 참조. 이 관점은 기술 결정론에 대한 중요한 교정이다.

그러므로 본서의 명제는 결정론이 아니라 **형성론(formation)**이다. 두 가지가 다르다. 결정론은 “기술이 인간을 이렇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형성론은 “기술이 특정한 방향으로 사람을 기울인다(disposes)”고 말한다. 기울어짐은 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저항하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저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울어짐은 대개 편리함의 형태로 오기 때문이다.

찰스 테일러의 개념을 빌리면 이것은 “**사회적 상상(social imaginary)**”의 문제다. 사람들이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제하는 것, 곧 세계가 어떻게 작동한다고 암묵적으로 느끼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³¹ AI 문명은 논증으로 사람을 설득하지 않는다. **전제로 사람을 형성한다.**

4. 복음이 형성하려는 인간

그렇다면 대조가 필요하다. 기독교 신앙이 형성하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앞의 일곱과 나란히 놓아 보자.

사랑하는 인간. 사랑은 효율의 반대편에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시간과 돈과 계획을 소모했다. **기다리는 인간.** 성경의 시간은 카이로스이며,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신앙의 형식이다. **기도하는 인간.** 기도는 산출을 내지 않는다. 그것은 응답이다. **회개하는 인간.** 최적화는 개선을 말하지만 회개는 방향의 전환을 말한다.

용서하는 인간. 용서는 계산을 중단하는 행위다. 일흔 번씩 일곱 번(마 18:22)은 셈하지 말라는 뜻이다. **타인을 위해 손해 보는 인간.** 이것은 어떤 지표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안식하는 인간.** 생산하지 않는 날에도 인간은 인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간.** 자기 최적화의 반대편에 있는 자세다.

³¹Charles Taylor, *Modern Social Imaginarie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4); *A Secular 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테일러의 “사회적 상상”은 명시적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를 상상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두 목록을 나란히 놓으면 대답이 선명해진다. AI 문명의 핵심 질문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고, 복음의 질문은 “인간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이다. 전자는 역량의 물음이고 후자는 소속의 물음이다. 그리고 소속은 성능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5. 그러므로 교회는 대안적 형성 공동체다

이 대조가 본서 제 4 부의 “대항 형성”으로 이어진다. 다만 여기서 오해를 막아 두어야 한다. 복음이 형성하려는 인간이 빠르지 않거나 생산적이지 않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도 성실하게 일하고 책임 있게 산출을 내며 정직하게 평가받는다.

차이는 궁극성에 있다. AI 문명의 일곱 가지는 유용한 미덕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순간 우상이 된다. 반면 복음의 여덟 가지는 유용하지 않을 때에도 인간을 인간이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과제는 앞의 일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궁극이 되지 않도록 다른 형성의 리듬을 몸에 새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왜 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개인의 결심으로는 문명의 기울어짐을 견딜 수 없다. **형성은 공동체와 반복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배와 성찬과 안식과 기도와 함께 견디는 관계가 그 반복이다. 이 논의는 제 16 장에서 완결될 것이다.

제 7 장

그리스도인의 다섯 규율

시대를 분별했다면 이제 사람의 문제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 **사용법 이전에 사람됨을 묻는다.** 본서는 다섯 가지 규율을 제안한다.

1. 첫째 — AI 를 배우라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LLM, 토큰, 파라미터, 추론, GPU, 에이전트, 퍼지컬 AI, AGI 와 ASI 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엔지니어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AI 문해력은 이제 문화 문해력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유네스코의 실증이 있다. 고등교육 종사자의 92%가 AI 도구를 사용하지만 “매우 자신 있게 사용한다”는 비율은 23.6%에 그쳤다.³² 사용은 이미 보편적인데 이해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무지는 영성이 아니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분별이 아니라 회피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AI 문해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목회적 과제다.

2. 둘째 — 사고를 넘겨주지 말라

AI 로 생각을 확장하되 AI 에게 생각 자체를 넘겨주지 말라. AI 에게 질문하되 AI 의 답을 검증하라. AI 로 초안을 작성하되 마지막 판단은 인간이 하라. 이것이 제 3 장에서 논한 증강과 대체의 구별이다.

실증은 OECD 가 제공한다. 2026 년 분석에서 OECD 는 AI 를 사용하면 과제 수행은 좋아지지만 실제 학습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³²UNESCO 의 고등교육 AI 활용 조사(2025). 수치는 조사 대상과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용 시점에 원자료를 확인할 것. 중요한 것은 개별 수치보다 “사용은 보편적이나 이해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구조적 격차다.

결론지었다. 인지 과정을 AI에 넘기면 “메타인지적 게으름(metacognitive laziness)”과 깊은 읽기·집중력·인내의 저하 위험이 있으며, AI 없이 시험했을 때 그 이점이 사라지거나 역전된 연구도 있다.³³

Better Performance ≠ Better Learning

그러므로 명제를 정확히 다듬어야 한다. 문제는 **인지의 외부화가 아니라, 외부화한 것을 다시 호출하고 검증하고 책임질 능력까지 잃는 것이다.** 인간은 문자와 책과 도서관을 통해 언제나 인지를 외부화해 왔다. 소크라테스는 이미 문자가 기억을 약화시킨다고 걱정했고 그 우려는 대체로 과장이었다.³⁴ 그러나 판단의 외주화는 다른 범주다.

3. 셋째 — 주의력을 지키라

AI 시대에 가장 희소한 자원은 GPU도, 데이터도, 돈도 아니다. **인간의 주의력**이다. 허버트 사이먼은 1971년에 이미 예견했다 — “정보의 풍요는 주의의 빈곤을 낳는다.”³⁵ 인터넷이 없던 시대의 통찰이 지금 훨씬 정확해졌다.

그런데 주의력은 단순한 인지 자원이 아니다. 시몬 베유는 주의를 “가장 희귀하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라 불렀고, 학교 공부의 궁극적 목적조차 기도를 위한 주의력의 훈련이라고 보았다.³⁶ 이 통찰이

³³ OECD의 2026년 교육 관련 분석. 다만 이러한 연구의 다수는 상관관계 연구이므로 인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사용 방식 — 검증 여부, 선행 사고 단계의 유무 — 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³⁴ Plato, Phaedrus 274c-275b. 다만 과거의 우려가 과장이었다는 사실이 현재의 우려도 과장임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과거의 기술은 기억을 외부화했으나 판단을 외부화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범주가 다르다.

³⁵ Herbert A. Simon, “Designing Organizations for an Information-Rich World,” in Computers, Communications, and the Public Interest, ed. Martin Greenberger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71), 40-41. “주의 경제(attention economy)” 개념의 기원으로 널리 인용된다.

³⁶ Simone Weil, “Réflexions sur le bon usage des études scolaires en vue de l’amour de Dieu” (1942), in Attente de Dieu (Paris: La Colombe, 1950). 베유는 주의를 자아를 비우고 대상이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는 수동적 능동성으로 이해했다.

결정적이다. 주의를 잃은 인간은 인지 능력만 잃는 것이 아니다. 사랑할 능력과 기도할 능력을 함께 잃는다. 사랑은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 훈련의 새로운 영역이 열린다. 침묵, 기도, 독서, 안식일, 깊은 대화, 예배, 집중이 그것이다. 주의를 회복하는 것은 자기계발이 아니라 사랑의 조건을 회복하는 일이다.

4. 넷째 — 진실을 사랑하라

딥페이크와 합성 미디어와 AI 생성 허위정보와 개인화된 설득의 시대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훨씬 어려워진다. 그리고 세 가지 정직의 위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대필의 문제 — 내가 쓰지 않은 것을 내가 쓴 것처럼 내놓는다. **출처의 문제** —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처럼 말한다. 존재하지 않는 문헌이 설교에 등장한다. **자기기만의 문제** — 요약을 읽고 원문을 읽었다고 느낀다. 세 번째가 가장 무섭다. 남을 속이는 것은 들킬 수 있으나 자기를 속이는 것은 들키지 않기 때문이다.

실천적 기준을 하나 제안한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없다면 그 사용은 이미 선을 넘은 것이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엡 4:25).

Truthfulness becomes a Christian witness.

5. 다섯째 — 인간을 효율로 평가하지 말라

이것은 추상적 신학이 아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스탠퍼드 디지털경제연구소의 브린올프슨·찬다르·첸은 ADP 급여 데이터로 미국 노동자 수백만 명을 분석하여,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22-25 세 노동자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약 13% 감소한 반면 같은 직종의 고령 노동자 고용은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증가했음을 보고했다. 그리고 그

감소는 해고가 아니라 **채용의 중단**에서 왔다.³⁷ 젊은이들이 첫 일자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AI 시대에 가장 취약해질 사람들의 목록이 그려진다. 느린 사람, 늙은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생산성이 낮은 사람, 기술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첫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이다. 여기서 제 3 강의 인간론이 교회 윤리로 넘어온다.

Human Worth ≠ Human Performance

그러므로 교회는 실직자와 은퇴자와 장애인과 첫 직장을 얻지 못한 청년이 “쓸모없다”고 느끼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 사업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다.

³⁷Erik Brynjolfsson, Bharat Chandar, and Ruyu Chen, “Canaries in the Coal Mine? Six Facts about the Recent Employment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tanford Digital Economy Lab (2025; 2026 년 2 월 갱신). 저자들은 금리 요인, 기술산업 제외, 원격근무 효과를 각각 통제해도 패턴이 유지된다고 보고한다. 다만 이는 상관관계 분석이며 인과 추론에는 신중해야 한다.

제 8 장

AI가 대신할 수 없는 교회

교회가 마주한 물음은 추상적이지 않다. 이번 주의 문제다. AI가 설교 초고를 쓰고 목사가 다듬어도 되는가. 상담 기록을 상용 AI에 입력해도 되는가. 교회학교 교사가 AI로 공과를 만들어도 되는가. 교인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심방 우선순위를 정해도 되는가. 부교역자 지원서를 AI가 1차 심사해도 되는가.

이 물음들에 “예/아니오”로 답할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규칙 목록이 아니라 분별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먼저 물어야 한다 — AI가 도울 수 있는 것과 교회가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1. 넘겨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AI는 설교 초안을 돕고, 행정을 돕고, 번역하고, 성경 검색을 돕고,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 분별(Discernment), 목회적 책임(Pastoral Responsibility), 도덕적 책임(Moral Accountability), 영적 권위(Spiritual Authority), 인간의 현존(Human Presence).

그 신학적 근거는 청지기 비유에 있다. 위임은 책임의 이전이 아니라 재배치다. 청지기는 자신이 맡긴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책임을 진다(눅 16:1-2). 그러므로 “AI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은 결코 면책이 될 수 없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제 14 조가 고위험 시스템에 요구하는 “인간의 감독”도 결국 이 지점을 겨눈다. 감독자는 시스템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하고, 자동화 편향을 경계하며, 출력을 무시하거나 뒤집을 수 있고,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³⁸

³⁸Regulation (EU) 2024/1689, Article 14 (Human oversight). 이 조항의 핵심은 “인간이 고리 안에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이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가”이며, 자동화 편향(automation bias)에 대한 경계를 명문화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2. AI 목사가 가능한가

도발적으로 물어 보자. AI 는 24 시간 상담하고, 수천 개 설교를 기억하며, 원어를 분석하고, 성경 전체를 검색하고, 맞춤형 설교도 한다. 그렇다면 AI 가 목사가 될 수 있는가.

대답은 목회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목회가 정보 제공이라면 AI 가 더 잘한다. 그러나 목회는 정보 제공만이 아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책임지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사람을 사랑하고, 때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다.

Pastoring is embodied presence.

여기에 성경이 주는 놀라운 예가 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이레 동안 밤낮으로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였더라”(욥 2:13).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자마자 문제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신학은 대체로 정확했으나 그 자리에서는 폭력이었다.

AI 는 침묵하지 못한다. 물으면 답한다. 그것이 그 존재 방식이다. 그러나 목회의 상당 부분은 답하지 않는 능력에 달려 있다. 장례식장에서, 유산한 부부 곁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 앞에서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함께 앉아 있음이다. 바울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고 했을 때 그것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몸의 동석이었다.

3. AI 예배가 가능한가

AI 생성 찬양, AI 설교, AI 기도, AI 예전, AI 아바타 설교자 — 기술적으로 모두 가능하며 이미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물어야 할 질문은 다르다. 누가 예배하고 있는가(Who is worshipping?).

예배의 핵심은 콘텐츠 생산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AI 는 예배의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예배는 산출물이 아니라 응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배는 몸으로 드린다. 제임스 스미스가 논증했듯 예배는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방향을 형성하는 자리이며, 그 형성은 몸의 반복을 통해 일어난다.³⁹ 세례의 물과 성찬의 떡과 잔은 정보가 아니라 물질이며 그것을 받는 것은 몸이다. AI는 성찬을 설명할 수 있으나 집례할 수 없고, 무엇보다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역설이 하나 드러난다. 예배는 비효율적이다. 같은 찬송을 반복하고, 이미 아는 이야기를 다시 듣고, 서두르지 않는다. 최적화의 관점에서 예배는 낭비다. **그러나 그 낭비가 형성이다.** 교회는 효율을 최고 가치로 삼지 않는 몇 안 되는 공적 공간이며, AI 시대에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자산이다.

4. 교회가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그러므로 지켜야 할 것의 목록이 나온다. **현존(Presence)** — 함께 머무는 몸. **교제(Communion)** — 마찰을 견디는 공동체. **진리(Truth)** — 검증되고 책임지는 말. **분별(Discernment)** — 가능한 것과 옳은 것의 구별. **몸(Embodiment)** — 성육신적 삶. AI가 정보를 무한히 공급할수록 이 다섯은 더 희소해지고 더 귀해진다.

³⁹James K. A. Smith,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스미스는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나 “믿는 존재”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예전(liturgy)이 욕망을 형성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제 9 장

AI-Ready Church 와 AI 언약

지킨다는 것이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교회가 인간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기술을 거부하거나 교육을 거부하거나 AI 를 금지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교회는 인쇄술을 사용했고, 라디오를 사용했고, 텔레비전을 사용했고, 인터넷을 사용했다. AI 도 사용할 것이다.

Adoption without Discernment is not Mission.

1. AI-Ready Church 의 네 역량

미래 교회에는 네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 **AI Literacy** — 기술을 이해한다. **AI Theology** —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AI Ethics** — 책임 있게 사용한다. 그리고 **AI Mission** — 복음을 위해 사용한다. 이 넷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나머지가 왜곡된다. 문해력 없는 신학은 공허하고, 신학 없는 윤리는 임의적이며, 윤리 없는 선교는 위험하다.

2. 모든 교회에 AI 언약이 필요하다

본서는 실천적 제안을 하나 한다. 각 교회가 자기 상황에 맞는 AI 사용 지침을 만들되, 그것을 “규정집”이 아니라 “**언약(covenant)**”이라 부를 것을 권한다. 규정은 지키거나 어기는 것이지만 언약은 함께 만들고 함께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다음을 결정해야 한다. 설교 작성에 AI 를 어디까지 사용하는가. 상담 정보를 AI 에 입력해도 되는가. 교인 개인정보는 어떻게 다루는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용 지침은 무엇인가. AI 생성 이미지는 어떻게 표기하는가. 딥페이크와 합성 음성은 어떻게 다루는가. 저작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AI 번역의 검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I 상담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리고 이 언약은 다섯 원칙 위에 세운다. **투명성** — AI 를 사용했다면 밝힌다. 밝힐 수 없는 사용은 하지 않는다. **책임성** — 최종 책임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다. **비밀보호** — 목회적 비밀과 개인정보는 상용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다. **형성 우선** — 효율보다 사람의 형성을 우선한다. **인간 명령권** — 교리·징계·채용·제정·영적 분별은 위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분별은 개인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이다.** 신약은 “영들 분별함”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고전 12:10), 요한일서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요일 4:1)고 명한다. 그러므로 AI 언약은 담임목사의 지침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여야 한다.

3. 목회자의 가치가 다시 정의된다

AI 보다 많은 정보를 아는 목회자가 되려 하면 진다. AI 보다 빨리 성경 구절을 찾으려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해방일 수 있다. **목회자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검색엔진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섯 가지 전환이 일어난다. 정보 전달자에서 **지혜의 안내자(Wisdom Guide)**로. 콘텐츠 제작자에서 **영적 형성자(Spiritual Formator)**로. 조직 관리자에서 **공동체 건축자(Community Builder)**로. 정답 제공자에서 **분별하는 동반자(Discerning Companion)**로. 강단의 사람에서 **몸으로 있는 목자(Embodied Shepherd)**로.

4. 신학교육의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

학생이 AI 로 논문을 쓰고 번역하고 요약하고 주해한다. 그렇다면 과제 형식만 바꾸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 신학교육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서 “**얼마나 깊이 분별하는가**”로.

약해지는 것과 귀해지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자료의 축적과 요약 능력과 정보의 전달과 표준적 주해의 재생산은 약해진다. 반면 분별력과

원문과 씨름하는 힘과 목회적 판단과 영적 형성과 공동체적 논쟁은 귀해진다. 그러므로 신학교는 성경·교회사·신학·선교학에 더하여 AI 문해력, AI 윤리, 디지털 인간론, 기술과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다.

Formation before Information

신학교는 신학 지식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신학하는 사람을 기르는 곳이다. 그리고 이 명제는 AI 시대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다만 AI가 그 오랜 위험 — 신학적 언어를 능숙하게 생산하면서 신앙은 형성되지 않는 상태 — 을 극적으로 증폭시킬 뿐이다.

제 10 장

AI 시대의 공공신학

교회가 AI 를 교회 안에서만 논의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은 교회의 언어 없이 AI 문명의 규범을 결정할 것이고, 그 결정은 결국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AI 신학은 공공신학이 되어야 한다.**

1. 늦었는가

현재 AI 문명의 언어와 윤리는 대부분 빅테크와 정부와 시장과 엔지니어와 투자자가 결정한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미 늦은 것인가.

기술의 설계에는 늦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형성하는 데는 늦지 않았다. 실증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 AI 안전보고서 2026」에 따르면 2025 년 한 해 12 개 기업이 프런티어 AI 안전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거나 갱신했으나 통일된 접근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제 조율은 연성법(soft law)을 낳았을 뿐 구속력 있는 국제 표준을 만들지 못했다.⁴⁰ 규범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위험인 동시에 기회다.

Too late to shape the technology? Not too late to shape its meaning.

2. 공공신학의 전통

이 전통은 새롭지 않다. 라인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이 다른 논리로 작동함을 논증했다.⁴¹ 디트리히 본회퍼는 책임 윤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세상

⁴⁰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및 관련 거버넌스 분석. AI 안전연구소(AISI)들의 국제 네트워크, G7 히로시마 프로세스, OECD 원칙 등이 존재하나 구속력 있는 국제 표준은 아직 없다. 이 “거버넌스 공백”은 위험인 동시에 규범 형성의 여지이기도 하다.

⁴¹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 Study in Ethics and Politic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2). 니버의 핵심 논지는 개인은 도덕적 이상을 추구할 수 있으나 집단은 이기심의 논리로 움직이므로 정의는 사랑만이 아니라 권력의 균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통찰은 AI 기업과 국가의 행동을 분석할 때 특히 유용하다.

한복판에서 결단해야 함을 보였고,⁴² 아브라함 카이퍼는 “단 한 치의 땅도” 그리스도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⁴³

그러므로 교회는 노동, 교육, 의료, 감시, 전쟁, 인간 존엄, 아동, 노인, 장애, 빈곤,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사적 영역에 갇히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3. 예언자적 질문 여섯

제 2 장 「컴퓨터의 권세」의 논지가 여기서 회수된다. 교회가 물어야 할 질문은 여섯이다. 누가 GPU 를 소유하는가.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는가. 누가 알고리즘을 통제하는가. 누가 감시하는가. 누가 이익을 얻는가. 누가 배제되는가.

그리고 이 질문들은 사변이 아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들이 세계 상위 500 대 슈퍼컴퓨터의 86%와 데이터센터 용량의 77%를 보유한다. 스탠퍼드 「AI 인덱스 2026」은 미국이 5,427 개의 AI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449 개이며, 파운데이션 모델 투명성 지수의 산업 평균이 2024 년 58 에서 2025 년 40 으로 하락했다고 보고한다.⁴⁴ 능력은 집중되는데 그 능력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The Church must ask not only what AI can do, but who AI serves.

제 3 부

세계 기독교와 선교의 재구성

⁴²Dietrich Bonhoeffer, *Ethik* (1949); *영역 Ethics*, ed. Clifford J. Gree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5). 본회퍼의 “책임(Verantwortung)” 개념은 원칙의 적용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이웃을 위해 결단하는 것을 뜻한다.

⁴³Abraham Kuyper,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1880)의 유명한 문장. 이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ty)” 사상은 신앙이 사적 영역에 갇히지 않고 학문·정치·경제·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발언해야 함을 뜻한다.

⁴⁴World Bank, *Digital Progress and Trends Report 2025: Strengthening AI Foundations* (Washington, DC: World Bank, 2025); Stanford HAI, *The 2026 AI Index Report*. 빠르게 변하는 수치이므로 인용 시점에 원자료를 재확인할 것.

제 11 장

선교 마찰의 붕괴

이제 선교로 내려간다. 그러나 먼저 선교의 오래된 구조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1. 선교의 오래된 구조

근대 선교는 대체로 네 기둥 위에 서 있었다. **교차문화 선교(Cross-Cultural Mission)** — 내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내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내 세계관에서 다른 세계관으로. 선교사는 언어를 배우고 문화충격을 견디며 현지 문화를 이해해야 했다. **가는 선교(Going Mission)** — “가라”는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지리적 경계를 넘었다. **보내는 교회(Sending Church)** — 선교사는 가고 본국 교회는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했다. **선교 생태계(Mission Ecosystem)** —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와 학교와 병원과 NGO 와 출판사와 방송과 신학교가 복음과 인간의 필요 사이의 간극을 메웠다.

200 년 동안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선교가 아니었다. 수많은 희생과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위대한 유산이다. 문제는 복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는 세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2. 선교 마찰의 붕괴

본서는 지금 일어나는 변화를 “**선교 마찰의 붕괴(Mission Friction Collapse)**”라 부른다. 과거 선교의 큰 장벽은 다섯이었다 — 거리(Distance), 언어(Language), 비용(Cost), 시간(Time), 전문성(Expertise). 그리고 AI 는 이 다섯을 동시에 낮춘다.

이것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선교 “구조”의 변화인 이유가 여기 있다. 다섯 장벽이 하나씩 낮아지면 개선이지만, 동시에 낮아지면 구조 변화다. 그리고 구조가 바뀌면 전략이 아니라 상상력이 바뀌어야 한다.

3. 여섯 영역의 실제 유익

첫째, 언어와 번역이다. AI가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언어장벽이다. 설교와 교재의 초벌 번역, 이메일과 선교보고서, 실시간 회의 통역, 영상 자막과 더빙, 음성-텍스트 변환, 다국어 웹사이트, 문체와 독해 수준 조정, 소수언어 자료 정리가 이미 가능하다. 로잔운동도 AI가 교회와 선교에 제공할 특별한 기회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통제·권력·사생활·편향·경제적 영향·인간 이해의 문제를 함께 제기한다.⁴⁵

그러나 반드시 경고해야 한다. **Translation ≠ Incarnation.** AI가 타갈로그어를 번역했다고 필리핀 사람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아랍어를 번역했다고 이슬람 문화를 이해한 것이 아니다. 언어장벽은 낮아지지만 문화 이해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번역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문화적 오해가 더 쉽게 대량생산될 수 있다.

둘째, 복음 콘텐츠 제작의 민주화다. 과거에는 선교 영상 하나를 만들려면 작가와 번역가와 디자이너와 영상편집자와 성우와 음향전문가가 필요했다. 이제 한 선교사가 AI의 도움으로 상당 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 큰 선교단체만 가능했던 미디어 사역을 작은 교회와 현지 사역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컴퓨터 빈국의 현지 교회에 주어지는 실질적 기회다. 다만 도구가 아니라 역량이 이양되어야 한다.

셋째, 선교 행정의 혁명이다. 이것은 의외로 저평가된 영역이다. AI는 화려한 설교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행정에서 큰 효과를 낸다. 예산과 회계 분류, 후원자 데이터베이스, 출석 통계, 재정 보고, 프로젝트 일정, 회의록 요약, 제안서 초안, 설문 분석, 연례 보고서가 그것이다.

AI can return administrative time to ministry.

⁴⁵Lausanne Movement의 AI 관련 논의 참조. 세계 복음주의 선교 네트워크가 AI를 기회이자 윤리적 도전으로 함께 다루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다.

선교사가 행정에 하루 네 시간을 썼다면 그것을 두 시간으로 줄이고 절약된 시간을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것이 AI의 좋은 사용이다. 그러나 절약된 시간이 다시 행정으로 채워진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넷째, “가는 선교”에서 “항상 연결된 선교”로의 이동이다. 과거의 주기는 본국 → 비행 → 선교지 → 귀국 → 보고였다. 이제 화상회의와 메시징과 클라우드와 AI 번역과 학습관리시스템과 공유문서를 통해 365일 연결이 가능하다. 현장을 1년에 한두 번 방문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목회자 훈련과 신학교 강의와 제자훈련과 상담과 행정 지도와 프로젝트 관리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경고가 필요하다. **Connectivity ≠ Presence.** 연결되었다고 함께 살아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가는 선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바뀐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만 가지 않고 관계를 맺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현장을 보고 문화를 경험하고 삶을 나누기 위해 간다. **오히려 성육신적 선교의 의미가 더 중요해진다.**

다섯째, **선교 연구의 혁명이다.** AI는 단순 콘텐츠 생성기가 아니라 거대한 연구 조력자가 될 수 있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인구 분석, 언어 분포, 종교 지형, 역사 조사, 지역사회 필요, 교육 수준, 이민 흐름, 도시화, 재난 위험, 교회 분포, 선교 역사, 과거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훨씬 빠르게 종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선 저작에서 제기한 문제와 정확히 연결된다 — “2천년 교회사 기록은 많지만 연결이 부족하다.”⁴⁶ 앞으로 세계 기독교가 해야 할 거대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의 집단 기억(Christianity’s Collective Memory)”을 만드는 일이다. 2천년 교회사와 세계 선교사와 신학과 부흥운동과 교회성장과 박해와 실패와

⁴⁶출고 「컴퓨터의 권세」 제 7장의 “선교지식 인프라(Mission Knowledge Infrastructure)” 논의 참조. 문제는 자료의 부재가 아니라 조직 기억의 단절, 곧 인출과 재사용의 실패다.

이단과 분열과 화해와 문화적 실수를 검색 가능하고 상호 연결된 지식체계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구별이 필요하다. AI에게 교회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자기 역사를 더 잘 기억하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섯째, 교육과 제자훈련이다. AI 시대에는 세계 어디에서든 개인별 성경공부, 언어별 교육자료, 독해 수준별 교재, 어린이와 청소년 콘텐츠, 목회자 재교육, 신학교 강좌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선교에 엄청난 기회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OECD의 경고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Better Bible Answers ≠ Deeper Discipleship

더 좋은 성경 답변이 더 깊은 제자도를 만들지 않는다. 제자도는 답이 아니라 삶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대교의 하브루타(חברותא)가 대안이 된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논쟁하고 반론하며 씨름하는 학습이다. 탈무드 자체가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논쟁의 기록이며 소수 의견까지 함께 보존한다.⁴⁷ AI가 즉답을 주는 시대에 **마찰은 학습의 방해물이 아니라 학습의 방법이다.**

4. AI 배당, 그리고 하나의 물음

이 여섯 영역을 종합하면 AI가 교회에 돌려줄 수 있는 것의 목록이 나온다 — 시간, 언어 접근성, 확장성, 접근성, 지식, 연결, 창작 능력, 행정 효율, 개인화, 조직의 기억, 분석, 전파 범위. 본서는 이를 “**AI 배당(AI Mission Dividend)**”이라 부른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물음이 남는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그 교회가 AI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⁴⁷ 하브루타 학습의 구조와 그 형성적 효과에 관하여는 Elie Holzer with Orit Kent, A Philosophy of Havruta: Understanding and Teaching the Art of Text Study in Pairs (Boston: Academic Studies Press, 2013) 참조. 탈무드가 소수 의견을 보존하는 이유에 관한 랍비 전통의 논의(m. Eduyot 1:5-6)도 함께 참조할 만하다.

What will the Church do with the time AI gives back?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전자는 효율의 논리이고 후자는 복음의 논리다.

제 12 장

AI Mission Dividend 와 네 가지 의존

앞 장에서 우리는 AI 가 선교에 주는 실제 유익을 보았다. 이제 그들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AI 가 틀릴 수 있다” 정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본서는 네 층위로 구별한다.

1. 지적 의존 — Cognitive Dependency

기억하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원전을 찾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문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논증하지 않는다. AI 에게 묻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력자가 대체자가 된다(the assistant can become the substitute)**.

다만 여기서 정직해야 한다. 인간은 문자와 책과 도서관과 계산기를 통해 언제나 인지를 외부화해 왔고, 앤디 클라크와 데이비드 차머스의 “확장된 마음” 논제는 그 외부화가 인지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⁴⁸ 그러므로 문제는 외부화 자체가 아니다. **외부화한 능력을 다시 호출하고 검증하고 책임질 능력까지 잃는 것이다.** 노트에 적어 둔 사람은 여전히 그 노트를 읽고 판단하고 책임진다. 주체가 사라진 확장은 확장이 아니라 대체다.

2. 영적 의존 — Spiritual Dependency

더 심각한 층위다. 설교와 기도문과 성경공부와 묵상과 신학적 판단과 목회상담 답변이 모두 AI 로 향할 때 물어야 한다 — **At what point does assistance become spiritual outsourcing?**

⁴⁸Andy Clark and David J. Chalmers, “The Extended Mind,” Analysis 58, no. 1 (1998): 7–19. 이들의 “동등성 원리(parity principle)”는 어떤 과정이 머릿속에서 일어났다면 인지적이라고 인정했을 경우 그것이 머리 바깥에서 일어나도 인지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AI가 설교문을 잘 쓰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 아니다. 설교자가 말씀과 씨름하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위험이다. AI가 기도문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기도문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문제다.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이 이 문제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는 그의 명제는 지식이 명제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으며 실천과 도제적 형성을 통해 전수됨을 뜻한다.⁴⁹ 그런데 AI가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명시적 산출물이다. 산출물은 전달되지만 암묵지는 전달되지 않는다. 알래스테어 매킨타이어가 논증했듯, 덕은 정보의 습득으로 생기지 않고 “실천(practice)” 속에서 형성된다.⁵⁰

3. 관계의 외주화 — Relational Dependency

AI 상담자와 AI 친구와 AI 동반자와 AI 교사가 더 친절하고, 더 오래 들어주고, 화를 내지 않고, 24 시간 대답한다면 사람들은 불편한 인간관계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제 3 강에서 논한 대로 **마찰이 언제나 실패인 것은 아니다(Friction is not always failure)**. 때로 마찰이 우리를 형성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기다림과 용서와 갈등과 화해와 희생과 인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언어로 말하면, AI는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으나 진짜 타자는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⁵¹ 얼굴은

⁴⁹Michael Polanyi, *The Tacit Dimen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4.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은 기호주의 인공지능이 부당한 “지식 획득 병목”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된다.

⁵⁰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3rd e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7). 매킨타이어의 “실천” 개념은 활동에 내재한 선(internal goods)과 외적 보상(external goods)을 구별한다. 설교와 목회는 전형적인 실천이며 그 내적 선은 산출물의 품질로 환원되지 않는다.

⁵¹Emmanuel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69). 레비나스에게 타자의 얼굴은 나의 인식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며 나에게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는 현존이다.

나의 기대를 배반하고 나의 계획을 방해하며 나에게 요구한다. 바로 그 저항이 나를 윤리적 주체로 세운다.

4. 제도적 의존 — Institutional Dependency

이것은 상대적으로 덜 논의되었으나 매우 중요하다. 교회가 어느 순간 설교자료와 교인 데이터와 재정과 교육과 번역과 커뮤니케이션과 클라우드와 영상과 상담과 행정 전체를 몇 개의 AI 플랫폼에 의존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야 할 질문은 구체적이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가. 가격이 크게 오르면. 정책이 바뀌면. 특정 신학적 콘텐츠가 제한되면. 데이터가 유출되면. 그러므로 **디지털 청지기직에는 회복탄력성이 포함된다(Digital Stewardship includes resilience)**. 교회는 AI 를 사용하면서도 AI 없이 핵심 사역을 수행할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기술 거부가 아니라 성숙한 사용이다. 자동화 연구의 고전적 통찰이 여기 적용된다. 리산 베인브리지의 지적인 “자동화의 역설”은 자동화가 정교해질수록 인간 조작자가 개입할 기회를 잃고, 그래서 정작 개입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⁵²

⁵²Lisanne Bainbridge, “Ironies of Automation,” *Automatica* 19, no. 6 (1983): 775–779. 이 고전적 논문의 통찰은 오늘의 AI 감독 논의에 그대로 적용된다.

제 13 장

알고리즘 식민주의와 세계 기독교

본 장은 본서에서 선교학적으로 가장 무거운 장이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장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는 것이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선교의 선의(善意) 안에 숨어 있는 위협이기 때문이다.

1. 선교와 식민주의 — 반성의 유산

20 세기 후반의 선교학은 고통스러운 자기 검토를 거쳤다. 근대 선교가 복음과 함께 서구의 언어와 문화와 교육 제도와 정치권력과 경제구조를 함께 전달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 비판은 외부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선교학 내부에서 가장 날카롭게 제기되었다.

데이비드 보쉬는 「변화하는 선교」에서 선교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을 추적하며, 계몽주의 패러다임의 선교가 어떻게 서구 우월성과 결합되었는지를 분석했다.⁵³ 레슬리 뉴비긴은 서구 자체가 선교지가 되었음을 지적하며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했고,⁵⁴ 앤드루 월스는 기독교의 중심이 지리적으로 계속 이동해 왔음을 보였으며,⁵⁵ 라민 사네는 복음의 번역 가능성이 각 문화를 신학의 주체로 세운다고 논증했다.⁵⁶

⁵³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보쉬는 한스 쾅의 패러다임 개념을 선교사에 적용하여 여섯 시대의 선교 패러다임을 구별하고, 오늘의 “에큐메니컬 패러다임”이 형성 중임을 논증했다.

⁵⁴Lesslie Newbigin, *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6);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9).

⁵⁵Andrew F. Walls,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1996); *The Cross-Cultural Process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2002).

⁵⁶Lamin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2nd ed. (Maryknoll, NY: Orbis Books, 2009). 사네는 선교가 토착 언어를 문자화하고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오히려 토착 문화를 강화한 측면을 강조하여, 선교=문화파괴라는 단순 도식을 교정했다.

여기에 남반구의 목소리를 더해야 한다. 사무엘 에스코바르는 라틴아메리카의 관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선교”를 말했고,⁵⁷ 스티븐 베반스와 로버트 슈라이어는 상황화 신학의 모델들을 체계화하여 복음이 각 문화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했다.⁵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를 성경 전체의 해석학적 틀로 확장했다.⁵⁹

이 반성의 유산이 오늘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같은 구조가 훨씬 효율적인 도구를 입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데이터 식민주의라는 개념

최근 미디어 연구에서 “데이터 식민주의(data colonialism)”라는 개념이 제기되었다. 닉 콜드리와 올리세스 메히아스는 역사적 식민주의가 토지와 자원과 노동을 전유했다면 오늘의 데이터 관행은 인간의 삶 자체를 전유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논증한다.⁶⁰ 이 유비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다. 역사적 식민주의의 폭력과 데이터 수집을 같은 층위에 놓는 것은 전자를 가볍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본서는 이 비판을 인정하며, 따라서 “식민주의”를 도덕적 동일시가 아니라 구조적 유비로 사용한다.

구조적 유비의 요점은 이것이다. 식민주의의 핵심 구조는 폭력의 규모가 아니라 **중심과 주변의 비대칭적 관계**였다. 자원은 주변에서 나오고 가치는 중심에서 실현되며, 규칙은 중심이 정하고 주변은 따른다.

⁵⁷Samuel Escobar, *The New Global Mission: The Gospel from Everywhere to Everyon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3).

⁵⁸Stephen B. Bevans, *Models of Contextual Theology*, rev. ed. (Maryknoll, NY: Orbis Books, 2002); Robert J. Schreiter, *Constructing Local Theologies* (Maryknoll, NY: Orbis Books, 1985).

⁵⁹Christopher J. H. Wright,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6).

⁶⁰Nick Couldry and Ulises A. Mejias, *The Costs of Connection: How Data Is Colonizing Human Life and Appropriating It for Capitalis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9). 저자들은 “식민주의” 유비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예상하고, 역사적 식민주의와의 차이를 함께 논한다.

그리고 그 관계가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이 구조가 데이터와 컴퓨터와 모델의 세계에서 재현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본장의 과제다.

3. 여섯 가지 질문

그러므로 AI 시대의 선교사와 교회는 여섯 가지를 물어야 한다.

첫째, 누구의 언어로 모델이 훈련되는가. 대규모 모델은 모든 언어를 동일한 밀도로 학습하지 않는다. 디지털 자료가 풍부한 언어가 압도적으로 대표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다. AI가 제시하는 “보편적인 답”이 실제로는 특정 언어권의 지식구조를 보편화한 것일 수 있다.

둘째, 누구의 문화가 정상으로 간주되는가. 모델이 “적절한 답”이라 판단하는 기준에는 훈련 데이터의 문화적 규범이 스며 있다. 선교사가 현지인에게 묻기보다 AI에게 그 문화를 물어보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AI가 문화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문화 안에서 살아본 것은 아니다.

셋째, 누구의 윤리가 모델에 들어가는가. 정렬(alignment) 과정에는 인간의 가치 판단이 개입한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는가. 어떤 문화적 전체 아래 이루어지는가. 넷째, 어떤 언어는 풍부하게 표현되고 어떤 소수언어는 빈약하게 표현되는가. 세계은행은 고소득 국가들이 세계 상위 500 대 슈퍼컴퓨터의 86%와 데이터센터 용량의 77%를 보유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 인구의 5% 미만만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한다.

다섯째, 누가 서버를 소유하는가. 그리고 여섯째, 누가 데이터를 가져가는가. 이 마지막 두 물음이 선교 현장에 가장 직접적이다. 가난한 지역의 설교와 사진과 간증과 언어자료와 구술사를 대량으로 수집해 선진국 서버에 저장하면서, 정작 현지 교회는 그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도 통제권도 접근권도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선교적 선의 아래 디지털 종속이 만들어진다.**

4. 디지털 선교 온정주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식민주의보다 미묘하고 그래서 더 다루기 어려운 것이 온정주의(paternalism)다.

선진국 교회가 AI 를 이용해 현지 교회보다 더 빨리 설교를 만들고, 교재를 만들고, 번역하고, 전략을 세우고, 지역을 분석해 “이것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보낼 수 있다. 효율적이다. 그리고 선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엇이 사라지는가.

현지 지도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실패하고, 신학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야말로 헨리 벤과 루퍼스 앤더슨의 삼자원리 — 자립·자전·자치 — 가 지향했던 것이다.⁶¹ 결과물을 주면 과정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돕는 것이 통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Helping can become controlling). 더 나쁜 것은 AI 가 과거의 온정주의적 선교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다.

5. 대안 — 디지털 선교 동반관계

그러나 본서는 진단에서 멈추지 않는다. 대안이 있어야 한다. 본서는 그것을 **디지털 선교 동반관계(Digital Mission Partnership)**라 부르고 네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소유권(Ownership). 현지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현지 공동체의 것이다. 수집한 자가 아니라 그 삶을 산 자가 소유자다. 그러므로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접근 권한과 활용 범위는 현지 교회가 결정해야 한다.

⁶¹삼자원리(three-self formula: self-governing, self-supporting, self-propagating)는 헨리 벤과 루퍼스 앤더슨이 19 세기에 각각 발전시킨 선교원리로, 현지 교회의 주체성 확립을 목표로 삼았다. AI 시대에는 여기에 “자기 지식(self-knowing)”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 앞선 저작의 제안이었다.

둘째, 판단권(Authority). 무엇을 만들지, 무엇을 번역할지,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현지 교회에 있어야 한다. 외부의 도움은 제안이지 결정이 아니다.

셋째, 생산 역량(Capacity). 완성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양해야 한다. 이것이 앞선 저작에서 제안한 “컴퓨트 정의(Compute Justice)”의 실천적 형태다.⁶²

넷째, 공동 설계(Co-design). 도구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현지 교회가 참여해야 한다. 완성된 뒤에 의견을 묻는 것은 참여가 아니다.

네 원칙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다. **현지 교회를 AI의 소비자**로 만들지 말고 **소유자·판단자·생산자·공동설계자**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선교학적 필연이다. 사네가 보여주었듯 복음은 번역될 때 각 문화를 신학의 주체로 세우기 때문이다. **번역의 주체성이 데이터의 주체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네가 발견한 것을 잃게 된다.**

6. 오순절의 원리

이 장의 신학적 근거는 오순절에 있다. 바벨에서 인간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중심으로 흩어짐을 면하려 했다(창 11:4).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은 하나의 언어를 강요하지 않으셨다. 파르티아인과 메대인과 엘람인이 각각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행 2:8-11).

바벨은 다양성을 제거하여 통합하려 하고, 오순절은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소통하게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AI 비전은 세계의 모든 언어와 문화를 하나의 모델과 하나의 플랫폼 안에 흡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각 민족과 언어가 기술적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연결되는 **오순절적 지능 생태계**를 지향해야 한다.

⁶² 줄고 「컴퓨트의 권세」 제 7 장 참조. 그 책은 컴퓨트 정의를 “모든 공동체가 자기 언어와 문화와 필요에 맞는 지능 도구에 접근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평가하고, 필요하면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21 세기의 번역 선교가 정의된다. 19 세기의 선교사가 문자 없는 언어를 문자화하고 성경을 번역했다면, **21 세기의 선교는 그 언어가 AI 시대에도 살아남고 지식 생산에 참여하도록 돕는 일이다.** 지역 언어의 성경과 신학자료와 설교와 구전자료를 디지털로 보존하는 것은 정보기술 사업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번역 선교다.

제 14 장

열 가지 경종 — 예언자적 증언

여기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문명의 층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실증이다.

1. AI 는 더 이상 기술 트렌드가 아니다

스탠퍼드 「AI 인덱스 2026」은 조사 대상 조직의 88%가 AI 를 사용하고 있으며 생성형 AI가 불과 3년 만에 세계적으로 53% 수준까지 확산되었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AI 능력 향상과 경제 통합의 속도에 비해 이를 관리하고 이해할 제도적 준비가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한다.⁶³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약 22%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며 1억 7천만 개 역할이 생기는 동시에 9천 2백만 개가 대체되고 현재 직무기술의 약 39%가 변할 것으로 전망한다.⁶⁴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센터의 세계 전력소비가 2030년 약 945 테라와트시까지 증가해 현재 수준에서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본다.⁶⁵

AI is no longer a technology trend. It is becoming a civilizational condition.

2. 세계는 준비하고 있다. 교회는?

정부는 AI 전략을 만들고, 기업은 AI 전략을 만들고, 대학은 AI 정책을 만들고, 군대는 AI 를 연구하고, 병원은 AI 를 도입하고, 학교는 AI 문해력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OECD 와 EU 는 2026년 초중등교육을 위한 AI 문해력 프레임워크까지 발표했다.

⁶³Stanford HAI, The 2026 AI Index Report. 조직 채택률과 확산 속도에 관한 수치는 조사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용 시점에 원자료를 확인할 것.

⁶⁴World Economic Forum, Future of Jobs Report (2025). 이러한 전망은 시나리오이며 실현 여부는 정책·투자·기술 궤적에 따라 달라진다.

⁶⁵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and AI (2025) 및 후속 분석.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교회에 AI 전략이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 — **교회에 AI 신학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 전략은 빌려올 수 있으나 신학은 빌려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학 없는 전략은 결국 세상의 전략을 교회 언어로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세계 교회를 향한 열 가지 경종

이하의 열 가지는 AI 를 종말론적 공포와 연결하는 예언이 아니다. 성경적 의미의 예언자적 증언, 곧 시대의 권세를 분별하고 교회에 회개와 준비를 촉구하는 메시지다.

첫째, 지성의 외주화. AI 가 더 똑똑해지는 동안 인간이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는가. **둘째, 영성의 외주화.**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설교하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문을 생산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가. **셋째, 진리의 위기.** 딥페이크와 합성 미디어 시대에 “무엇이 사실인가”를 분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넷째, 권력의 집중. 데이터와 컴퓨트와 모델을 소수 기업과 국가가 장악할 때 교회는 권력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다섯째, 새로운 빈곤.** UNCTAD 는 AI 의 혜택이 크게 집중되어 있고 개발도상국의 3 분의 1 도 안 되는 국가만 AI 전략을 가지며 118 개국이 주요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대표되지 못한다고 경고한다.⁶⁶ 컴퓨트 부국과 빈국의 격차를 누가 섬길 것인가.

여섯째, 노동과 인간 가치의 분리. 인간의 경제적 효용이 낮아질수록 교회는 “생산성이 곧 가치가 아니다”라는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곱째, 감시와 자유.** AI 가 인간을 이해하는 기술에서 평가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기술로 발전할 때 양심과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덟째, 전쟁의 자동화.**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판단에서 인간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도록 어떤 윤리를 말할 것인가.

⁶⁶UNCTAD, Technology and Innovation Report 2025: Inclusive Artificial Intelligence for Development (Geneva: UNCTAD, 2025).

아홉째, 창조세계의 비용. AI 는 “클라우드”처럼 보이지만 거대한 전력과 물과 광물과 데이터센터를 요구한다. 여기서 유대교의 **발 타쉬히트(בל תשחית)**가 말을 건다. 전쟁 중에도 과일나무를 베지 말라는 명령(신 20:19)에서 유래한 이 원리는 필요 없는 파괴의 금지를 창조세계 윤리의 뿌리로 삼는다.⁶⁷ **열째, 복음의 상품화.** AI 로 기독교 콘텐츠를 무한 생산하면서 조회수와 참여도와 규모를 영적 열매로 착각하지 않는다.

4. AI 식민주의

여기에 선교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음이 더해진다. 과거 선교는 때때로 복음과 함께 서구의 언어와 문화와 교육과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가져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AI 시대에는 새로운 질문이 생긴다.

누구의 언어로 모델이 훈련되는가. 누구의 문화가 정상으로 간주되는가. 누구의 윤리가 모델에 들어가는가. 어떤 언어는 풍부하게 표현되고 어떤 소수언어는 빈약하게 표현되는가. 누가 서버를 소유하는가. 누가 데이터를 가져가는가.

그러므로 선교사는 과거의 문화제국주의를 반성했던 것처럼 미래에는 **알고리즘 제국주의(Algorithmic Imperialism)**도 분별해야 한다. 특히 가난한 지역의 설교와 사진과 간증과 언어와 문화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해 선진국 서버에 저장하면서 정작 현지 교회는 그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없다면, 선교적 선의 아래 디지털 종속이 만들어진다.

5. 역량과 성품의 격차

본서는 이 장의 결론으로 하나의 개념을 제안한다. **제자도의 격차(The Discipleship Gap)**다.

⁶⁷ 신명기 20:19-20 에서 유래한 “발 타쉬히트(파괴하지 말라)” 원리는 랍비 전통에서 무용한 낭비와 파괴 일반에 대한 금지로 확장되었다. 이 원리는 현대 유대교 환경윤리의 핵심 근거로 널리 인용된다.

AI의 속도는 지수적(exponential)이다. 기술은 몇 달 만에 바뀐다. 그러나 제자훈련의 속도는 형성적(formational)이다. 인격은 몇 년에 걸쳐 형성된다. 그리고 지혜의 속도는 평생에 걸친다. 그러므로 앞으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역량과 성품의 격차(The Capability-Character Gap)**다. 인간이 가진 기술적 능력은 급속히 커지는데 그것을 통제할 성품과 지혜와 윤리와 영성은 같은 속도로 자라지 않는다.

인류의 가장 큰 위험은 AI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것만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성품을 앞질러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가 요구하는 것이 향상(Upskilling)과 재훈련(Reskilling)이라면, 교회는 여기에 세 번째를 더해야 한다. **깊은 형성(Deep Formation)**이다. 세상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가르친다.

제 4 부

길 위의 교회

The Church on the Way

제 15 장

세 우상 — Power · Performance · Control

AI 시대 교회가 범할 위험은 “AI 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 기독교 선교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반성해 온 문화적 우월주의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훨씬 강력한 도구를 입고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AI 가 과거의 잘못된 선교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본서는 이를 스무 가지 퇴행으로 정리한 뒤 세 우상 아래 묶는다.

1. 첫째 우상 — POWER

문화적 우월주의(Cultural Supremacism). 대형 AI 모델은 모든 문화와 언어를 동일한 밀도로 학습하지 않는다. 영어권과 디지털 자료가 풍부한 문화가 훨씬 많이 대표된다. 따라서 AI 가 제시하는 “보편적인 답”이 실제로는 특정 언어권과 문화의 지식구조를 보편화한 것일 수 있다. 선교사가 현지인에게 묻기보다 AI 에게 그 문화를 물어보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AI 가 문화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문화 안에서 살아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AI 가 생성한 상황화는 진정한 상황화가 아니다.

디지털 식민주의(Digital Colonialism). 과거 식민주의에서 강대국이 토지와 자원과 노동을 지배했다면, AI 시대의 자원은 데이터와 컴퓨트와 모델과 플랫폼과 네트워크다. **알고리즘적 제국주의(Algorithmic Imperialism).** 과거 제국은 법과 군대로 규칙을 정했으나 이제 알고리즘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감추며 무엇을 추천할지를 결정한다. 교회마저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설교 제목과 길이와 썸네일과 감정과 논쟁거리를 바꾸기 시작하면 물어야

한다 — 우리가 알고리즘을 형성하고 있는가, 알고리즘이 우리가 제시하는 복음을 형성하고 있는가.

여기에 세 가지가 더해진다. **빅테크 숭배** — 그러나 컴퓨터 권력이 도덕적 권위는 아니다(Compute Power ≠ Moral Authority). **AI 콘스탄티주의** — 교회가 강한 국가와 정치권력과 거대기업과 AI 플랫폼과 가까워짐으로써 영향력을 얻으려 한다면 4 세기의 유혹이 디지털 형태로 돌아온다. 권력에 접근한다고 예언자적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Access to Power ≠ Prophetic Authority). 나단이 다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삼하 12 장). **컴퓨터 계급주의** — 그러므로 교회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누가 뒤에 남겨지고 있는가(Who is being left behind?).

2. 둘째 우상 — PERFORMANCE

경제적 우선주의. AI 도입의 평가 기준이 계속 “얼마를 절약했는가, 몇 명을 줄였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투자수익률은 얼마인가”가 된다면 교회도 그 언어에 물들 수 있다. 교회가 선교사를 평가할 때도 후원금과 교인 수와 세례자 수와 조회수와 콘텐츠 생산량만으로 판단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시장 가치가 아니다(Kingdom Value ≠ Market Value)**.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귀할 수 있다.

생산성 극대주의. “더 빠르게 → 더 많이 → 더 싸게 → 더 좋게”라는 등식이다. 그러나 목회와 선교에는 빨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애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회개에도, 제자훈련에도, 관계에도, 성품 형성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효율은 하나의 가치이지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Efficiency is a value. It is not the highest value)**. 예수님의 3 년 제자훈련은 현대 기업의 성과지표 관점에서 놀랄 만큼 비효율적이다.

규모 숭배(Scalability Idolatry). AI 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확장성이다. 한 번 만든 콘텐츠를 열 명에서 백만 명에게 거의 추가 비용 없이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에도 위험한 등식이 만들어진다 — 더 많은 도달이 더 많은 열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조회수 ≠ 제자 Follower ≠ Disciple Engagement ≠ Transformation
Virality ≠ Revival Scale ≠ Faithfulness

데이터주의(Dataism).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출석과 헌금과 조회수와 클릭과 체류시간과 반응은 모두 유용하다. 그러나 인간의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 믿음, 충성, 회개, 거룩, 사랑, 희생, 용서, 소망 — 은 쉽게 계량되지 않는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술관료주의. AI 전문가와 데이터 전문가와 플랫폼 운영자, 그리고 기술을 가진 대형교회와 기술이 없는 작은 교회 사이에 새로운 위계가 생긴다. 그 결과 성령의 은사보다 기술적 숙련도가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교회가 될 위험이 있다.

3. 셋째 우상 — CONTROL

인간의 데이터화. AI 시스템은 사람을 행동 패턴과 취향과 소비와 위치와 관계와 위험도와 생산성으로 읽는다. 그러나 교회까지 인간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면 제 3 강의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다. **사람은 데이터 프로파일 아니다(A Person ≠ A Data Profile).** 인간은 예측해야 할 객체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개인맞춤형 신앙. AI 는 나에게 꼭 맞는 설교와 찬양과 묵상과 성경공부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처음에는 매우 좋아 보인다. 그러나 신앙이 전부 나에게 맞춤화되면 문제가 생긴다. 교회는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과도 함께 예배하는 곳이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말씀도 듣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복음은 나의 선호를**

최적화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비주의적 기독교의 AI 판본이다.

편의주의의 기독교. 어려운 성경 본문은 요약으로, 긴 책은 개요로, 신학적 논쟁은 AI의 결론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에는 없애서는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어떤 마찰은 형성적이다(Some friction is formative).** 말쑥과 씨름하는 시간, 응답 없는 기도를 견디는 시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과정, 고난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인간을 형성한다.

지식주의(Informationism). AI는 삼위일체와 칭의와 종말론과 원어와 교회사를 몇 초 만에 설명한다. 그 결과 위험한 착각이 생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지 않다(Knowing about God ≠ Knowing God).** 정보가 신앙이 아니며 신학적 정답이 제자됨이 아니고 성경지식이 성숙 자체도 아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더해진다. **선교의 탈육체화** — 연결이 교제가 아니고 소통이 성육신이 아니다(Connection ≠ Communion, Communication ≠ Incarnation). **기술적 섭리론** — “AI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는 사고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은 선택이 아니고, 발전은 섭리가 아니며, 혁신은 구속이 아니다. 만약 “막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역사의 모든 폭력도 하나님의 뜻이 된다. **디지털 온정주의** — 선진국 교회가 AI를 이용해 현지 교회보다 더 빨리 설교와 교재와 번역과 전략을 만들어 “이것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보낼 수 있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현지 지도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실패하고 신학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빼앗을 수도 있다. **돕는 것이 통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Helping can become controlling).**

4. 가장 근본적인 위험 — Homo Deus의 유희

앞의 모든 문제는 한곳으로 모인다. 문화적 우월주의와 식민주의와 경제주의와 생산성주의와 데이터주의와 기술주의와 초지능주의와

트랜스휴머니즘 밑에는 오래된 인간의 욕망이 있다 —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질병을 극복하고, 노화를 극복하고, 마침내 죽음까지 극복하려는 욕망이다.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에서 인류의 다음 의제로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제시했을 때, 그는 이 욕망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관찰한 것이었다.⁶⁸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하다. 기독교가 AI를 사용하면서도 이 욕망을 비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편승한다면, 교회가 AI를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AI 문명의 욕망이 교회를 세속화하는 것이다.

AI did not invent these idols. AI can amplify them.

AI가 새로운 원죄를 만든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오래전부터 있던 욕망을 전에 없던 규모와 속도와 정밀도로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다.

⁶⁸Yuval Noah Harari,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London: Harvill Secker, 2016). 하라리의 서술은 규범적 제안이라기보다 진단에 가까우나, 본서는 그 진단이 가리키는 욕망 자체를 신학적으로 문제 삼는다.

제 16 장

대항 형성 — 다른 종류의 인간을 만드는 교회

그러므로 교회의 대답은 단순히 “AI 를 잘 사용합시다”가 될 수 없다. 문명이 형성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사람을 형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본서는 이것을 대항 형성(counter-formation)이라 부른다.

1. 아홉 개의 대조

세 우상과 그에 대응하는 교회의 형성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다.

권력(Power) → 섬김(Servanthood).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막 10:43). 성과(Performance) → 은혜(Grace). 성과는 얻는 것이고 은혜는 받는 것이다. 통제(Control) → 신뢰와 내어드림(Trust & Surrender).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원형이다. 규모(Scale) → 신실함(Faithfulness).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마 25:21).

효율(Efficiency) → 사랑(Love).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효율적이지 않았다. 데이터(Data) → 인격(Personhood). 하나님은 사람을 범주가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신다. 가상(Virtuality) → 성육신(Incarnation).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기술적 교만(Technological Pride) → 피조물임(Creatureliness).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며 그것은 죄가 아니라 본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omo Deus → Imago Dei.

세상이 능력을 형성한다면, 교회는 성품을 형성한다.

세상이 속도를 가르친다면, 교회는 인내를 가르친다.

2. 유대교의 지혜가 주는 네 가지 해법

여기서 유대교의 오래된 전통이 놀랍도록 현대적인 자원을 제공한다. 네 개의 히브리어 개념이 그것이다.

샤바트(שַׁבָּת) — **안식.**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은 안식일을 “시간 속에 세워진 성전”이라 불렀다. 공간을 정복하는 문명에 맞서 유대교는 시간을 성화한다는 것이다.⁶⁹ 생산하지 않는 날에도 인간은 인간이다.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이 종과 나그네와 짐승까지 쉬게 하라고 명한 것(신 5:14)은 안식이 강자의 여유가 아니라 약자의 보호임을 보여준다.

하브루타(חֲבֵרָה) — **논쟁하는 학습.** 짝을 지어 질문하고 반론하며 씩씩한다. 탈무드는 결론이 아니라 논쟁의 기록이며 소수 의견까지 보존한다. AI 가 즉답을 주는 시대에 마찰이 학습의 방법이 되는 전통이다.

피쿠아흐 네페시(פיקוח נפש) — **생명 보존.** 생명을 구하는 일이 거의 모든 계명에 우선한다는 원리다. 그 신학적 근거가 미쉬나 산헤드린 4 장 5 절에 있다 — 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온 세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온 세계를 살리는 것과 같다.⁷⁰ 효율보다 한 사람이 앞선다는 원리는 AI 시대의 최적화 논리에 대한 근본적 저항이다.

발 타쉬히트(בל תשחית) — **파괴하지 말라.** 전쟁 중에도 과일나무를 베지 말라는 명령(신 20:19)에서 유래한 이 원리는 필요 없는 파괴의 금지를 창조세계 윤리의 뿌리로 삼는다. AI 의 에너지와 물과 광물의 비용을 묻게 하는 전통이다.

네 전통의 공통점을 보라. 모두 “속도와 효율에 저항하는 제도”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AI 문명이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하시디즘 전통의 한 가르침을 덧붙인다. 랍비 시므하 부님은 사람이 두 개의 주머니를 갖고 다녀야 한다고 가르쳤다 — 한 주머니에는 “세상은

⁶⁹ Abraham Joshua Heschel, The Sabbath: Its Meaning for Modern Man (New York: Farrar, Straus and Young, 1951). 헤셸은 유대교를 “시간의 종교”로 규정하고 안식일을 “시간 안의 궁전(a palace in time)”이라 불렀다.

⁷⁰ Mishnah Sanhedrin 4:5. 사본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한 생명”과 “한 생명”의 독법 차이가 있다. 랍비들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기원과 창조의 방식에서 존엄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다른 주머니에는 “나는 흙이요 재니라”.⁷¹ 기계 앞에서 초라해질 때는 첫 번째를, 기계를 만들며 스스로 창조주가 된 듯한 때는 두 번째를 꺼내야 한다.

4. 형성의 신학 — 다섯 전통과의 대화

대항 형성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자기 시대의 지배적 형성에 맞서 다른 형성을 제공하는 공동체였다. 다섯 전통을 차례로 만나 보자.

아우구스티누스 — 사랑의 질서(ordō amoris).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인간의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순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 덕이란 “사랑의 올바른 질서”이며, 죄란 낮은 것을 높은 것보다 더 사랑하는 무질서다.⁷² 이 통찰이 AI 시대에 결정적이다. 문제는 **효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을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항 형성은 가치의 목록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순서를 바로잡는 일이다.

베네딕도 — 규칙과 리듬. 「베네딕도 규칙서」는 공동체의 하루를 기도와 노동과 독서와 식사와 침묵으로 배분한다. 그 핵심 원리가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이며, 규칙서는 노동을 영성에서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기도의 시간이 노동에 침식되지 않도록 시간을 구조화한다.⁷³ 여기서 배울 것은 규칙의 내용이 아니라 **구조화된 시간**이

⁷¹하시디즘 전통에서 랍비 시므하 부님(Simcha Bunim of Peshischa, 1765–1827)의 것으로 전해지는 가르침. 두 쪽지의 문구는 각각 미쉬나 산헤드린 4:5와 창세기 18:27에서 왔다. 구전 전승이므로 원전 확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⁷²Augustine, De Civitate Dei XV.22; De Doctrina Christiana I.27–28.

아우구스티누스의 ordō amoris 개념은 uti(사용)와 frui(향유)의 구별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 향유해야 할 것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향유하는 것이 무질서다.

⁷³Regula Sancti Benedicti (6세기). 특히 제 8–20장의 시과(時課) 규정과 제 48장의 노동과 독서 규정 참조. 알래스테어 매킨타이어가 「덕의 상실」 마지막 문단에서 “또 다른,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매우 다른 베네딕도”를 기다린다고 쓴 것은 이 형성 공동체 모델의 현대적 의의를 지적한 것이다.

사람을 형성한다는 원리다. 알고리즘이 하루의 리듬을 결정하는 시대에 교회가 다른 리듬을 제공할 수 있는가.

본회퍼 — 함께 있음과 홀로 있음.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이 홀로 있을 수 없고 함께 있을 수도 없다고 썼다. 홀로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서로를 지킨다는 것이다.⁷⁴ AI는 이 둘 사이의 세 번째 자리를 제안한다. **혼자도 아니고 함께도 아닌 상태 — 응답은 있으나 현존은 없는 상태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고독의 훈련과 공동체의 훈련을 동시에 약화시킨다.

하우어워스 — 교회는 사회윤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윤리다.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교회가 사회에 대해 윤리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대안적 사회 형태라고 논증했다. 교회의 첫 번째 과제는 세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이다.**⁷⁵ 이 입장에는 비판도 있다. 교회가 세상에서 물러나 자기 공동체만 돌보는 종파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서는 이 비판을 인정하며, 그러므로 제 14 장의 공공신학과 본 장의 대항 형성을 함께 붙든다. **교회는 세상에 말하기 위해 먼저 교회여야 하고, 교회이기 위해 세상에 말해야 한다.**

제임스 스미스 — 예전이 욕망을 형성한다. 스미스는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나 “믿는 존재”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사랑의 방향은 논증이 아니라 반복되는 실천, 곧 예전(liturgy)에 의해 형성된다고 논증했다. 그리고 그는 쇼펩몰과 스타디움과 대학에도 각각의 “세속 예전”이 있어 우리의 욕망을 특정 방향으로 빚어낸다고

⁷⁴Dietrich Bonhoeffer, *Gemeinsames Leben* (1939); 영역 *Life Together*, trans. John W. Doberstein (New York: Harper & Row, 1954). 본회퍼는 “공동체 없는 고독”과 “고독 없는 공동체”를 모두 경계했다.

⁷⁵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Stanley Hauerwas and William H. Willimon, *Resident Alie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하우어워스의 “교회는 사회윤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윤리다”라는 명제는 널리 인용되나, 그의 접근이 종파주의적 후퇴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분석했다.⁷⁶ 이 분석을 AI에 적용하면 결정적인 물음이 나온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하루 수백 번의 동작은 어떤 예전인가. 그것은 우리를 무엇을 사랑하도록 형성하고 있는가.

5. 대항 형성의 네 가지 실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서는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네 가지를 재발견할 것을 제안한다. 새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래된 실천이다.

첫째, 안식(Sabbath). 헤셀이 “시간 속에 세워진 성전”이라 부른 그 제도다. 안식은 생산의 중단이 아니라 인간이 생산으로 규정되지 않음의 선언이다. 그리고 신명기의 안식일 계명이 종과 나그네와 짐승까지 쉬게 하라고 명한 것(신 5:14)은 안식이 강자의 여유가 아니라 약자의 보호임을 보여준다. AI 시대의 안식일은 알고리즘이 정한 리듬에 대한 저항이다.

둘째, 기도(Prayer). 기도는 산출을 내지 않는다. 측정되지 않고 최적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기도는 AI 문명이 이해할 수 없는 활동이다. 시몬 베유가 주의를 “가장 희귀하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라 부르며 학교 공부의 궁극적 목적조차 기도를 위한 주의력 훈련이라 본 것이 여기에 닿는다. 기도는 주의력의 훈련이며, 주의력은 사랑의 조건이다.

셋째, 성찬(Eucharist). 성찬은 정보가 아니라 물질이며, 받는 것은 몸이다. 그리고 성찬은 개인이 혼자 받을 수 없다. 함께 앗은 사람들과 함께 받는다. 성찬은 기독교가 몸의 종교이며 공동체의 종교임을 매주 선언하는 자리다. 가상현실이 확장될수록 떡과 잔의 물질성은 더 중요해진다.

⁷⁶James K. A. Smith,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Imagining the Kingdom* (2013); *Awaiting the King* (2017). 이른바 “문화적 예전” 삼부작.

넷째, 공동체(Community). 마찰을 건디는 관계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설교를 듣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다. 알고리즘은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 주지만 교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불일치가 인격을 형성한다.

6. 기계가 지능적일수록

이 모든 논의를 하나의 역설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본서는 이것이 이 책을 대표하는 문장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The more intelligent the machine becomes,
the more embodied the Church must become.

AI 가 설교문을 만들 수 있을수록 설교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해진다. AI 가 기도문을 만들 수 있을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진다. AI 가 신학적 답변을 할수록 신학적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중요해진다. AI 가 인간을 연결할수록 실제로 함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해진다. AI 가 가상현실을 확장할수록 성찬의 떡과 잔과 세례의 물과 안수하는 손이 중요해진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재발견이다. 교회는 잃어버린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다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재발견이야말로 AI 문명이 교회에 준 뜻밖의 선물일 수 있다.

3. 전환점의 질문

이 장의 결론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본서는 이것이 AI 시대 교회 논의 전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AI 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묻고 있다. 그러나 더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AI 와 함께 들어오는 문명의 가치 — 권력·속도·효율·규모·통제·생산성 —
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도구는 결코 홀로 오지 않는다. 도구는 언제나 그것을 낳은 가치와 함께 온다. 그러므로 교회는 도구를 도입하기 전에 그 도구가 데려오는 가치를 먼저 분별해야 한다.

제 17 장

길 위의 교회

이제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그 결론은 경고가 아니라 소망이어야 한다. AI 시대를 “교회가 큰일 났다”로 끝내면 그것은 기독교 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1. 일곱 개의 역전

오히려 이렇게 역전시켜야 한다. AI 가 정보를 값싸게 만든다면 지혜가 귀해진다. AI 가 콘텐츠를 넘치게 만든다면 진실성이 귀해진다. AI 가 가상 관계를 늘린다면 현존이 귀해진다. AI 가 효율을 높인다면 은혜가 독특해진다. AI 가 능력을 평가한다면 무조건적 인간 존엄의 복음이 선명해진다. AI 가 모든 질문에 답하려 한다면 궁극적 질문이 더 중요해진다. AI 가 죽음을 연장하려 한다면 부활의 복음이 다시 질문받는다.

AI may not make Christianity obsolete.

It may make Christianity's deepest claims newly visible.

2. ASI 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

가정해 보자. 초지능이 모든 인간보다 똑똑하다.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판단하고, 더 정확히 예측하고, 더 좋은 해법을 내놓는다. 그래도 질문은 남는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What ought we to love?).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What is worth dying for?).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Whom should we worship?). 용서란 무엇인가(What is forgiveness?). 죽음 너머의 소망은 무엇인가(What is hope beyond death?). 그리고 궁극적으로 — 누가 주님이신가(Who is Lord?).

이것은 계산적 우월성과 다른 차원의 질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인간이 가장 지능적인 종이기 때문이 아니다.** AGI 가 오든 ASI 가 오든 교회는 끝나지 않는다.

3. Human under God

제 3 장에서 우리는 네 단계를 보았다. 인간이 고리 안에 있는 상태(Human-in-the-loop), 감독하는 상태(Human-on-the-loop), 중단 권한을 보유한 상태(Human-over-the-loop), 그리고 최종 목적과 가치와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 상태(Human-in-Command)다. 그러나 기독교적으로는 한 단계가 더 있다.

HUMAN UNDER GOD

AI serves Human. Human serves God.

AI 가 인간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되고, 인간이 AI 를 통해 하나님이 되려 해서도 안 된다. 다만 이것을 지배의 계층도가 아니라 **책임의 방향**으로 이해해야 한다. 계층도로 읽으면 권위주의가 되지만 책임의 방향으로 읽으면 청지기직이 된다.

4. 교회는 길을 소유하지 않는다

프롤로그에서 시작한 이야기로 돌아간다. 초대교회는 기술적으로 강하지 않았다. 로마에는 도로와 제국과 군대와 행정망과 법률과 화폐가 있었고 교회에는 그것이 없었다. 교회에는 복음과 성령과 공동체와 증언과 희생과 소망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복음은 로마의 길을 따라 세계로 갔다.

오늘의 길은 광케이블과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와 위성과 AI 네트워크와 에이전트와 로봇이다. **길이 지성이 되었다.** 그러나 질문은 같다 — 그 길 위에서 누가 복음을 들고 갈 것인가.

The Church does not need to own the road to walk faithfully on it.

교회가 모든 GPU 를 소유할 필요는 없다. 모든 AI 회사를 운영할 필요도 없다. 최고의 모델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 로마의 길도 교회가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길 위로 복음이 갔다.

5. 마지막 선언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한다.

세계 기독교는 AI 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순진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AI 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AI 를 선교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자동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번역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러나 성육신적 현존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조회수를 영혼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AI 가 주는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을 더 많은 콘텐츠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랑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우리는 AI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적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는 그 시대를 해석해야 한다. 그 시대의 우상을 폭로해야 한다. 그 시대의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대가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에 복음으로 응답해야 한다.

길이 지성이 된 시대, 교회는 더 지능적인 교회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 진실한 교회, 더 거룩한 교회, 더 인간적인 교회,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 18 장

일곱 개의 변화 — AI 가 바꾸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환경이다

앞의 열일곱 장에서 우리는 AI 문명을 분별하고, 교회가 교회로 남는 법을 묻고, 선교의 재구성을 살폈다. 그런데 아직 정면으로 다루지 않은 물음이 하나 있다. **AI 가 바꾸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흔한 대답은 “기술이 바뀐다”이다. 그러나 이 대답은 정확하지 않다. **AI 가 바꾸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그 안에서 사는 인간이 바뀐다. 본 장은 교회가 반드시 보아야 할 일곱 가지 변화를 정리한다.

1. 정보 부족에서 의미 부족으로

첫 번째 변화가 가장 근본적이다. 인류사의 대부분에서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었다. 책은 비쌌고 학교는 드물었으며 지식은 소수의 것이었다. 그래서 근대의 기획은 정보를 늘리는 것이었다. 인쇄술, 공교육, 도서관, 백과사전, 인터넷.

그런데 지금은 **정보의 과잉** 상태다. 그리고 AI 는 그 과잉을 다시 몇 배로 늘린다. 이제 누구나 몇 초 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잘 정리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 — Scarcity of Information

현재 — Abundance of Information

미래 — Scarcity of Meaning

정보가 넘칠수록 오히려 희소해지는 것이 **의미**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는 정보의 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T. S. 엘리엇이 1934 년에 이미 물었듯 — 지식에서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정보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이 변화가 선교에 갖는 함의는 결정적이다. 20 세기 선교의 상당 부분은 복음 정보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성경을 번역하고, 라디오로 방송하고, 문서를 배포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그 정보가 이미 넘친다.

AI 시대의 선교 문제는 복음 정보를 어떻게 더 많이 전달할 것인가만이 아니다.

무한한 정보 가운데 무엇이 참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정보의 문제이기 전에 의미의 문제다. 그리고 의미는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이 통찰이 본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어진다.

2. 검색에서 답변으로, 답변에서 행동으로

두 번째 변화는 인간과 정보의 관계가 뒤바뀌는 것이다. 네 단계로 그럴 수 있다.

검색의 시대. 구글이 대표한다. 내가 찾고, 내가 고르고, 내가 판단한다. AI 는 후보를 늘어놓을 뿐이다. **생성의 시대.** AI 가 답한다. 후보가 아니라 결론을 준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는 대체로 보이지 않는다. **행위의 시대.** 에이전틱 AI 가 나를 대신하여 행동한다. 일정을 잡고, 예약하고, 문서를 만들고, 결제한다. 그리고 다음은 무엇인가. AI 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추천하는 단계다.

각 단계에서 인간의 개입이 한 겹씩 줄어든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적인 것이 바뀐다. **선택지를 구성하는 자가 사실상 선택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과제도 달라진다.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교회의 문제는 information 이 아니라 discernment 가 된다.** 무엇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능력, 곧 분별을 길러야 한다.

3. 지식에서 권위로

세 번째 변화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다. 권위의 자리가 이동하는 것이다.

어제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다 —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물음의 형태 자체가 권위의 위치를 보여준다. 본문이 권위의 자리에 있었고 사람은 그 앞에 섰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한다 — “ChatGPT 는 뭐라고 합니까?” 같은 궁금증이지만 향하는 곳이 다르다. 그리고 이 이동은 대개 의식되지 않는다. 아무도 “나는 이제 AI 를 권위로 삼겠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다만 편리해서 먼저 물어볼 뿐이다.

Who interprets reality for us?

누가 우리를 위해 현실을 해석하는가

여기서 흔한 오해를 짚어야 한다. 문제는 AI 가 틀린 답을 준다는 데 있지 않다. AI 는 점점 더 정확해질 것이다. 더 깊은 문제는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조차 AI 에게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질문을 형성하는 자가 답의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본서 제 3 장에서 다룬 “환경으로서의 AI”와 정확히 연결된다. 도구는 의식되지만 환경은 의식되지 않는다. 권위가 환경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권위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저 “원래 그런 것”이 된다.

4. 진실의 위기

네 번째 변화는 이미 널리 논의되고 있으나 대개 잘못된 층위에서 다루어진다. 딥페이크와 합성 미디어와 AI 설득과 환각과 개인화된 허위정보가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맞다. 스탠퍼드 「AI 인덱스 2026」은 책임 있는 AI 벤치마크가 실제 배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AI 관련 사고 기록이 2024 년 233 건에서 2025 년 362 건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의 증가가 아니다. 훨씬 위험한 것이 있다.

가짜가 흔해지면 진짜도 부인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거짓말쟁이의 배당(liar’s dividend)”이라 부른다. 증거가 있어도 “그건 딥페이크”라고 말하면 그만인 상황이다. 곧 문제는 거짓이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는 비용이 급등한 것**이며, 더 나아가 **진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알리바이가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새로운 과제가 생긴다. 디지털 문해력에서 AI 문해력으로, AI 문해력에서 **진실 문해력(Truth Literacy)**으로.

그리고 여기서 성경의 오래된 전통이 놀랍도록 현대적이 된다. 히브리 법정은 두세 증인을 요구했고(신 19:15), 십계명은 거짓 증언을 명시적으로 금했으며(출 20:16), 헬라어 **마르τυ스(μάρτυς)**—증인—에서 “순교자(martyr)”가 나왔다. 증언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일 1:1). **듣고, 보고, 만졌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목격 증언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AI 시대에 교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 가운데 하나는 뜻밖의 것이다. **서로를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 자체가 진실 검증의 인프라라는 것이다.** 딥페이크는 얼굴을 흉내 낼 수 있으나 30년을 함께 산 공동체의 기억은 흉내 낼 수 없다.

5. 관계의 위기

다섯 번째 변화는 가장 인격적이다. AI 동반자, AI 상담사, AI 교사, 그리고 — AI 목회자?

이 기술들이 왜 강력한지 정직하게 보아야 한다. **AI는 언제나 응답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지치지 않고,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다.** 새벽 세 시에도 답한다. 같은 이야기를 열 번 해도 짜증 내지 않는다. 내 말투와 관심사를 기억한다. 인간 관계에서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문제다. 실제 인간관계는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고, 판단하며, 지치고, 나에게 맞추지 않는다. 그리고 에마뉼엘 레비나스가 보여주었듯 타자의 얼굴은 나의 기대를 배반하고 나의 계획을 방해하며 나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저항이 나를 윤리적 주체로 세운다. **마찰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소비다.**

그러므로 물음이 남는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지 않고 AI 에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본서의 답은 이것이다. 교회가 잃는 것은 상담 건수가 아니라 **고백이 이루어지는 관계 자체**다. 고백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신뢰의 행위이며, 신뢰는 위험을 감수한 관계 안에서만 생긴다. AI 에게 고백하는 것은 위험이 없다. 그리고 위험이 없는 고백은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

6. 노동과 소명의 재정의

여섯 번째 변화는 본서 제 6 장의 인간론이 교회의 실천 윤리가 되는 지점이다. AI 가 사무 노동을 자동화하고 로봇이 육체 노동까지 담당할 때, 기독교의 **소명 신학(vocation theology)**이 다시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여기서 반드시 세워야 할 구별이 있다.

Work ≠ Employment 노동은 직업이 아니다

창세기 2 장의 노동은 타락 이전에 존재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창 2:15). **노동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명령이다.** 타락 이후 달라진 것은 노동의 존재가 아니라 노동의 조건이었다(창 3:17-19).

그러므로 직업이 사라져도 소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조심해야 한다. **소명을 직업과 동일시하면 실직은 곧 소명의 상실**이 되기 때문이다. 루터의 요점은 직업이 소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모든 자리가 소명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의 구별이 여기서 유용하다. 그녀는 **노동(labor)**과 **작업(work)**과 **행위(action)**를 구별했다. 노동은 생명 유지를 위한 순환적 활동이고, 작업은 지속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며, 행위는 타인 앞에서 말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AI 가 앞의 둘을 대신한다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행위다. 그리고 행위는 효율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 **Competence ≠ Worth. 능력은 가치가 아니다.** 실직한 사람도, 은퇴한 사람도, 아파서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여전히 온전한 인간이다.

7. 죽음과 구원의 경쟁 서사

일곱 번째 변화가 가장 신학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본서 제 4 장의 “바벨의 귀환”을 선교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기독교의 구원 서사는 네 단계로 되어 있다.

Creation → Fall → Redemption → Resurrection

그런데 오늘의 기술 문명은 다른 서사를 제시한다.

**Limitation → Enhancement → Longevity → Transhuman
→ Posthuman**

두 서사를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이 보인다. 둘 다 **현재의 결핍을 진단하고, 그 결핍의 극복을 약속하며, 최종적 완성을 그린다.** 다만 극복의 주체가 다르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기술이다.

로잔 운동의 AI·트랜스휴머니즘 자료도 기술이 새로운 형태의 구원(salvation)과 구속(redemption)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선교적 문제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 비판이 아니라 선교적 진단이다.

그러므로 본서는 이렇게 정식화한다.

**AI CIVILIZATION IS A COMPETING STORY OF THE
HUMAN FUTURE.**

AI 문명은 인간의 미래에 관한 하나의 경쟁하는 이야기다. 여기서 오해를 막아야 한다. 기독교와 AI가 싸운다는 뜻이 아니다. AI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AI를 둘러싼 인간의 구원 서사가 복음과 경쟁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선교는 언제나 경쟁하는 서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다. 로마의 황제 숭배와, 그리스의 철학과, 근대의 진보 신화와 경쟁했듯이.

8. 그러므로 교회의 두 가지 위험

일곱 변화를 종합하면 교회의 위험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 위험은 흔히 예상하는 것과 다르다.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AI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AI 시대가 왔는데도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본서 제 14 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인쇄술과 산업혁명과 인터넷 앞에서 번번이 늦었음을 보았다. 늦음은 겸손이 아니라 무책임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문장이 이어져야 한다.

두 번째 위험은 AI를 사용하다가 교회 자신이 AI처럼 되는 것이다.

효율, 속도, 성과, 최적화, 데이터. 이것들이 교회의 기준이 되는 순간이다. 본서 제 15 장에서 다룬 세 우상 — 권력과 성과와 통제 — 이 정확히 이 지점에서 작동한다.

그러므로 물음의 형태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How much AI should the Church use? → What kind of Church must we become?

앞의 물음은 도구의 물음이고 뒤의 물음은 정체성의 물음이다. 그리고 이 책의 나머지가 뒤의 물음에 답한다.

제 19 장

더 빨라질 것인가, 더 깊어질 것인가 — AI 시대의 인간 형성

앞 장이 진단이었다면 본 장은 처방이다. 그리고 처방의 첫 걸음은 뜻밖의 곳에서 시작한다.

1. 먼저, AI 를 거부하지 말라

교회가 기술 앞에서 취할 첫 자세는 정죄도 맹종도 아니다. 배우는 것이다.

알지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게으름이다. 그리고 알지 못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모함이다. 둘 다 분별이 아니다. 분별은 아는 데서 시작한다.

Use it. Learn it. Test it. But do not bow to it.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대화형 모델과 검색 보조와 번역과 연구 지원과 코딩과 교육과 행정과 성경공부 준비와 선교 연구와 언어 습득과 상황화 자료 조사가 모두 대상이다. 그리고 이 목록은 몇 달마다 바뀐다. 그러므로 특정 도구를 배우는 것보다 배우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AI 시대의 새로운 문해력

그런데 여기서 혼한 오류가 있다. 프롬프트를 잘 쓰는 법만 가르치는 것이다. 그것은 도구의 숙련이지 문해력이 아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은 여섯 겹이다. 읽기 문해력 — 긴 글을 끝까지 읽고 논증을 따라가는 능력. AI 문해력 —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서 실패하는지 아는 능력. 성경 문해력 — 본문을 문맥에서 읽는 능력. 역사 문해력 — 지금이 처음이 아님을 아는 능력. 시각 문해력 — 이미지와 영상이 무엇을 숨기는지 보는 능력. 도덕 문해력 —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이 여섯 위에 하나가 더 있다.

DISCERNMENT — 분별

“지혜 있는 자처럼 하여 세월을 아끼라”(엡 5:15-16)에서 “세월을 아끼라”로 번역된 헬라어 **엑사고라조메노이(ἐξαγοραζόμενοι)**는 “값을 치르고 사들이다”를 뜻한다. **시간은 저절로 남지 않는다. 값을 치러야 확보된다.** AI 가 시간을 절약해 준다면 그 절약된 시간을 무엇에 쓸 것인가가 곧 분별의 문제다.

3. AI 가 빨라질수록 인간은 느려져야 한다

여기서 본서는 하나의 역설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 장의 핵심 명제다.

AI 가 빨리 읽을수록 우리는 깊이 읽어야 한다.

AI 가 빨리 답할수록 우리는 오래 질문해야 한다.

AI 가 더 많이 기억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지 선택해야 한다.

왜 그런가. **빠름이 깊음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약은 읽기가 아니다. 답을 받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셋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속도의 문명에서 느림은 후퇴가 아니라 저항이다.** 다만 이것은 기술 거부가 아니다. AI 가 빠르게 처리해 주는 영역이 있고 인간이 느리게 머물러야 할 영역이 있다는 구별이다.

4. Ad Fontes — 근원으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의 구호 가운데 하나가 **아드 폰테스(Ad Fontes)**였다. “근원으로”라는 뜻이다. 스콜라적 주석의 층위를 걷어내고 원문으로 돌아가자는 인문주의의 구호를 개혁자들이 신학에 적용했다.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과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그 열매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AI 시대에 이 구호가 다시 살아난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역사와 문맥과 사본과 주석에 접근하는 비용이 인류 역사상 가장 낮아졌기 때문이다. 원어 성경의 형태 분석, 사본 이문의 비교, 고대 근동 배경 자료의 검색이 이제 몇 초 만에 가능하다.

종교개혁자들이 꿈꾸던 일이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신약을 편집하는 데 평생이 걸렸다. 오늘날 신학생은 그가 접근하지 못했던 사본 정보까지 즉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결정적 단서가 붙어야 한다.

AI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AI와 우리를 판단하게 하라.

도구가 본문에 접근하게 해 주는 것과 도구가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이 구별이 무너지는 지점이 미묘하다. **AI가 제시한 해석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본문이 아니라 모델을 읽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물음이 하나 더 남는다. 로마의 길이가 복음화를 예비했고, 구텐베르크의 인쇄가 종교개혁을 촉진했으며, 대항해 시대의 바닷길이며 해외 선교를 가능하게 했다면 — **AI는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가**. 본서는 이 물음에 확정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다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다. **길이 열렸을 때 그것을 알아본 세대가 있었고 알아보지 못한 세대가 있었다**.

5. 유대적 말씀 형성 전통에서 배우다

여기서 본서는 하나의 자료를 제안한다.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것을 기독교 교육법이라고 동일시하지 않고, **유대적 말씀 형성 전통에서 배우는 원리로 다룬다**.

셰마(שמע) — 듣고 반복하여 기억한다. 신명기 6 장의 “들으라 이스라엘아”는 명령형이며, 그 뒤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가 이어진다. **교육이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동행이라는 것이다.**

하가(הָגָה) — 읊조리고 묵상한다. 시편 1 편의 “주야로 묵상하는도다”가 이 낱말이며, 본래 “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를 뜻한다. **묵상이 조용한 사색이 아니라 소리 내어 되뇌는 몸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미드라시·데라시(מִדְרָשׁ) — 묻고 탐구하고 적용한다. 어근 다라시(דָּרַשׁ)는 “찾다, 구하다”를 뜻한다. **미쉬나(מִשְׁנָה)** — 반복되고 전승되는 가르침. 어근 샤나(שָׁנָה)가 “반복하다”이다. **게마라(גְּמָרָא)** — 질문과 논쟁과 해석의 축적.

여기서 배울 원리는 무엇인가. **탈무드는 하나의 결론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논쟁의 기록이며, 소수 의견까지 함께 보존한다.** 왜 그런가. 다수 의견이 뒤집힐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서다(m. Eduyot 1:5-6). 그리고 이 구조가 AI 시대에 갖는 의미가 크다. **AI는 즉시 정답을 준다. 그런데 이 전통은 정답을 미루고 논쟁을 축적한다.** 본서 제 16 장에서 다룬 하브루타(חֲבֵרֻתָא)—짝을 지어 묻고 반박하는 학습—도 같은 구조다.

마찰이 학습의 방해물이 아니라 학습의 방법이다.

6. AI 시대의 성경교육 — 하나의 도식

그러므로 본서는 AI 시대의 성경교육을 위한 하나의 도식을 제안한다. 여섯 단계의 순환이다.

MEMORIZE → MEDITATE → QUESTION → DIALOGUE
→ DISCERN → OBEY

암송한다. 검색할 수 있다는 것과 몸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다르다. 위기의 순간에 떠오르는 것은 검색 결과가 아니라 기억된 말씀이다. **묵상한다.** 빠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 되뇌며 머문다. **질문한다.** 본문에 묻고 자기에게 묻는다. **대화한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분별한다.** 여러 해석 가운데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진다. **순종한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완성이다.

그런데 이 도식에서 결정적인 것은 AI의 위치다.

AI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AI는 바깥의 조력자다.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AI는 자료를 찾고 배경을 설명하고 원어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암송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사람이 한다. 그리고 그 셋이 형성의 핵심이다.

7. 균형 있는 인간 — 누가복음 2:52

마지막으로 인간 형성의 목표를 성경에서 찾는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장을 이렇게 요약한다 —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여기에 네 차원이 있다. 지혜(wisdom) — 지적 성장. 키(stature) — 신체적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favor with God) — 영적 성장. 사람과의 관계(favor with people) — 사회적 성장. 네 차원이 함께 자란다는 것이 요점이다.

그런데 AI 시대의 위험은 이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Intelligence ↑↑↑↑ Wisdom ? Character ?
Relationship ? Spirituality ?

지능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나머지는 물음표로 남는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문명에도 그렇다. 그리고 균형이 깨진 성장은 성장이 아니라 기형이다.

그러므로 본서는 두 문장으로 이 장을 닫는다.

Super Intelligence requires Super Discernment.

Super Renaissance requires Super Reflection.

초지능은 초분별을 요구한다. 그리고 초르네상스는 초성찰을 요구한다. 능력이 커질수록 그 능력을 다룰 인격이 함께 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인격을 삼킨다.

제 20 장

두 개의 지도 — 다중심화하는 교회, 집중화하는 컴퓨트

본 장은 본서에서 선교학적으로 가장 독창적인 주장을 담는다. 그리고 그 주장은 두 개의 지도를 겹쳐 놓을 때 드러난다.

1. 기독교의 무게중심은 이미 이동했다

첫 번째 지도는 기독교의 지도다. 20 세기 후반의 선교학이 확인한 가장 큰 사실은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앤드루 월스가 보여주었듯 기독교는 역사 내내 중심을 옮겨 왔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북미로, 그리고 이제 남반구와 아시아로.

이 이동을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9-20 세기 — West → Rest. 서구가 보내고 나머지가 받았다. **20 세기 후반 —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남반구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AI 시대 — From Everywhere WITH Everywhere.** 모든 곳이 모든 곳과 함께.

마지막 단계에서 전치사가 바뀐 것이 핵심이다. **to** 에서 **with** 로. 단순히 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번역하고 협업하는 선교다. 그리고 이것은 AI 시대에 비로소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 나이로비의 목회자와 마닐라의 신학자와 상파울루의 선교사가 실시간 번역으로 같은 회의에 참여하는 일이 이제 일상이 된다.

From Mission Center to Mission Network

2. 그러나 AI 의 지도는 정반대다

그런데 두 번째 지도를 겹쳐 놓으면 놀라운 것이 보인다. **컴퓨트의 지도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스탠퍼드 「AI 인덱스 2026」은 미국이 5,427 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컴퓨트 공급망 역시 소수 기업과 지역에 크게 집중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세계은행은 고소득 국가가 세계 상위 500 대 슈퍼컴퓨터의 86%와 데이터센터 용량의 77%를 보유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 인구의 5% 미만만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므로 본서는 이렇게 정식화한다.

**The Church is becoming polycentric
while compute is becoming concentrated.**

교회는 다중심화되는데 컴퓨트는 집중화되고 있다.
이 대비가 왜 결정적인가. 두 지도가 어긋나면 다중심 교회가 집중된 컴퓨트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 교회가 자기 언어로 신학을 생산하되 그 도구는 캘리포니아의 서버 위에서 돌아간다면, 그 신학의 주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본서 제 13 장에서 다룬 알고리즘 식민주의가 여기서 구체적 형태를 얻는다.

3. 하나의 세계, 서로 다른 세기

이 격차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We live in the same year, but not in the same century.

우리는 같은 해에 살지만 같은 세기에 살지 않는다.
보스턴의 한 학생은 AI 에이전트에게 논문 초안을 맡긴다. 같은 시간에 아프리카 어느 마을의 학생은 해가 지면 공부를 멈춘다. 전기가 없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AGI 를 논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한다.

세계은행은 동·남부 아프리카에서 2023 년 인터넷 이용자가 인구의 24%에 불과했고, 그래서 디지털화 정책에서 전기와 인터넷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AI를 논하기 전에 전기를 논해야 하는 곳이 세계의 상당 부분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선교에 갖는 함의는 결정적이다. “AI 선교”라는 말이 장소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4. 두 개의 선교지, 두 개의 전략

그러므로 본서는 선교지를 두 유형으로 구별할 것을 제안한다.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컴퓨터 접근성에 따른 구분**이다. 그리고 같은 도시 안에도 두 유형이 공존할 수 있다.

컴퓨터 부국 선교(Compute-Rich Mission). 여기서 사람들이 겪는 것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다. 의미와 외로움과 정체성과 진실의 위기다. 그리고 AI 윤리, 일자리 대체, 트랜스휴머니즘, 디지털 제자훈련, 인간 형성이 실제 목회 의제가 된다. 이곳의 선교는 더 많은 콘텐츠가 아니라 더 깊은 형성을 요구한다.

컴퓨터 빈국 선교(Compute-Poor Mission).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물과 식량과 전기와 보건과 교육과 연결과 번역과 현지 리더십이다. 그리고 여기서 AI는 목적이 아니라 지렛대(leverage)가 되어야 한다. 작은 모델, 휴대전화, 오프라인 AI, 저자원 언어 번역, 농업 정보, 원격 의료, 교육 지원이 현지 필요와 연결될 때 의미가 생긴다.

그러므로 모든 선교사에게 챗 GPT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AI 선교가 아니다. 그것은 도구의 보급이지 선교 전략이 아니다.

5. AI는 선교의 격차를 줄일 것인가, 넓힐 것인가

여기서 본서는 정직한 물음을 던진다.

Will AI close the missionary gap — or widen it?

가능성 쪽을 먼저 보자. AI는 저자원 언어의 성경 번역을 극적으로 가속할 수 있다. 수십 년 걸리던 작업이 수년으로 줄 수 있다. 현지 교회가 자기 언어로 신학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오지의 신학생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강의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복음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 쪽도 보아야 한다. 컴퓨터 접근권이 있는 교회만 AI 능력을 독점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선교적 종속이 발생한다. 선진국 교회가 AI 로 현지보다 빨리 교재를 만들어 보내면 결과물은 남고 현지 지도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실패하고 신학하는 과정은 사라진다.

그래서 세 개의 물음이 남는다. 디지털 식민주의인가. 컴퓨터 식민주의인가. 알고리즘적 온정주의인가. 본서 제 13 장에서 다룬 “듣는 것이 통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가 여기서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서가 제안한 디지털 선교 동반관계의 네 원칙을 여기서 다시 회수한다.

현지 교회를 AI 의 소비자로 만들지 말고

소유자 · 판단자 · 생산자 · 공동설계자로 세워야 한다.

6. The New Antioch — 안디옥은 지명이 아니라 모델이다

그렇다면 다중심 선교의 구체적 형태는 무엇인가. 본서는 사도행전의 안디옥을 모델로 제안한다.

사도행전 11 장에서 13 장까지의 안디옥 교회를 보라. 그 교회에는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이 있었고(행 11:20), 지도자 명단에는 니게트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 다소 사람 사울이 함께 있었다(행 13:1).

이 명단이 놀랍다. 출신도 언어도 계층도 완전히 달랐다. 아프리카 출신과 지중해 출신과 왕실 근처에서 자란 사람과 바리새인 출신이 한 교회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행 13:2). 세계 선교가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었다.

그러므로 안디옥의 요소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다민족 · 다문화 · 다언어 · 예배 · 금식 · 성령의 인도 · 보냄**. 이 일곱이 안디옥을 안디옥이게 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지리적 조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는 **어디든 새로운 안디옥이 될 수 있다**. 보스턴, 마닐라, 서울, 라고스, 상파울루, 나이로비, 싱가포르. 그리고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특히 그렇다. 이미 여러 언어와 문화가 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본서는 결정적인 단서를 붙인다.

새로운 안디옥은 목적지가 아니다.

“길 위의 교회”가 취하는 하나의 선교적 형태다.

왜 이 구별이 중요한가. **안디옥을 목적지로 삼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심이 생기면 다시 주변이 생긴다. 안디옥의 위대함은 그것이 중심이 되었다는 데 있지 않고 **보냈다는 데 있다**. 안디옥은 사람을 붙잡지 않고 내보냈다.

제 21 장

현존이 희소해진다 — Presence Is the New Scarcity

본 장은 본서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를 담는다. 그리고 그 명제는 하나의 관찰에서 시작한다.

1. 교회는 처음부터 “길”이었다

먼저 오래된 이름 하나를 회복해야 한다. 초기 기독교의 가장 이른 자기 명칭 가운데 하나가 “길(*ἡ ὁδός*)”이었다.

“만일 이 도(道)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행 9:2)
사도행전은 이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한다(행 19:9, 23; 22:4; 24:14, 22).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에서 나중에 붙었고(행 11:26),
그전에 그들은 스스로를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불렀다.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교회는 처음부터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길 위의 공동체였다.**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미약했으며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 그런데 움직였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다.

2. 모든 문명은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본서 제 1 장의 문명론이 결론에 이른다. 기독교사를 길의 역사로 다시 읽어 보자.

로마의 돌길. 비아 아피아와 제국의 도로망과 항구와 로마 시민권과 코이네 헬라어와 팍스 로마나. 바울은 그 길을 걸었고 그 시민권을 사용했으며 그 언어로 편지를 썼다. **구텐베르크의 인쇄.** 종교개혁은 인쇄술 없이 설명되지 않는다. 루터의 95 개조가 몇 주 만에 유럽 전역에 퍼졌다. **대항해의 바닷길.** 근대 선교운동이 그 길을 따라갔다. **철도와 전파.** 19 세기 선교는 증기선과 전신을, 20 세기 선교는 라디오와 항공을 사용했다. **인터넷.** 그리고 지난 30 년.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길이 열린다.

로마가 도로 길을 만들었다면, AI 문명은 지성으로 길을 만든다.

광섬유와 위성과 클라우드와 모델과 번역과 에이전트가 그 길의 재료다. 그리고 이 길은 앞의 다섯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앞의 길들은 사람과 물건과 신호를 날렸지만 이 길은 판단을 나른다.

3. 그러나 길이 복음은 아니다

여기서 반드시 신학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Roman Road ≠ Gospel Printing Press ≠ Gospel

Internet ≠ Gospel AI ≠ Gospel

길은 복음이 아니다. 로마의 도로가 복음을 만들지 않았고 인쇄기가 종교개혁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들을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자세가 결정된다. 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길을 숭배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 길 위에서 복음을 산다. 본서 제 2 장에서 세운 “두 극단을 거부한다”가 여기서 실천적 형태를 얻는다.

4. 성육신 — AI 가 대체할 수 없는 선교

그렇다면 AI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교 방법은 무엇인가. 본서의 답은 하나다.

INCARNATION — 성육신

AI 는 말을 생성할 수 있다. 설교문도, 기도문도, 위로의 문장도, 수백 언어의 복음 설명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점점 더 잘 만들 것이다. 그런데 복음은 처음부터 정보의 전송이 아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 1:14)

여기서 “거하시매”로 번역된 헬라어 에스케노센(ἐσκήνωσεν)은 “장막을 치셨다”를 뜻한다. 어근이 스케네(σκήνη), 곧 장막이다.

출애굽기의 성막이 배경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사셨듯 말씀이 인간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이다.

이 낱말이 결정적이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다. 오셔서 함께 사셨다. 30 년을 목수로 살았고, 걸어 다녔으며, 배고팠고, 울었고,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Christianity is not merely transmitted information.

The Gospel became flesh.

5. 무엇이 풍요로워지고 무엇이 희소해지는가

그리고 여기서 본서의 핵심 명제에 이른다. AI 는 희소했던 것을 풍요롭게 만든다.

풍요로워지는 것. 지식, 번역, 콘텐츠, 이미지, 답변, 속도. 이 모두가 사실상 무한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일이다. **저자원 언어의 성경 번역이 가속되고 오지의 신학생이 세계적 강의에 접근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희소해지는 것**이 있다.

주의력. 무한한 콘텐츠 앞에서 한 가지에 오래 머무는 능력이 희귀해진다. **신뢰.** 무엇이든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 믿을 수 있는 것이 희귀해진다. **의미.** 답이 넘칠수록 왜 사는지는 더 불분명해진다. **지혜.** 정보의 양이 판단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인간관계.** 마찰 없는 AI 동반자가 있을 때 마찰 있는 인간관계는 선택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PRESENCE — 현존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울어주는 것. 손을 잡는 것. 밥을 먹는 것. 병자를 찾아가는 것. 가난한 사람 곁에 서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이 모두가 AI 가 대체할 수 없으며, 그렇기에 점점 더 희소해진다.**

그러므로 본서는 이렇게 정식화한다.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embodied presence becomes missionary capital.

AI 시대에 몸으로 함께 있음이 선교의 자본이 된다.
이것이 왜 선교학적으로 중요한가. 20 세기 선교의 자산은 자원과
인력과 조직과 콘텐츠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AI 가 대신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가. 남는 것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 장 14 절과 놀랍게 연결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보를 전송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신학의 교리이기 전에
선교의 방법이다.

6. 교회는 더 인간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본서의 주장은 기술 거부가 아니다.

Not Anti-AI. 교회는 기술을 정죄하지 않는다. Not AI-Church. 그러나
기술이 교회를 규정하지도 않는다. 본서가 제안하는 것은 세 번째다.

AI-enabled, Spirit-led, Human-embodied Church

AI 를 사용하되, 성령이 이끄시고, 사람의 몸으로 살아내는 교회
세 형용사의 순서가 중요하다. AI 는 가능하게 하는 것(enabled)이지
이끄는 것이 아니다. 이끄는 것은 성령(Spirit-led)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몸으로 살아내는 것(human-embodied)이다.

기계가 지능적일수록 교회는 더 깊이 몸이 되어야 한다.

7. 결코 위임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그러므로 매우 실천적인 구별이 필요하다. AI 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고
무엇을 맡길 수 없는가. 본서는 세 가지를 결코 위임할 수 없는 것(Non-
Negotiables)으로 제시한다.

첫째, 현존(Presence). AI가 정보를 전할 수 있으나 곁에 있어 줄 수는 없다. 임종의 자리에 필요한 것은 정확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손을 잡은 사람이다.

둘째, 책임(Responsibility). 일을 위임할 수 있으나 도덕적 책임을 위임할 수는 없다. “AI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은 결코 면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위임(delegation)과 이양(abdication)을 구별해야 한다. 청지기 비유가 가르치듯 맡긴 자도 맡긴 것에 대해 책임진다(눅 16:1-2).

셋째, 예배(Worship). AI가 예배문을 만들 수 있으나 예배자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구별이 가장 근본적이다. **예배는 산출물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셋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된다.

AI가 사랑의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의 언어와 사랑하는 존재는 같지 않다.

8. “길 위의 교회” 일곱 선언

그러므로 본서는 일곱 개의 선언으로 결론을 삼는다. 각 교회와 선교단체가 자기 언어로 다시 쓸 수 있는 골격이다.

① **우리는 AI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 Understand.** 알지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배우고 사용하고 시험한다.

② **우리는 AI를 숭배하지 않는다 — Discern.** 능력이 커진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분별하며 사용한다.

③ **우리는 말씀으로 더 깊이 돌아간다 — Ad Fontes.** AI가 원어와 사본과 배경에 접근하게 해 준 만큼 우리는 더 깊이 본문으로 간다. 그러나 말씀이 AI와 우리를 판단하게 한다.

④ **우리는 인간을 더 온전하게 형성한다 — Formation.** 지능만 자라고 지혜와 인격과 관계와 영성이 물음표로 남는 성장을 거부한다.

⑤ 우리는 컴퓨터 빈국을 버리지 않는다 — Justice. 다중심화하는 교회가 집중화하는 컴퓨터에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는 현지 교회를 소유자와 생산자로 세운다.

⑥ 우리는 모든 곳을 안디옥으로 연결한다 — Polycentric Mission. 중심에서 주변으로가 아니라 모든 곳이 모든 곳과 함께 간다.

⑦ 우리는 길 위에서 육신이 된 복음을 살아낸다 — Incarnation.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거한다.

9. WORD — WAY — PRESENCE

마지막으로 본서 제 4 권 전체를 세 낱말로 압축한다.

WORD — WAY — PRESENCE

말씀으로 돌아가고, 길 위로 나가며, 사람 가운데 거하는
교회

여기에 새로운 안디옥과 다중심 선교와 디아스포라 교회와 AI 활용과 컴퓨터 빈국 선교가 모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셋의 순서에는 논리가 있다. 말씀 없이 길을 나서면 방황이 되고, 길에 나서지 않는 말씀은 관념이 되며, 현존 없는 길은 통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본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닫는다.

AI가 길이 되는 시대에 교회는 다시 길 위에 서야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14:6)

우리의 길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한 분이다. 로마가 길을 만들었을 때 교회는 그 길을 따라 복음을 들고 갔다. 인쇄술이 지식을 열었을 때 교회는 성경을 들고 그 길로 들어갔다. 바다가 길이 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배를 타고 그 길을 건넜다. 이제 길 자체가 지성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길이 아무리 바뀌어도 복음은 바뀌지 않는다.

제 22 장

그 길(ἡ ὁδός)과 할라카 — 걷는 신앙의 히브리적 뿌리

앞 장에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자기 명칭이 “그 길”이었음을 보았다. 본 장은 그 명칭의 언어적·신학적 뿌리를 학문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그것이 AI 시대에 갖는 함의를 밝힌다.

1. 언어적 사실 — 할라크와 페리파테오

히브리어 할라카(הלכה)는 어근 할라크(הלך, 걷다)에서 나온 명사로 문자적으로 “걸어가는 방식”을 뜻한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호도스(ἡ ὁδός)는 “길”이며, 그 동사형 페리파테오(περιπατέω, 걷다)가 바울 서신에서 “행하다”로 번역되는 바로 그 낱말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언어적 연결이 성립한다. 히브리어 할라크의 그리스어 대응이 페리파테오이고, 칠십인역이 실제로 그렇게 옮긴다. 그러므로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갈 5:16)고 할 때, 그는 히브리적 걷기의 언어를 그리스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 ▶ 할라크(הלך)의 의미 범위에 관하여는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해당 항목 참조.
칠십인역의 번역 관행에 관하여는 Takamitsu Muraoka, *A Greek-Hebrew/Aramaic Two-way Index to the Septuagint* (Leuven: Peeters, 2010)를 보라. περιπατέω의 신약 용례와 그 히브리적 배경에 관하여는 Gerhard Kittel and Gerhard Friedrich,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5, s.v. "περιπατέω" 참조.

2. 시대착오를 피한다

그러나 여기서 학문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랍비 유대교의 체계화된 할라카는 미쉬나(200 년경) 이후에 확립된 것이며, 1 세기에는 그 용어가 후대적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길이 곧 랍비 할라카였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표현은 이것이다.

사도행전의 “그 길”은 랍비 할라카를 가리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둘은 같은 히브리적 사유 구조에서 나왔다 —

신앙은 명제가 아니라 걷는 방식이라는 구조다.

- ▶ 제 2 성전기 유대교와 랍비 유대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한 논의로는 Shaye J. D. Cohen, *From the Maccabees to the Mishnah*, 3r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4); E. P. Sanders, *Judaism: Practice and Belief*, 63 BCE–66 CE (London: SCM, 1992) 참조. 랍비 문헌을 1 세기 배경으로 사용할 때의 방법론적 문제는 Jacob Neusner 의 여러 저작이 반복해 제기해 왔다.

3. 성경적 뿌리 — 데레크와 할라크

이 사유 구조는 랍비 시대보다 훨씬 이르게 성경 안에 있다. 신명기가 그 원천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도(דֶרֶךְ)로 행하며(הָלַךְ)” (신 10:12)
데레크(דֶרֶךְ)가 길이고 할라크가 걷는 것이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길로 행하라”(신 5:33)도 같은 구조다. 그리고 시편 1 편이 이 구조 위에
서 있다 —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הָלַךְ) 아니하며.”

그리고 쿰란 공동체는 이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완전한 길을 걷는 자들”이라 불렀고, 이사야 40 장 3 절의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를 공동체 강령의 근거로 삼았다. 사도행전이 “그
길”이라는 자칭을 쓴 것은 바로 이 유대적 배경 안에 있다.

- ▶ 공동체 규칙(1QS) VIII, 12–16 에서 이사야 40:3 의 사용을 보라. 쿰란 공동체의 자기 이해와 “길” 은유에 관하여는 Geza Vermes, *The Complete Dead Sea Scrolls in English*, rev. ed. (London: Penguin, 2004); George J. Brooke,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Minneapolis: Fortress, 2005) 참조. 사도행전의 “그 길” 자칭과 쿰란의 연관에 관한 논의는 Craig S. Keener, *Acts: An Exegetical Commentary*, vol. 2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1627–1630 에 정리되어 있다.

사도행전은 이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한다 — 행 9:2, 19:9, 19:23, 22:4, 24:14, 24:22.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에서 나중에

불었고(행 11:26), 그전에 그들은 스스로를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불렀다.

4. 사복음서의 율법 — 예수의 걷는 방식

여기서 신약학의 중요한 전환이 있다. 20 세기 후반 이후의 주류 연구는 예수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걷는 방식을 가르치셨다고 본다.

산상수훈이 결정적 증거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마 5:17) 다음에 오는 여섯 번의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랍비 논쟁의 형식 그 자체다. 예수는 율법 바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해석의 논쟁 안에서 더 깊은 요구를 제시하신다. 살인에서 분노로, 간음에서 시선으로 — 요구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심화한 것이다.

▶ 이 관점의 대표적 연구로는 E. P. Sanders, *Jesus and Judaism* (Philadelphia: Fortress, 1985); James D. G. Dunn, *Jesus Remembered* (Grand Rapids: Eerdmans, 2003); Amy-Jill Levine, *The Misunderstood Jew: The Church and the Scandal of the Jewish Jesus* (San Francisco: HarperOne, 2006) 참조. 유대인 학자의 관점으로는 David Flusser, *Jesus*, 3rd ed. (Jerusalem: Magnes Press, 2001)도 중요하다.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막 2:27)는 안식일 폐지 선언이 아니라 걷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다. 생명이 걸린 일이 안식일 규정에 우선한다는 원리는 랍비 전통에도 있다 — 피쿠아흐 네페시(פיקוּחַ נַפֶּשׁ, 생명 구조의 우선).

▶ b. Yoma 85b 의 논의를 보라. 생명 구조가 안식일 규정에 우선한다는 원리는 랍비 문헌에서 여러 근거로 도출된다. 예수의 안식일 논쟁을 유대적 논쟁의 맥락에서 읽는 시도로는 Lutz Doering, *Sabbat: Sabbathalacha und -praxis im antiken Judentum und Urchristentum* (Tübingen: Mohr Siebeck, 1999) 참조.

그러므로 본서의 논지는 이렇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는 토라를 걷는 방식을 두고 다투신 것이지 토라 자체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다툼의 대상은 “어떻게 걸을 것인가”였다.

5. 바울의 율법 — 여기서 정직해야 한다

바울은 훨씬 복잡하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오해를 모두 피해야 한다. 낡은 도식은 이것이었다 — “유대교는 행위 구원, 바울은 은혜 구원.” E. P. 샌더스의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1977)가 이 도식을 무너뜨렸다. 그는 1세기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covenantal nomism)로 규정했다.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이고 율법 준수는 언약 안에 머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 ▶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 (Philadelphia: Fortress, 1977). 이 책은 20세기 신약학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킨 저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새 관점(New Perspective)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제임스 던과 N. T. 라이트는 바울이 반대한 “율법의 행위”가 공로 축적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경계 표지(할례·음식법·절기)였다고 본다.

- ▶ James D. G. Dunn, "The New Perspective on Paul," *Bulletin of the John Rylands Library* 65 (1983): 95–122; N. T. Wright,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2 vols. (Minneapolis: Fortress, 2013).

그러나 이 관점에도 비판이 있다. 사이먼 개더콜과 스티븐 웨스터홀름은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의 논증이 경계 표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본서는 어느 한쪽을 단정하지 않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정직하다고 본다.

- ▶ Simon J. Gathercole, *Where Is Boasting? Early Jewish Soteriology and Paul's Response in Romans 1–5* (Grand Rapids: Eerdmans, 2002); Stephen Westerholm, *Perspectives Old and New on Paul* (Grand Rapids: Eerdmans, 2004); John M. G. Barclay, *Paul and the Gift* (Grand Rapids: Eerdmans, 2015). 바클리는 은혜(χάρις)의 여섯 가지 "극대화" 양상을 구별함으로써 논쟁을 새로운 단계로 옮겼다.

6. 그런데 바울은 건기의 언어를 버리지 않았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실이 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면서도 건기의 언어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강화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περιπατεῖτε)”(갈 5:16).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περιπατήσωμεν)”(롬 6:4).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περιπατήσαι)”(엡 4:1).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περιπατεῖτε)”(엡 5:15). 네 곳 모두 할라크의 그리스어 대응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논지는 이렇게 정식화된다.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로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걷는다.

**걷는 방식이 바뀐 것이 아니라 걷게 하는 능력이 바뀌었다 —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구조다. 율법의 행위를 부정한 바로 그 서신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로 넘어간다. 그리고 로마서 8 장 4 절이 이를 압축한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니라”* (롬 8:4)

**바울은 율법의 요구를 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되는
자리를 옮겼다.**

7. 그리고 길에 이름이 붙는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온다. 초기 기독교가 스스로를 “그 길”이라 부른 것은 세 가지를 뜻한다.

첫째, 유대적 자기 이해였다. 그들은 새 종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참된 길을 걷는 이스라엘이라고 여겼다. 둘째, 정의가 아니라 방향이다. 교리 목록이 아니라 걸어가는 방식이다. 셋째, 그리고 결정적으로 — 그 길에 이름이 붙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 14:6)

이 선언은 앞의 모든 배경 위에서 폭발적이다. 걷는 방식이 인격이 된 것이다. 유대교에서 길은 걷는 방식이었으나, 여기서 길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으면서도 유대교가 아닌 지점이다.

8. AI 시대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고 이 논의가 본서의 논지와 정확히 맞물린다.

AI는 명제를 무한히 생산할 수 있다. 교리 요약, 주식 비교, 신학 논증, 설교문 초안 — 모두 가능하고 점점 더 잘할 것이다. 그러나 걷는 것은 생성되지 않는다.

할라카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며, 걷는 것은 몸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본서의 결론 — 현존이 희소해진다 — 이 여기서 신학적 뿌리를 얻는다.

정보는 전송된다. 그러나 길은 걸어야 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 절의 “거하시매”가 다시 읽힌다. 헬라어 에스케노센(ἐσκήνωσεν)은 “장막을 치셨다”이며 어근이 스케네(σκήνη), 곧 장막이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다. 오셔서 함께 사셨다. 곧 성육신은 신학의 교리이기 전에 걷는 방식이었다.

제 23 장

자주 받는 질문 — 강의에서 다 답하지 못한 것들

네 번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반복해서 받은 질문들이 있다. 시간의 제약으로 강의에서는 짧게만 답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본 장은 그 질문들에 충분히 답한다. 각 답변은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다.

질문 1 — AI 가 설교문을 쓰면 그것은 설교입니까?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다. 그리고 답하기 전에 물음을 나누어야 한다. “AI 가 설교문을 만들 수 있는가”와 “그것이 설교인가”는 다른 물음이다. 첫째 물음의 답은 명백하다.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점점 더 잘할 것이다. 본문 주해, 예화 수집, 구조 설계, 문장 다듬기 — 이 모든 것에서 AI 는 유능하다.

둘째 물음이 진짜 문제다. 본서는 세 층위로 구별할 것을 제안한다. 자료의 층위에서 AI 를 쓰는 것은 도서관을 쓰는 것과 같은 범주다. 원어 분석과 주석 비교에서 AI 는 정당한 도구다. 표현의 층위에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초고를 AI 가 쓰고 설교자가 고치는 것은 어떤가. 여기서는 정도의 문제이며 정직성의 문제다. 형성의 층위가 결정적이다.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tacit knowledge) 개념이 여기서 결정적이다. 그의 유명한 명제는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이다.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과정 자체가 설교자를 만든다. 그 과정을 건너뛰면 설교문은 남고 설교자는 형성되지 않는다.

▶ Michael Polanyi, *The Tacit Dimen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4.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은 지식이 명제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으며 실천과 도제적 형성을 통해 전수된다는 것을 보인다. 설교학에 적용한 논의로는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3r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6) 참조.

그러므로 본서의 답은 이것이다. AI 는 설교문을 만들 수 있으나 설교자를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설교는 문서가 아니라 증언이다. 증언은 증인을 요구한다.

질문 2 — AI 로 성경을 연구해도 됩니까?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한다. 다만 순서와 검증의 원칙이 있다.

순서. 먼저 본문을 읽고, 스스로 물음을 만들고, 그다음에 AI 에게 묻는다. 반대로 하면 AI 가 나의 물음을 결정한다. 그리고 물음을 결정하는 자가 답의 범위를 정한다.

검증. AI 는 존재하지 않는 주석과 구절과 학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구조적 특성이다. 대규모 언어모델은 사실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다음 토큰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용은 반드시 원자료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놀라운 기회가 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사본과 고대 근동 배경에 접근하는 비용이 인류 역사상 가장 낮아졌다.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신약을 편집하는 데 평생이 걸렸다. 오늘의 신학생은 그가 접근하지 못했던 사본 정보까지 즉시 볼 수 있다. 이것이 본서가 말하는 Ad Fontes 다.

질문 3 — AI 에게 상담을 맡겨도 됩니까?

여기서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정보 제공으로서의 상담은 AI 가 유용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안내하고,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일이다. 실제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관계로서의 목회적 돌봄은 다르다. 여기서 세 가지 위험을 지적한다. 첫째, 위기 판단의 실패. 자살 위험이나 학대 상황을 AI 가 정확히 판별한다는 보장이 없다. 둘째, 책임의 공백. 잘못된 조언의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가. 셋째, 그리고 가장 깊은 문제 — 마찰의 부재.

AI는 언제나 응답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지치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문제다. 레비나스가 보여주었듯 타자의 얼굴은 나의 기대를 배반하고 나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저항이 나를 윤리적 주체로 세운다. 위협이 없는 고백은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

- ▶ Emmanuel Levinas, *Totalité et Infini* (La Haye: Nijhoff, 1961); 영역 *Totality and Infinity*, trans.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69). AI 동반자의 심리적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단기적 위안과 장기적 관계 능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질문 4 — AI 시대에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부모와 조부모가 가장 절박하게 묻는 질문이다. 본서는 네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마찰을 보존하라. 로버트 비요크의 “바람직한 난이도(desirable difficulties)” 연구는 학습 과정의 어려움이 오히려 장기 기억과 전이를 향상시킴을 보여준다. 근육은 저항 없이 자라지 않는다. 사고도 그렇다.

- ▶ Robert A. Bjork and Elizabeth L. Bjork, "A New Theory of Disuse and an Old Theory of Stimulus Fluctuation," in *From Learning Processes to Cognitive Processes*, ed. Alice Healy et al. (Hillsdale, NJ: Erlbaum, 1992). OECD의 2026년 분석도 "더 나은 성과"와 "더 나은 학습"이 같지 않다고 지적한다.

둘째, 순서를 지키라. 먼저 스스로 시도하고, 막힌 뒤에 AI에게 묻고, 받은 답을 검증한다. 이 순서가 증강과 대체를 가른다.

셋째, 나이에 맞추라. 어린 나이일수록 손과 몸과 관계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읽기와 쓰기와 셈하기의 기초가 형성되기 전에 그것을 외부화하면 기초 자체가 서지 않는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 형성의 물음으로 옮기라. “AI를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인간으로 자라게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신명기 6장이 그 답이다 — 앓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울 때든

일어날 때든 강론하라. 교육이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동행이라는 것이다.

질문 5 — AI가 짐승의 표입니까?

직설적으로 답한다. 그렇게 단정할 성경적 근거가 없다.

교회는 이 오류를 반복해 왔다. 인쇄술과 철도와 전기와 바코드와 신용카드와 인터넷이 차례로 “짐승의 표”로 지목되었고 번번이 틀렸다. 그리고 그때마다 교회는 신뢰를 잃었다.

본문 자체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13 장의 666 에 대해 다수의 주석가는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로 “네로 카이사르(נְרוֹן קֵסָר)”를 읽는다. 그리고 일부 사본이 616 으로 읽는 것이 이 해석을 지지한다. 라틴어 형태(Nero Caesar)로 계산하면 616 이 되기 때문이다.

- ▶ 666 과 616 이문에 관하여는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718–728; Craig R. Koester, Revelation, Anchor Yale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596–599 참조. 옥시린쿠스 파피루스 P115 가 616 을 지지하는 중요한 증거다.

그리고 “COMPUTER = 666”류의 계산이 왜 성립하지 않는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A 를 6 으로 놓고 알파벳을 6 씩 증가시키는 규칙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 먼저 666 이 나오도록 규칙을 정한 뒤 적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물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다.

“컴퓨터가 666 인가”가 아니라

정치권력과 경제거래와 개인식별과 정보통제와 충성요구가

하나의 체제로 결합될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가이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 충성을 요구하는 권세의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는 어느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다.

질문 6 — 그리스도인이 AI 개발에 참여해도 됩니까?

된다. 그리고 참여해야 한다. 출애굽기 31 장의 브살렐이 그 근거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든 장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셨다(출 31:3). 성경에서 기술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한 유일한 본문이다. 그러므로 기술 자체는 정죄되지 않는다.

오히려 물어야 할 것은 방향이다. 첫째, 이 기술은 누구를 섬기는가. 고통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하는가. 둘째, 이 기술은 인간의 유한성을 돌보는가 부정하는가. 셋째, 이 기술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는가 통제하려 하는가.

그리고 실천적으로 덧붙인다. AI 개발과 정책과 윤리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그 자리의 판단은 다른 가치관이 채울 것이다. 요셉과 다니엘이 제국의 행정 한복판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질문 7 — 교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본서는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순서에 논리가 있다.

① 배우라. 알지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게으름이다. 그리고 알지 못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무모함이다. ② 지침을 세우라. 우리 공동체는 AI 를 무엇에 쓰고 무엇에 쓰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 ③ 몸으로 모이는 것을 지키라. 온라인이 편리해질수록 대면 예배와 성찬과 심방의 가치는 커진다.

④ 컴퓨트 빈국을 기억하라. 세계은행은 고소득 국가가 상위 500 대 슈퍼컴퓨터의 86%를 보유하는 반면 저소득 국가 인구의 5% 미만만이 기초 디지털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한다. 교회가 늘 찾아갔던 변방이 이제 컴퓨트 빈국이다. ⑤ 사람을 형성하라.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제 5 부

진단에서 사명으로

FROM DIAGNOSIS TO MISSION

제 24 장

시대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까지 우리는 진단했다. 문명을 읽었고, 권세를 읽었고, 인간을 물었으며,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살폈다. 그런데 진단은 처방이 아니다.

네 번의 강의를 마치며 가장 많이 받은 반응이 이것이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물음에 답하지 않으면 이 책은 잘 정리된 불안에 그친다.

Understanding the Age is not enough.

The Church needs a direction, a strategy, and a way to walk.

시대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회에는 방향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며, 걸어갈 길이 필요하다.

1. 네 단계의 구별

그러므로 본 부는 네 단계를 구별한다. 이 구별이 없으면 논의가 자주 뒤섞인다.

① THE BIG PICTURE —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지도 없이 방향을 논할 수 없다. ② DIRECTION —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방향은 목적지가 아니라 나아갈 쪽이다. ③ STRATEGY — 어떻게 갈 것인가. 전략은 목표가 아니라 힘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의 결정이다. ④ ACTION —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앞의 셋은 담론에 그친다.

많은 강연과 책이 ①에서 멈춘다. 일부는 ②까지 간다. ③과 ④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청중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2. 전략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낱말 하나를 정확히 해야 한다. 전략(strategy)이라는 말이 너무 험겁게 쓰이기 때문이다.

어원부터 보자. 헬라어 스트라테고스(στρατηγός)는 스트라토스(στρατός, 군대)와 아게인(ἄγειν, 이끌다)의 결합으로 “군대를 이끄는 자”, 곧 장군을 뜻한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통찰이 나온다. 장군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어디서 싸울지를 정하는 사람이다.

- ▶ στρατηγός의 어원과 고전기 아테네에서의 용례에 관하여는 Liddell-Scott-Jones, A Greek-English Lexicon, 해당 항목 참조. 근대적 의미의 “전략” 개념 형성사는 Beatrice Heuser, The Evolution of Strategy: Thinking War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를 보라.

그러므로 전략은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이고 전략은 “어디에 힘을 집중할 것인가”이다. 자원은 언제나 유한하므로 전략의 본질은 선택과 포기다. 마이클 포터가 말했듯 전략의 핵심은 무엇을 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다.

- ▶ Michael E. Porter, "What Is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74, no. 6 (1996): 61–78. 포터는 운영 효율성(operational effectiveness)과 전략(strategy)을 구별하며, 전자는 같은 일을 더 잘하는 것이고 후자는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논한다.

그리고 전략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

INFORMATION → INTELLIGENCE → DIRECTION → STRATEGY → ACTION

정보(Information)는 전쟁터에 무엇이 있는가이고, 정보 판단(Intelligence)은 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이며, 방향(Direction)은 어디로 갈 것인가이고, 전략(Strategy)은 어디에 힘을 집중할 것인가이며, 행동(Action)은 누가 무엇을 언제 할 것인가이다.

Information without Strategy produces paralysis.

정보는 많은데 전략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교회의 실제 상태에 가깝다. AI에 관한 정보는 넘친다. 세미나도 많고 기사도 많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AI 시대의 교회에 부족한 것은 AI 정보가 아니라 Mission Strategy이다.

3. 그러나 신학적 단서를 먼저 붙인다

여기서 반드시 붙여야 할 단서가 있다. 전략이라는 낱말이 군사적 기원을 가진다는 사실이 불편할 수 있고, 실제로 불편해야 한다.

선교사에서 정복의 언어를 걷어내는 일은 20세기 후반 선교학의 중요한 과제였다. “전략”과 “표적”과 “돌파”와 “동원” 같은 어휘가 복음 전파를 정복 작전처럼 상상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은 정당하다. 데이비드 보쉬가 「변화하는 선교」에서 상세히 추적했듯, 선교의 언어는 시대의 지배적 은유를 반복해서 빌려 왔다.

- ▶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Orbis Books, 1991). 특히 계몽주의 패러다임과 선교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을 보라. 선교 언어의 군사적 은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는 Wilbert R. Shenk, ed., *Enlarging the Story: Perspectives on Writing World Christian History* (Maryknoll: Orbis Books, 2002)도 참조할 만하다.

그러므로 본서가 “전략”을 사용할 때 그것은 정복의 전략이 아니라 청지기의 전략이다. 물어야 할 것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맡겨진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 물음은 오히려 지극히 성경적이다.

예수께서 망대를 세우는 사람과 전쟁하러 가는 임금의 비유를 드셨을 때(눅 14:28-32) 그 요점은 앉아서 먼저 계산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책망받은 좋은 말은 것을 사용하지 않은 종이였다(마 25:24-30). 계산하지 않는 열심과 사용하지 않는 신중함은 둘 다 성경적이지 않다.

제 25 장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 The Great Mission Transition

전략을 세우려면 먼저 지도가 있어야 한다. 본 장은 1900 년과 2026 년의 선교 지형을 비교하되, 단순 대조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동으로 읽는다.

1. 1900 년의 선교 지형

1900 년 뉴욕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Ecumenical Missionary Conference)에는 약 20 만 명이 참석했고, 미국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연설했다. 당시 선교는 시대의 가장 뜨거운 운동이었다. 그리고 10 년 뒤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1910)가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 ▶ 에든버러 1910 에 관하여는 Brian Stanley,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Edinburgh 1910 (Grand Rapids: Eerdmans, 2009) 참조. 이 대회는 흔히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서구 중심적 선교 이해의 정점이기도 했다.

그 시대 선교의 구조를 여섯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리적 선교 — 선교는 장소로 이해되었다. West → Rest — 서구가 보내고 나머지가 받았다. 선교사 → 선교지 — 방향이 일방적이었다. 인쇄와 번역 — 매체가 종이였다. 정보의 희소 —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문제였다. 물리적 변방 — 개척지는 지도 위에 있었다.

2. 2026 년의 선교 지형

그리고 지금의 구조는 여섯 항목 모두에서 달라졌다.

Everywhere ↔ Everywhere.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필립 젠킨스가 「다음 기독교 세계」에서 보여주었던 20 세기 후반부터 남반구 기독교가 다수가 되었고,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와 받는 나라의

구별이 무너졌다. 브라질과 나이지리아와 한국이 선교사를 보내고, 유럽이 선교지가 된다.

- ▶ Philip Jenkins,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rev.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3rd ed.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9).

Network ↔ Network. 개별 기관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단위가 된다. Church ↔ Church. 선교단체를 거치지 않는 교회 대 교회의 직접 협력이 늘어난다. Human + AI. 번역과 연구와 콘텐츠 제작에 AI가 결합한다. 정보의 과잉. 문제가 결핍에서 과잉으로 바뀌었다. 물리적 + 디지털 변방. 개척지가 지도 위에만 있지 않다.

3. 그런데 이 대조에는 함정이 있다

여기서 혼한 오류를 피해야 한다. “과거는 낡았고 현재는 진보했다”는 도식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선교학적으로 위험하다.

첫째, 1900 년의 과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남아 있으며,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다. 새 전선이 생겼다고 옛 전선이 닫힌 것이 아니다.

둘째, 과거의 선교가 남긴 유산이 오늘의 토대다. 남반구 교회의 성장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앞선 세대의 헌신 위에 서 있다. 앤드루 월스가 반복해 지적했듯 기독교는 중심을 옮기며 살아남았고, 그 이동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에 속한다.

- ▶ Andrew F. Walls,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Studies in the Transmission of Faith* (Maryknoll: Orbis Books, 1996). 월스의 “연속적 중심 이동” 논제는 기독교사를 읽는 결정적 틀을 제공한다.

셋째, 기술이 선교를 대신하지 않는다. 도구가 바뀌었을 뿐 사명은 같다. 그리고 이 책 전체가 그 사실을 반복해 말한다.

The Gospel has not changed. The mission field has.

복음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가 바뀌었다.

제 26 장

세계교회의 방향과 전략 — 다중심 선교와 선교 생태계

이제 방향을 구체화한다. 그리고 세 층위로 나눈다 — 세계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사 개인. 본 장은 첫째를 다룬다.

1. DIRECTION I — 파송 선교에서 다중심 선교로

세계교회의 첫째 방향은 다중심 선교(Polycentric Mission)다. 그리고 이 개념은 이미 세계 선교계의 공식 언어가 되었다.

2024 년 서울·인천에서 열린 제 4 차 로잔대회(L4)에는 200 개 이상 나라에서 5,300 여 명의 대표가 모였고,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로잔 운동의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2024)」는 이렇게 정식화한다 — 기독교 선교는 더 이상 “서구에서 나머지로”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전개된다.

▶ Lausanne Movement, The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 (2024). 다만 Jay Matenga 를 비롯한 여러 선교학자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라는 표현이 여전히 방향성의 은유에 머문다고 지적하며 “상호성(mutuality)”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제안한다. 이 논쟁 자체가 다중심 선교 개념이 아직 형성 중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본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AI 시대의 다중심 선교는 단순히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뜻이 아니다.

Polycentric Mission Ecosystem

교회와 선교와 마켓플레이스와 기술과 교육과 미디어와 디아스포라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는 것이다. 파송의 다중심화를 넘어 기능의 다중심화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No single nation will lead the next era of mission. The Body of Christ will.

다음 선교 시대를 한 국가가 이끌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함께 이끈다.

2. 그러나 다중심에는 위험도 있다

학문적 정직을 위해 반대편도 보아야 한다. 다중심 선교에는 세 가지 실제적 위험이 있다.

첫째, 조정의 부재다. 중심이 없으면 중복과 공백이 동시에 생긴다. 같은 지역에 열 개 단체가 몰리고 다른 지역은 비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둘째, 책임의 분산이다. 모두가 책임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선교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답할 것인가. 셋째, 비대칭의 은폐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라는 수사가 실제 자원의 비대칭을 가릴 수 있다. 말은 상호적인데 돈과 기술의 흐름은 여전히 한 방향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중심 선교는 구호가 아니라 설계의 과제다. 그리고 그 설계가 다음 절의 전략이다.

3. STRATEGY I — 만들기 전에 연결하라

세계교회의 첫째 전략을 본서는 이렇게 정식화한다.

Connect before you build. Collaborate before you duplicate.

새로운 것을 만들기 전에 연결하라. 이미 있는 것을 중복하기 전에 협력하라.

기존 선교의 구조는 선형적이었다 — 교회 → 선교단체 → 선교사 → 선교지. 각 단계가 다음 단계로 자원을 전달했다. 이 구조는 명확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했다. 그러나 느리고, 중복이 많고, 새로운 자원을 흡수하지 못한다.

AI 시대의 구조는 망(網)이어야 한다. 교회와 선교와 기술과 미디어와 디아스포라와 비즈니스와 교육이 서로 연결되고, 어느 지점에서든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자가 선교단체를 통하지 않고 현지 교회와

직접 협력할 수 있고, 디아스포라 청년이 본국 교회와 현지 사역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실천적 조언 하나를 덧붙인다. 생태계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생태계로 간다”고 선포하는 대신, 구체적인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세 기관이 협력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 신뢰는 문서가 아니라 함께 일한 기억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제 27 장

한국교회의 방향과 전략 — 파송 강국에서 선교 플랫폼으로

본 장은 한국교회를 다룬다. 그리고 여기서는 애정과 비판을 함께 담아야 한다.

1. 한국교회가 이룬 것

먼저 인정할 것을 인정한다. 한국교회는 20 세기 후반 세계 선교사에 뚜렷한 자리를 차지했다. 선교사 파송, 재정 지원, 교회 개척, 신학교 설립, 기도운동. 그리고 이 기여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집계되어 왔다.

-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연례 통계 및 Todd M. Johnson et al.,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3rd ed. 참조. 다만 "선교사"의 정의와 집계 방식이 나라마다 달라 국제 비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직해야 할 것이 있다. 파송 숫자의 증가율은 이미 오래전 둔화되었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교회 자체의 성장이 멈추었다. 그러므로 “더 많이 보내자”는 구호만으로 다음 세대의 사명을 정의할 수 없다.

2. DIRECTION II — Mission Powerhouse 에서 Mission Platform 으로

본서가 제안하는 한국교회의 방향은 이것이다.

FROM SENDING NATION TO MISSION PLATFORM

무엇이 달라지는가. 과거의 축은 선교사 파송, 재정 지원, 교회 개척, 신학교, 건축이었다. 다음의 축은 연결, 훈련, 역량 강화, 기술 공유, AI 역량 구축, 남반구 동반관계다.

그리고 평가의 질문이 바뀐다.

한국교회의 다음 선교적 질문은 “몇 명을 파송했는가”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선교사를 연결하고 세웠는가”가 되어야 한다.

이 전환이 왜 필요한가. 첫째, 자원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재정 여력은 정점을 지났으나 기술과 네트워크 역량은 오히려 커졌다. 둘째, 현지 교회가 자랐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셋째, AI가 반복 업무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번역과 자료 제작과 행정에 들던 시간이 줄면, 그 시간을 관계와 훈련에 쓸 수 있다.

3. WHY KOREA — 다리 문명으로서의 한국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인가. 본서는 세 영역의 교차를 근거로 든다.

- ① 기술. 반도체와 AI와 통신망과 디지털 문화와 플랫폼 경험. 스탠퍼드 「AI 인덱스 2026」은 한국이 인구당 AI 특허에서 선두라고 보고한다.
- ② 선교. 세계적 파송 경험, 교회 개척, 기도운동, 신학교육, 남반구 네트워크.
- ③ 디아스포라. 175 개국에 약 750 만 명. 미국·일본·중국·동남아·유럽·중남미·아프리카에 이미 흩어져 있다.

이 세 영역이 동시에 상당한 수준에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기술이 강한 나라는 선교 경험이 얇고, 선교 경험이 깊은 나라는 기술이 약하며, 둘 다 있는 나라는 디아스포라가 없다.

KOREA AS A BRIDGE — Technology × Mission × Diaspora

그러므로 본서는 이렇게 정식화한다.

한국교회의 미래 선교 자산은 돈이나 인원만이 아니라
연결 능력(Connection Capacity)이다.

다만 여기서 경계할 것이 있다. “한국이 특별하다”는 서술은 쉽게 선민의식으로 변질된다. 20 세기 선교사가 반복한 오류가 정확히

그것이였다. 그러므로 이 논의는 우월성의 주장이 아니라 책임의 확인으로 읽혀야 한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된다는 원리(눅 12:48)가 여기에 적용된다.

4. STRATEGY II — AI 선교 역량 구축

한국교회가 해야 할 것은 모든 교회에 AI 전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세계교회와 선교사들이 AI 문명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나누는 것이다. 다섯 갈래로 제안한다.

① AI Literacy.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AI 기본교육.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어디서 실패하는지를 아는 것. ② AI Theology. 성경적·신학적 분별. 본서의 앞부분이 그 자료다. ③ AI Mission Tools. 번역·교육·연구·콘텐츠·행정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도구와 작업흐름. ④ Global South Access. 저자원 지역의 AI 접근성 지원 — 오프라인 도구, 저대역폭 환경, 저자원 언어. ⑤ AI Mission Network. 교회·선교단체·개발자·기업·학교를 연결하는 망.

그리고 이 다섯을 관통하는 원칙이 있다.

Do not create AI consumers. Raise AI-capable mission partners.

본서 제 13 장에서 다룬 알고리즘 식민주의의 위험이 여기서 실천적 형태를 얻는다. 완성품을 보내면 결과물은 남고 역량은 남지 않는다. 현지 교회를 소비자가 아니라 소유자와 판단자와 생산자와 공동설계자로 세워야 한다.

제 28 장

선교사의 방향과 전략 — 제공자에서 연결자로

본 장은 가장 개인적이다. 선교사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다루기 때문이다.

1. 두려움을 먼저 인정한다

AI를 이야기할 때 선교사들이 느끼는 것을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내가 하던 일을 기계가 더 잘하게 되면 나는 무엇인가.”

이 두려움은 근거가 없지 않다. 과거의 선교사는 많은 경우 교사이자 건축가이자 번역자이자 설교자이자 제공자였다. 그리고 이 기능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제 기술로 보완된다. 언어를 배우는 데 10년이 걸렸는데 실시간 번역이 가능해지고, 교재를 만드는 데 몇 달이 걸렸는데 며칠로 줄어든다.

그러나 본서의 답은 이것이다. 선교사의 역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 이동은 손실이 아니라 회복이다.

2. DIRECTION III — MISSIONARY 2.0

여섯 가지 역할로 정리한다.

연결자(Connector).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 본국 교회와 현지 교회, 세대와 세대, 전문가와 현장. 세우는 자(Equipper). 현지 지도자를 세운다.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게 한다. 큐레이터(Curator). 지식과 자원을 선별한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무엇이 신뢰할 만한지를 가려 주는 것이 큰 봉사다.

분별의 지도자(Discernment Leader). 무엇이 옳은지 판단한다. AI가 답을 줄수록 판단의 책임은 사람에게 남는다. 몸으로 증언하는 자(Embodied Witness). 삶으로 복음을 보인다. 다리를 놓는 자(Bridge Builder). Global과 Local을 잇는다.

AI can transfer information. Missionaries must cultivate transformation.

AI 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선교사는 사람과 공동체의 변화를 섬겨야 한다.

3. STRATEGY III — 마찰은 줄이고 현존은 늘린다

본서 제 11 장에서 “선교 마찰의 붕괴”를 다루었다. 이제 그것을 전략으로 전환한다.

AI 가 낮추는 마찰은 다섯 가지다. 언어 — 번역과 통역. 거리 — 온라인 훈련과 네트워크. 비용 — 콘텐츠 제작과 행정. 시간 — 연구와 준비. 전문성 격차 — 교육과 자문.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 물음이 나온다. 그렇게 줄어든 시간을 무엇에 쓸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지 않으면 AI 는 단지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실제로 많은 조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효율이 오르면 기대치도 오르고, 결국 같은 피로에 도달한다. 제번스의 역설이 노동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략은 이렇게 정식화되어야 한다.

Use AI to reduce the friction of mission
so that missionaries can increase the presence of mission.

AI 로 선교의 마찰은 줄이고, 사람을 향한 현존은 늘려라. 구체적으로 무엇에 쓸 것인가. 기도, 현존, 제자훈련, 관계, 현지 지도력 세우기, 그리고 전도. 이 여섯은 AI 가 대신할 수 없고, 동시에 선교사가 가장 하고 싶어 했으나 시간이 없어 못 하던 것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본서 제 21 장의 명제와 정확히 만난다. 현존이 희소해지는 시대에 현존을 늘리는 것이 곧 전략이다.

제 29 장

네 개의 전선과 다섯 개의 전략

전략은 어디에 힘을 집중할 것인가의 결정이다. 그렇다면 어디인가. 본장은 두 개의 목록으로 답한다 — 네 개의 전선과 다섯 개의 전략.

1. FOUR MISSION FRONTS

전선 1 —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 여전히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다. 조슈아 프로젝트 등의 집계 따르면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된다. 이 전선은 닫히지 않았다. 새로운 전선을 말한다고 옛 전선을 접는 것은 오류다.

▶ 미전도 종족의 정의와 통계는 기관마다 다르며, "종족(people group)" 개념 자체에 대한 선교학적 비판도 존재한다. Joshua Project 와 IMB 의 집계 방식 차이, 그리고 종족 중심 선교 전략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는 Jay Matenga 의 최근 논의를 참조하라.

전선 2 — 디지털 인구(Digital People). 알고리즘과 플랫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검색과 추천과 피드가 신앙 형성에 관여한다. 이 전선의 특징은 지리적 국경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기존 선교 구조가 다루기 어렵다.

전선 3 — 이동 인구(Displaced People). 디아스포라와 이주민과 난민. 유엔난민기구는 강제 이주민이 1억 2천만 명을 넘었다고 보고한다.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태어난 곳이 아닌 곳에 산 적이 없다. 그리고 이동은 선교의 장애가 아니라 통로가 될 수 있다 — 사도행전 8 장의 흠여침이 그러했듯.

▶ UNHCR, Global Trends Report. 강제 이주민 통계는 매년 갱신되므로 인용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디아스포라 선교학에 관하여는 Enoch Wan, ed., *Diaspora Missiology: Theory, Methodology, and Practice* (Portland: Institute of Diaspora Studies, 2011) 참조.

전선 4 — 방향을 잃은 사람들(Disoriented People). 그리고 본서가 가장 강조하려는 전선이 이것이다. 정보는 넘치는데 의미와 정체성과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다.

**1900 년의 문제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2026 년의 새 문제는 “모든 것을 듣지만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 전선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전통적 선교 방법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를 더 주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논증을 더 정교하게 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필요한 것은 살아진 삶의 증거다. 그리고 이것이 본서가 현존을 강조하는 이유다.

2. FIVE STRATEGIES FOR AI-ERA MISSION

그리고 다섯 개의 전략을 제안한다. 이것은 개념 목록이 아니라 실행의 순서다.

① MISSION ARCHITECTURE — Connect the Systems. 교회와 선교와 AI 와 데이터와 플랫폼을 연결한다. 여기서 “아키텍처”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 무엇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설계를 뜻한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 설계 없이 도구를 하나씩 도입하고, 그 결과 데이터가 흩어지고 작업이 중복된다.

② MISSION ECOSYSTEM — Connect the People. 교회와 기업과 개발자와 선교사와 콘텐츠 제작자를 연결한다. 앞의 것이 시스템의 연결이라면 이것은 사람의 연결이다. 그리고 후자가 훨씬 어렵다. 기술은 표준으로 연결되지만 사람은 신뢰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③ COGNITIVE MISSION — Enter the Mind. 알고리즘이 형성하는 사고와 세계관과 정체성 속으로 들어간다. 19 세기 선교사가 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갔다면, 21 세기 선교사는 알고리즘을 따라 인간 의식의 내륙으로 들어간다. 다만 이 은유를 침투나 조작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요점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④ ATTENTION MISSION — Recover Attention. AI 시대의 가장 희소한 자원인 인간의 주의를 회복한다. 허버트 사이먼이 1971 년에 이미 지적했듯 정보의 풍요는 주의의 빈곤을 낳는다. 그리고 주의 없이는 묵상도 기도도 관계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주의의 회복은 영성의 문제다.

- ▶ Herbert A. Simon, "Designing Organizations for an Information-Rich World," in Computers, Communications, and the Public Interest, ed. Martin Greenberger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71), 40–41. "정보의 풍요는 주의의 빈곤을 낳는다"는 그의 문장은 주의 경제(attention economy)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⑤ PRESENCE MISSION — Recover the Human. 초연결 시대에 몸과 관계와 공동체와 성육신적 현존을 회복한다. 그리고 이것이 다섯 전략의 종착점이다.

ARCHITECTURE → ECOSYSTEM → MIND → ATTENTION → PRESENCE

이 순서에 논리가 있다. 시스템을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자리로 들어가고, 그들의 주의를 회복하고, 마침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새로운 전략이다.

제 30 장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마지막 장이다. 그리고 여기서 거대한 담론을 한 사람에게로 가져온다.

AI 문명의 변화는 거대하지만 순종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다.

1. 다섯 개의 질문

먼저 스스로에게 물을 다섯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앞의 스물아홉 장은 정보에 그친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What should I LEARN). 막연히 “AI 를 배워야지”가 아니라 하나를 정한다. 무엇을 멈출 것인가(What should I STOP). 새로 시작하려면 무언가를 놓아야 한다. 그리고 대개 이것이 더 어렵다.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What should I START). 작아도 좋다. 측정 가능해야 한다. 누구와 연결할 것인가(Whom should I CONNECT). 혼자 하는 결심은 오래가지 않는다. 어디로 갈 것인가(Where should I GO). 물리적 이동일 수도 있고 관심의 이동일 수도 있다.

2. 나의 AI 생활 규칙

그리고 일곱 가지 실천을 제안한다. 수도원의 “생활 규칙(Rule of Life)”에서 형식을 빌렸다. 규칙은 속박이 아니라 형성의 틀이기 때문이다.

배운다(LEARN). AI 하나를 제대로 배운다. 열 개를 알게 아는 것보다 하나를 깊이 아는 것이 낫다. 분별한다(DISCERN). AI 의 답을 그대로 믿지 않고 검증한다. 특히 인용과 통계는 반드시 원자료를 확인한다. 만든다(CREATE). 복음을 위한 콘텐츠 하나를 만든다.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이동하는 첫걸음이다.

연결한다(CONNECT).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세대의 한 사람과 연결한다. 지킨다(PROTECT). 매일 AI 와 화면이 침범하지 못하는 시간을 만든다.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여섯이 무너진다. 함께 있는다(BE PRESENT). 한 사람을 직접 만나 듣고 기도한다. 증언한다(WITNESS). AI 가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Do not merely use AI.

Decide what kind of person AI will not make you become.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다. AI 를 어떻게 쓸 것인가보다 AI 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도구는 사용자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3. 처음 90 일

그리고 실행의 시간표를 제안한다. 90 일인 이유가 있다. 1 년은 너무 멀고 한 달은 너무 짧다.

첫 30 일 — 배운다(LEARN). AI 문해력과 AI 신학의 기초를 다지고, 현재 사역을 점검한다. 무엇에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가를 적어 본다. 다음 30 일 — 실험한다(EXPERIMENT). 번역이든 교육이든 전도든 콘텐츠든 행정이든, 작은 프로젝트 하나를 실제로 실행한다. 실패해도 좋다. 실패는 자료가 된다. 마지막 30 일 — 연결한다(CONNECT). 교회, 선교사, 개발자, 청년, 기업, 현지 지도자 가운데 세 명 이상과 미션 팀을 구성한다.

LEARN → EXPERIMENT → CONNECT → MULTIPLY

4. 교회를 위한 1 년

개인의 90 일이 있다면 교회의 1 년도 있어야 한다. 네 분기로 제안한다.

Q1 — 이해한다(UNDERSTAND). AI 문해력과 AI 신학. 전 교인이 아니라 핵심 그룹부터. Q2 — 세운다(BUILD). AI 언약을 작성하고 팀을

구성한다. 본서 제 9 장의 다섯 항목이 그 틀이다. Q3 — 시범한다(PILOT). 하나의 실제 선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Q4 — 확산한다(MULTIPLY). 나누고 훈련하고 연결한다.

1 CHURCH · 1 TEAM · 1 PROJECT · 1 YEAR

그리고 여기서 강조할 것이 있다. 모든 교회가 거대한 AI 센터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한 교회가 한 팀을 만들고 한 가지 실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백 개가 되면 그것이 생태계다.

5. 최종 지도

본 부의 논의를 하나의 지도로 압축한다. 네 층위가 동심원을 이룬다.

세계교회 — 다중심 선교. 한국교회 — 선교 플랫폼. 선교사 — 연결자와 세우는 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 분별하고, 사용하고, 연결하고, 증언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기술도 전략도 아니다. 십자가이며, 그 길이신 분이다.

One Gospel. New Roads. New Strategy. The Same Mission.

6. 마지막 질문

이 책을 두 개의 질문으로 닫는다. 첫째 질문은 모두가 묻는 것이다.

AI 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러나 본서는 이 질문이 결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무도 답할 수 없고, 답한다 해도 그 답이 우리의 순종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둘째 질문으로 옮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정식화한다.

The decisive question is not how intelligent AI will
become,

but how faithful the Church will remain.

마지막 질문은 AI가 얼마나 지능적이 될 것인가가 아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실하게 남을 것인가이다.

에필로그

길은 바뀌었다, 사명은 바뀌지 않았다

네 권의 책이 여기서 끝난다. 제 1 장 「길」은 AI가 새로운 문명의 인프라가 되고 있음을 논증했고, 제 2 장 「권세」는 컴퓨터가 경제와 정치와 군사와 지정학의 권세가 되고 있음을 보였으며, 제 3 장 「형상」은 인간의 존엄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함을 논증했다. 그리고 제 4 장 「교회」는 그 모든 것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물었다.

네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다. AI는 문명의 다섯 번째 문턱이다. 그 문턱을 넘게 하는 힘은 컴퓨터이며 그것은 궁극적 권세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은 능력이 아니라 부르심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길 위에서 분별하고 증언한다.

그리고 이 시리즈 전체를 하나의 명제로 줄이면 이렇게 된다.

길이 지성이 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길 위에 있다.

마지막으로 파송의 말씀을 인용한다. 마태복음 28 장의 대위임령도 좋지만, 본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택한다. 파송의 근거가 명령 이전에 성부의 파송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The Mission Continues. The Road Has Changed. The Gospel Has Not.
길은 바뀌었다. 보냄받은 사명은 바뀌지 않았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 Benveniste, Émile. "Civilisation: Contribution à l'histoire du mot." In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Gallimard, 1966.
- Braudel, Fernand. *A History of Civilizations*. Translated by Richard Mayne. New York: Penguin, 1993.
- Elias, Norbert. *The Civilizing Process*. Translated by Edmund Jephcott. Oxford: Blackwell, 2000.
- Ferguson, Adam. *An 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 Edinburgh, 1767.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 Innis, Harold A. *Empire and Communications*. Oxford: Clarendon Press, 1950.
- Innis, Harold A. *The Bias of Communic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51.
- McNeill, William H. *The Rise of the West: A History of the Human Commu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 Mumford, Lewis. *Technics and Civilization*. New York: Harcourt, Brace, 1934.
- Mumford, Lewis. *The Myth of the Machine*. 2 vol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7–1970.
- Spengler, Oswald.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2 vols. München: C. H. Beck, 1918–1922.
- Toynbee, Arnold J. *A Study of History*. 12 vol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4–1961.
- 『周易』 乾卦 九二 文言傳.
- Augustine. *De Civitate Dei; De Doctrina Christiana*.
- Benedict of Nursia. *Regula Sancti Benedicti*.
- Bevans, Stephen B. *Models of Contextual Theology*. Rev. ed. Maryknoll, NY: Orbis Books, 2002.
- Bijker, Wiebe E., Thomas P. Hughes, and Trevor J. Pinch,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Cambridge, MA: MIT Press, 1987.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 Bonhoeffer, Dietrich. *Life Together*. Translated by John W. Doberstein. New York: Harper & Row, 1954.
- Couldry, Nick, and Ulises A. Mejias. *The Costs of Connec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9.

- Escobar, Samuel. *The New Global Missi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3.
- Han, Byung-Chul. *Müdigkeitsgesellschaft*. Berlin: Matthes & Seitz, 2010.
- Hauerwas, Stanley. *The Peaceable Kingdom*.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 Hauerwas, Stanley, and William H. Willimon. *Resident Alie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 Newbigin, Lesslie. *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6.
- Newbigin, Lesslie.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9.
- Rosa, Hartmut. *Beschleunigung: Die Veränderung der Zeitstrukturen in der Moderne*. Frankfurt: Suhrkamp, 2005.
- Rosa, Hartmut. *Resonanz: Eine Soziologie der Weltbeziehung*. Berlin: Suhrkamp, 2016.
- Sanneh, Lamin. *Translating the Me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2nd ed. Maryknoll, NY: Orbis Books, 2009.
- Schreiter, Robert J. *Constructing Local Theologies*. Maryknoll, NY: Orbis Books, 1985.
- Smith, James K. A. *Imagining the Kingdom*.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 Taylor, Charles. *Modern Social Imaginarie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4.
- Taylor, Charles. *A Secular 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Walls, Andrew F.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NY: Orbis Books, 1996.
- Wright, Christopher J. H. *The Mission of Go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6.
- Zuboff, Shoshana.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New York: PublicAffairs, 2019.
- Bainbridge, Lisanne. "Ironies of Automation." *Automatica* 19, no. 6 (1983): 775-779.
- Bauckham, Richard.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Bauckham, Richard. *The Climax of Prophecy: Studie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T&T Clark, 1993.
- Bengio, Yoshua, et al.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2026.
- Berkhof, Hendrik. *Christ and the Powers*. Translated by John Howard Yoder. Scottdale, PA: Herald Press, 1962.

- Bonhoeffer, Dietrich. *Ethics*. Edited by Clifford J. Gree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5.
- Brynjolfsson, Erik, Bharat Chandar, and Ruyu Chen. "Canaries in the Coal Mine? Six Facts about the Recent Employment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tanford Digital Economy Lab, 2025 (updated 2026).
- Clark, Andy, and David J. Chalmers. "The Extended Mind." *Analysis* 58, no. 1 (1998): 7–19.
- Clouse, Robert G., ed. *The Meaning of the Millennium: Four View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7.
- Ellul, Jacques. *The Technological Society*. Translated by John Wilkinson. New York: Alfred A. Knopf, 1964.
- Ellul, Jacques. *The Meaning of the City*. Grand Rapids: Eerdmans, 1970.
-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4/1689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4.
- Gregg, Steve, ed. *Revelation: Four Views*. Rev. ed. Nashville: Thomas Nelson, 2013.
- Harari, Yuval Noah.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London: Harvill Secker, 2016.
- Heschel, Abraham Joshua. *The Sabbath: Its Meaning for Modern Man*. New York: Farrar, Straus and Young, 1951.
- Holzer, Elie, with Orit Kent. *A Philosophy of Havruta*. Boston: Academic Studies Press, 2013.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and AI*. Paris: IEA, 2025.
- Kuyper, Abraham. Inaugural Address at the Free University. 1880.
- Kyle, Richard. *The Last Days Are Here Again: A History of the End Time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8.
- Ladd, George Eldon. *The Presence of the Future: The Eschatology of Biblical Realism*. Grand Rapids: Eerdmans, 1974.
- Lausanne Movement. *Reports and Occasional Paper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ission*.
- Levinas, Emmanuel. *Totality and Infinity*. Translated by Alphonso Lingis.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69.
-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3rd e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7.
-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McGraw-Hill, 1964.
- Mishnah Sanhedrin 4:5; Pirkei Avot 3:14; m. Eduyot 1:5–6.
-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32.

-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and Related Education Analyses. Paris: OECD, 2025-2026.
- Plato. Phaedrus.
- Polanyi, Michael. The Tacit Dimen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 Postman, Neil. Amusing Ourselves to Death. New York: Viking, 1985.
- Postman, Neil. Technopoly: The Surrender of Culture to Technology. New York: Knopf, 1992.
- Simon, Herbert A. "Designing Organizations for an Information-Rich World." In Computers, Communications, and the Public Interest.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71.
- Smith, James K. A.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9.
-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rtificial Intelligence (HAI). The 2026 AI Index Report. Stanford, CA: Stanford HAI, 2026.
- UNCTAD. Technology and Innovation Report 2025: Inclusive Artificial Intelligence for Development. Geneva: UNCTAD, 2025.
-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Paris: UNESCO, 2021.
- Weil, Simone. Attente de Dieu. Paris: La Colombe, 1950.
- Wink, Walter. Naming the Power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Wink, Walter. Engaging the Power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World Bank. Digital Progress and Trends Report 2025: Strengthening AI Foundations. Washington, DC: World Bank, 2025.
- World Economic Forum. Future of Jobs Report. Geneva: WEF, 2025.
- 김종필. 「컴퓨터의 권세: 새로운 경제 패권과 세계의 재편」. 초록나무.
- 김종필. 「사람이란 무엇인가: 지성·인격·하나님의 형상」. 초록나무.
- 김종필. 「말씀과 코드 사이, 인간의 자리」. AI 시리즈 8. 초록나무.
- 김종필. 「AI와 수퍼 휴먼의 시대」. AI 시리즈 7. 초록나무.
- 김종필. 「AI 시대에 모색하는 복음의 의미」. AI 시리즈 6. 초록나무.

부록

더 읽을 자료 — 문헌·보고서·온라인 자료

본서의 논의를 더 깊이 따라가려는 독자를 위해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한다. AI 분야의 수치와 현황은 6 개월이면 낡으므로, 아래의 정기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매년 확인해야 할 정기 보고서

Stanford Institute for Human-Centered AI (HAI). AI Index Report. 매년 4 월경 발간. hai.stanford.edu/ai-index — 본서가 인용한 대부분의 AI 현황 수치의 출처다. 무료 공개이며 한국어 요약도 일부 제공된다.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요슈아 벤지오 의장. 30 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 2025 년 첫 보고서 이후 정기 갱신.

OECD. AI Policy Observatory. oecd.ai — 각국 AI 정책과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Electricity 시리즈 및 Energy and AI 특별보고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전망.

World Bank. Digital Progress and Trends Report. 컴퓨터 격차와 디지털 접근성의 국제 비교.

UNCTAD. Technology and Innovation Report. AI 의 혜택 집중과 개발도상국의 대표성 문제.

Epoch AI. epoch.ai — 훈련 계산량, 모델 규모, 데이터 추세를 추적하는 독립 연구기관. 데이터셋을 공개한다.

2. AI 기술과 그 사회적 함의

Russell, Stuart, and Peter Norvig.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4th ed. Hoboken: Pearson, 2021. 이 분야의 표준 교과서.

Russell, Stuart.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New York: Viking, 2019.

Bostrom, Nick.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Christian, Brian. The Alignment Problem: Machine Learning and Human Values. New York: W. W. Norton, 2020. 정렬 문제를 비전문가에게 설명한 가장 좋은 책.

Marcus, Gary, and Ernest Davis. Rebooting AI: Buil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e Can Trust. New York: Pantheon, 2019. 회의론의 대표적 논증.

- Crawford, Kate. Atlas of AI: Power, Politics, and the Planetary Cos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21. AI의 물질적·환경적 비용에 관한 필독서.
- Bender, Emily M., Timnit Gebru, et al. "On the Dangers of Stochastic Parrots." FAccT 2021. 대규모 언어모델 비판의 고전이 된 논문.
- Vaswani, Ashish,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NeurIPS, 2017. 트랜스포머 구조의 원논문.
- Kaplan, Jared, et al. "Scaling Laws for Neural Language Models." arXiv:2001.08361, 2020.

3. 권력·경제·지정학

- Zuboff, Shoshana.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New York: PublicAffairs, 2019.
- Durand, Cédric. Techno-féodalisme: Critique de l'économie numérique. Paris: La Découverte, 2020.
- O'Neil, Cathy. Weapons of Math Destruction. New York: Crown, 2016.
- Eubanks, Virginia. Automating Inequality. New York: St. Martin's Press, 2018.
- Couldry, Nick, and Ulises A. Mejias. The Costs of Connection: How Data Is Colonizing Human Lif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9.
- Miller, Chris. Chip War: The Fight for the World's Most Critical Technology. New York: Scribner, 2022.
- Farrell, Henry, and Abraham L.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 International Security 44, no. 1 (2019): 42-79.
- Brynjolfsson, Erik, Danielle Li, and Lindsey R. Raymond. "Generative AI at Work."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25.

4. 기술철학과 인간론

- Ellul, Jacques. La Technique ou l'enjeu du siècle. Paris: Armand Colin, 1954. 영역 The Technological Society. New York: Knopf, 1964.
- Heidegger, Martin. "Die Frage nach der Technik." 1954.
- Borgmann, Albert. Technology and the Character of Contemporary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McLuhan, Marshall.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McGraw-Hill, 1964.
- Postman, Neil. Technopoly: The Surrender of Culture to Technology. New York: Knopf, 1992.
- Dreyfus, Hubert L. What Computers Still Can't Do. Cambridge, MA: MIT Press, 1992.

- Searle, John R. "Minds, Brains, and Program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 no. 3 (1980): 417-457.
- Chalmers, David J. *Reality+ : Virtual Worlds and the Problems of Philosophy*. New York: W. W. Norton, 2022.
- Sandel, Michael J. *The Case against Perfe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Habermas, Jürgen. *Die Zukunft der menschlichen Natur*. Frankfurt: Suhrkamp, 2001.

5. 성경신학과 인간론

- Wolff, Hans Walter.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München: Kaiser, 1973. 영역 *Anthropology of the Old Testament*. Philadelphia: Fortress, 1974.
- Middleton, J. Richard. *The Liberating Image: The Imago Dei in Genesis 1*.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5.
- Kilner, John F. *Dignity and Destiny: Humanity in the Image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2015.
- Herzfeld, Noreen L. In *Our Imag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uman Spirit*. Minneapolis: Fortress, 2002.
- Wright, N. T. *The Resurrection of the Son of God*. Minneapolis: Fortress, 2003.
- Pannenberg, Wolfhart. *Anthropologie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 Moltmann, Jürgen. *Gott in der Schöpfung*. München: Kaiser, 1985.
- Heschel, Abraham Joshua. *The Sabbath*. New York: Farrar, Straus and Young, 1951.
- Heschel, Abraham Joshua. *God in Search of Man*. New York: Farrar, Straus and Cudahy, 1955.

6. 유대학·할라카·제 2 성전기

- Sanders, E. P.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Philadelphia: Fortress, 1977.
- Sanders, E. P. *Judaism: Practice and Belief, 63 BCE-66 CE*. London: SCM, 1992.
- Cohen, Shaye J. D. *From the Maccabees to the Mishnah*. 3r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4.
- Dunn, James D. G. *Jesus Remembered*. Grand Rapids: Eerdmans, 2003.
- Wright, N. T.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2 vols. Minneapolis: Fortress, 2013.
- Barclay, John M. G. *Paul and the Gift*. Grand Rapids: Eerdmans, 2015.

Westerholm, Stephen. Perspectives Old and New on Paul. Grand Rapids: Eerdmans, 2004.

Levine, Amy-Jill. The Misunderstood Jew. San Francisco: HarperOne, 2006.

Idel, Moshe. Golem: Jewish Magical and Mystical Traditions on the Artificial Anthropoid. Albany: SUNY Press, 1990.

Vermes, Geza. The Complete Dead Sea Scrolls in English. Rev. ed. London: Penguin, 2004.

Holzer, Elie, with Orit Kent. A Philosophy of Havruta. Boston: Academic Studies Press, 2013.

7. 다니엘서·묵시문학·종말론

Collins, John J.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3.

Lucas, Ernest C. Daniel. Apollos Old Testament Commentary.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2.

Perrin, Andrew, and Loren T. Stuckenbruck, eds. Four Kingdom Motifs before and beyond the Book of Daniel. Leiden: Brill, 2020. 오픈 액세스로 공개되어 있다.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9.

Koester, Craig R. Revelation. Anchor Yale Bibl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Bauckham, Richard. The Theology of the Book of Revel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Wink, Walter. Naming the Powers. Philadelphia: Fortress, 1984.

Berkhof, Hendrik. Christ and the Powers. Scottdale: Herald Press, 1962.

8. 선교학과 세계 기독교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Orbis Books, 1991.

Newbigin, Lesslie.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9.

Walls, Andrew F. The Missionary Movement in Christian History. Maryknoll: Orbis Books, 1996.

Sanneh, Lamin. Translating the Message. Maryknoll: Orbis Books, 1989.

Jenkins, Philip. The Next Christendom. Rev.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Escobar, Samuel. The New Global Mission.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3.

9. 상상된 미래 — 원전

- More, Thomas. Utopia. 1516. 비평판: Logan and Adams,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Orwell, George. Nineteen Eighty-Four. London: Secker & Warburg, 1949.
- Huxley, Aldous. Brave New World. London: Chatto & Windus, 1932.
- Bush, Vannevar. "As We May Think." The Atlantic Monthly, July 1945.
- Turing, Alan M.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Mind 59, no. 236 (1950): 433-460.
- Toffler, Alvin. The Third Wave. New York: William Morrow, 1980.
- Vinge, Vernor. "The Coming Technological Singularity." NASA Vision-21 Symposium, 1993.
- Kurzweil, Ray. The Singularity Is Nearer. New York: Viking, 2024.
- Clarke, Arthur C. Profiles of the Future. Rev. ed. New York: Harper & Row, 1973.

10. 온라인 자료와 정기 구독

아래는 본서 집필 시점에 유용했던 자료들이다. 인터넷 자료는 수시로 변화하므로 접속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 Anthropic, OpenAI, Google DeepMind 의 공식 연구 블로그 — 최전선 모델의 기술 보고서와 안전성 문서가 여기서 먼저 공개된다.
- Import AI (잭 클라크) — 매주 발행되는 AI 뉴스레터. 기술과 정책을 균형 있게 다룬다.
- The Gradient (thegradient.pub) — AI 연구자들이 쓰는 심층 해설.
- AI Alignment Forum (alignmentforum.org) — 정렬 문제에 관한 전문적 논의.
- arXiv (arxiv.org) — cs.AI, cs.CL, cs.LG 분야. 대부분의 AI 논문이 정식 출판 전에 여기 공개된다.
- Papers with Code (paperswithcode.com) — 논문과 구현 코드를 함께 볼 수 있다.
- AI Incident Database (incidentdatabase.ai) — AI 관련 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 Our World in Data — Artificial Intelligence (ourworldindata.org/artificial-intelligence) — 장기 추세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 Lausanne Movement — AI and the Great Commission 관련 자료. lausanne.org
- Vatican. Antiqua et Nova: No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Intelligence. 2025. vatican.va — 가톨릭 교회의 공식 문서이나 개신교 독자에게도 유용한 인간론적 논의를 담고 있다.
- World Council of Churches — 기술과 신학 관련 문서.

AI and Faith (aiandfaith.org) — 여러 종교 전통의 AI 윤리 논의를 모으는 플랫폼.

한국어 자료로는 각 신학교의 정기 학술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관련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AI 관련 신학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본서가 그 논의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11. 저자의 다른 저작

김종필. 「길이 지성이 되다: AI 문명과 다섯 번째 문턱」. 초록나무. — 본 시리즈 제 1 강.

김종필. 「컴퓨터의 권세: 새로운 경제 패권과 세계의 재편」. 초록나무. — 본 시리즈 제 2 강.

김종필. 「사람이란 무엇인가: 지성·인격·하나님의 형상」. 초록나무. — 본 시리즈 제 3 강.

김종필. 「길 위의 교회: AI 문명과 기독교의 미래」. 초록나무. — 본서.